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 회의일시 : 2021. 5. 25.(화), 14:00 ~ 17:10
-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 출석위원 : 윤인석(위원장), 강동진, 김이순,
김종현, 나창순, 목수현, 신안준,
이광표, 이연경, 이헌석, 이해은(이상 11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사적 「인천 팔미도 등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안 수립	(공 개)
2	사적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주변 건축물 증축 및 태양광 시설 설치	(공 개)
3	사적 「서울 한국은행 본관」 현상변경	(공 개)
4	사적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망루 보수공사	(공 개)
5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6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7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 및 괘불함」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검토사항】		
8	「제51회 보스턴마라톤대회 우승메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9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 첫 출격 기념 태극기」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0	「목포 법화원 보광사 석조미륵불」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1	「대전 소제동 철도관사 16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2	「대전 소제동 철도관사 17호 마당집」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3	「대전 소제동 철도관사 51호 두층나무집」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4	「대전 소제동 철도관사 14호 풍뉴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보고사항】		
15	국가지정문화재 등 현상변경 처리 보고	(공 개)

1. 사적 「인천 팔미도 등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안 수립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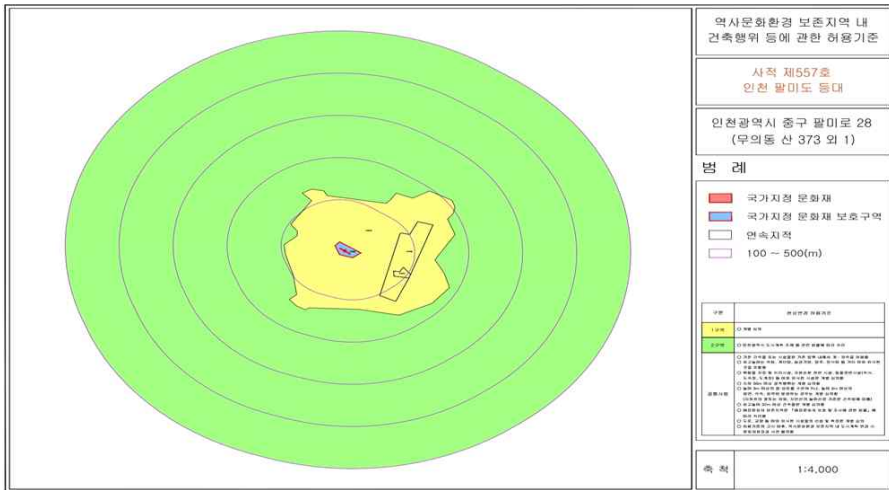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인천 팔미도 등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제5항 규정에 따라 사적 「인천 팔미도 등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안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인천 팔미도 등대」(제324호, '20.9.15. 지정)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팔미도 28(무의동)
- (3) 세부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안



구 분	허 용 기 준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청내용은 사적 「인천 팔미도 등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안으로, 동 내용은 문화재 주변 여건 및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이 반영되어 작성된 것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제한 등이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안에 대한 자문의견 (중구청 실시)
 - 문화재위원 ○○○('21.3.30.)
 - 사적으로 승급되기 전에 마련된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40호 현상변경기준 내용인
 - 기존 건축물의 범위내에서 개축을 허용하고
 -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한편, 팔미도 등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는 미 조사되어 사적에 등재되지 못한 유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보존지역 내에는 6.25전쟁 당시의 시설이 남아있어, 팔미도 내 전역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지표조사의 결과가 허용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위원 ○○○('21.3.22.)

- 사적 승격 이전 시도문화재 당시의 허용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문화재청훈령 제551호, '20.12.20.)을 적용하여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 팔미도등대는 한국전쟁 관련 유적으로 한국전쟁 당시의 유적이 매장문화재로 출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허용기준의 공통사항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평지붕과 경사지붕이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허용기준 표의 구분에서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과 공통사항에서 경사지붕 관련 내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결과 : 의견 제출 없음

○ '21.4.8.~4.29.(21일간)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누락된 필지 확인, 보완할 것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0명, 제척 1명

2. 사적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주변 건축물 증축 및 태양광 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사적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주변에 건축물 증축 및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주변에 건축물 증축 및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이 문화재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방시설본부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제324호, '88.2.27.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현저동, 101)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산5-63외 9필지
 - ※ 허용기준 : 1구역(개별심의구역)
 - ※ 이격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62m이격
 - 신청내용 : 건축물 증축(기존 건축물 철거 후) 및 태양광시설 설치
 - 건축물 증축
 - 건축물용도 :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 건축면적 / 연면적 : 445.5㎡ / 1,458.38㎡
 - 건축물 층수 / 최고높이 : 지상 4층 / 14.95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거 건축물 현황>
√ 건축면적 / 연면적 : 272.16㎡ / 616.29㎡
√ 건축물 층수 최고높이 : 지상 2층 / 9.10m

- 태양광시설 설치

- 설치용량 : 89.44kW
- 설치면적 : 547.485㎡
- 설치규격 : 33.9m×16.15m×5.23m(높이)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청내용은 사적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주변(허용기준 1구역)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4층 규모의 건축물 증축 및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지형적 여건 및 기존 건축물 등으로 인해 신청 건축물 및 태양광 시설 등이 차폐되어 문화재에서 시각적으로 거의 노출되지 않아 동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됨

마.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1.5.14.) : 문화재위원 ○○○·○○○

- 현상변경 신청 대상지는 서대문형무소 대지보다 15m 높은 지형에 위치하고 있으나, 서대문형무소측에서는 경사지의 울창한 수목에 의해 시설 대부분이 차폐되고 전면 4층 건물의 4층 일부와 지붕 일부만 시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태임
- 신축 4층 건물은 기존 4층 건물과 같은 높이로 후면에 위치하고 태양광 설비는 신축 4층 건물 후면에 낮게 설치되므로, 서대문형무소측에서는 경사지의 수목과 기존 전면 4층 건물에 의해 모두 차폐되어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됨
- 신축 건물과 태양광 설비는 서대문형무소로부터 조망되지 않아 기존 경관의 변화가 없고 또한 지하층 없이 건축되어 기존 지형의 변화도 없으므로, 문화재의 안전, 경관 등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3. 사적 「서울 한국은행 본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서울 한국은행 본관」 정초석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국은행 본관」 정초석 관리방안에 대해 한국은행이 보완·제출한 안내판 문안 및 설치 위치가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21년 제1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1.1.26.) : **보류**
 - 에폭시로 추정되는 물질에 대한 재료분석 및 그 재료가 채워지게 된 배경조사
 - 정초 글씨 외 '융희 3년 7월 11일' 글씨에 대한 조사 확인
- '21년 제3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21.4.27.) : **보류**
 - 안내판 문안 및 설치 위치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한국은행총재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서울 한국은행 본관」 (제280호, '81.9.25.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3가)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3가)
 - ※ 당해문화재
 - 신청내용 : 정초석에 대한 관리방안(안내판 설치)
 - 안내판 크기 : 가로(300mm), 세로(365mm), 높이(700mm)
 - 설치위치 : 정초석 주변 화단
 - 문안

이 정초석은 1909년 7월 11일 열렸던 이 건물의 정초석 행사 때 놓인 머릿돌이다. 여기에 새겨진 '정초(定礎)' 글씨는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1906년 설치한 통감부의 초대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가 쓴 것이다. 다만 '융희' 3년 7월 11일(隆熙三年七月十一日)은 광복 이후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며, 글씨를 쓴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제 치하의 흔적이지만,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되새기고자 이 정초석을 보존하고 있다. * 1907년부터 사용된 대한제국의 마지막 연호

※ 최초 신청 당시 정초석에 대한 관리방안(3가지 방안)

연번	관리방안
1	○ 안내판 설치 ※ 정초석 하단부에 간단한 설명의 안내판 부착, 정초석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박물관 안내자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개
2	○ 정초석 복개 ※ 정초석 글씨 부분을 석재로 덧씌움, 자세한 설명은 박물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개
3	○ 정초석 철거 후 이전 ※ 글씨가 새겨진 정초석 전면부 절단 및 독립기념관으로 이전, 절단면 석재로 덧씌움, 자세한 설명은 박물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사적 「서울 한국은행 본관」 정초석의 관리방안에 대해 안내판 설치에 따른 문안 및 설치 방식을 마련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위원회 검토가 필요함

마.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21.4.13.)
 - 정초석 외곽의 이물질 흔적은 채취 결과 납 성분으로 분석, 확인되었으나, 보다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 추가 조사는 최소 4개소의 납을 제거하고 납 구멍의 규모, 방향, 내부 잔존 물질 등을 조사하며, 조사현장에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자문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정초석의 서체는 3D 스캔 분석 결과, 이승만 전 대통령 서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의 추가 확인 및 자문이 필요함
- 문화재위원 ○○○·○○○('21.1.19.)
 - 현장에서 확인된 예폭시에 대한 재료분석과 예폭시 접착제가 사용된 시기와 목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한국은행이 제안한 3가지 안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물리적 보존 측면에서만 검토되었는데, 본 이슈가 제기된 배경을 감안할 때 3가지 안의 장단점을 원형보존 여부와 문화재의 가치와 교환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제시하기 바람
 - 한국은행 원도면의 확인을 통해 정초석의 시공방법 확인을 할 것

바. 참고사항

- 여론조사 결과 : 흔적 지움(47.3%) / 안내판 설치(52.7%) ⇒ 차이 : 5.4%
 -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 3.1±%p

- (성 별)

구 분	남 성	여 성
흔적 지움	50.5%	49.5%
안내판 설치	44.1%	55.9%

- (연령별) 최고[흔적 지움(40대 52.6%), 안내판 설치(60대 60.2%)]

구 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흔적 지움	42.4%	44.4%	48.0%	52.6%	51.8%	39.8%	45.2%
안내판 설치	57.6%	55.6%	52.0%	47.4%	48.2%	60.2%	54.8%

- (지역별) 최고[흔적 지움(광주·전라 55.6%), 안내판 설치(제주 66.7%)]

구 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강원	제주
흔적 지움	49.7%	48.2%	44.9%	45.9%	43.2%	55.6%	36.3%	33.3%
안내판 설치	50.3%	51.8%	55.1%	54.1%	56.8%	44.4%	63.7%	66.7%

사. 의결사항

- 보류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함
 - 소위원회 위원 : ○○○, ○○○, ○○○, ○○○, ○○○(전문위원)
- 출석 11명 / 보류 10명, 제척 1명

4. 사적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망루 보수공사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망루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보수 범위 및 방식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9~2021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망루 보수공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보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하여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사업연도 / 사업비
 - 2019년 / 100,000천원(국비 70,000, 지방비 30,000)
 - 2020년 / 134,000천원(국비 93,800, 지방비 40,200)
 - 2021년 / 510,000천원(국비 357,000, 지방비 153,000)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사적 제253호, '77.11.22.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8-18 (정동)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8-18 (정동)
 - 세부내용
 - 망루(탑) 3층 이상 전체해체보수
 - 창호 해체보수 및 재설치
 - 기존 내부 목조계단 해체 후 흔적 확인 등 고증을 거쳐 신규 설치
 - 망루(탑) 구조보강재 설치
 - 망루(탑) 2층부 내·외부 미장면 제거 후 벽돌 현황조사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사적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망루의 3층부 이상의 미장면의 박리 및 탈락이 심각하여 미장면 제거 후 안전진단 결과 벽돌의 내구성이 약해져 있는 상태로 해체보수가 필요하고 구조보강을 통해 내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2층부까지 미장면 제거 등 보수범위 확대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 (1) 중구청에서 실시한 망루 보수 자문회의 자문의견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21.3.12.)
 - 현재 건물외벽의 균열 및 박리 탈락이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다. 이는 옥상층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벽체로 우수가 지속적으로 스며든 후 건물 내부의 환기불량으로 벽돌이 지속적으로 습기에 노출된 것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장을 제거한 벽돌 상태로 보아 2층 이상의 벽체는 지난 수리 과정에서 새로운 고벽돌로 교체되었는데, 교체된 고벽돌의 물성이 지속적인 습기에 매우 취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3층 바닥 이상 벽체는 구조안전성 검토 후 전면적인 수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붕층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수 및 배수 설계가 필요하며, 환기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 구조안전 점검을 통해 옥상부와 3층의 벽돌 내구성이 매우 불량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2층 하부의 벽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내외부 미장을 제거한 후 벽돌의 현황조사를 한 후 보수범위·방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확인된 옥상층과 3층은 벽돌내구성이 매우 불량하고, 원형이 아니므로 전면 수리를 통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내부 미장면 제거함에 따라 기존 목조계단 해체하고 나무 벽돌 등 원형의 위치를 확인한 후 목조 계단을 설치한다.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20.10.19.)
 - 기존 구조체에 대한 정밀분석이 필요하므로 콘크리트슬래브 타설 기록 및 단면 상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콘크리트 및 철근 탐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도록 정밀진단을 하도록 함.
 - 훼손된 벽돌부위에 대해 벽돌 강도, 함수율 등 재료에 대한 분석을 해주기 바람.
 - 훼손정도(깊이)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함.
 - 문화재위원 ○○○('20.10.16.)
 - 3층 외벽과 파라펫 외벽의 몰탈 제거 후 벽돌 벽체의 상황을 통해 하자의 구체적인 유형과 물리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으며, 일부 이형 벽돌이 확인된 부분은 지난 보수공사에서 원형과 다르게 보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음. 따라서 실측과정에서 현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하자 유형에 따라 빗물 침투에 따른 하자부분과 몰탈의 접착강도의 문제로 발생한 하자를 구분하여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부 모서리 조적기둥에서 균열이 확인, 벽돌 교체가 필요한 정도인지 구조쪽 판단이 필요함.

- 옥상부 하자를 막기 위해 옥상에 측구등의 방법을 도입할 때, 적절한 위치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20.9.18.)

- 도면검토 완료

- 들뜸부분 해체 후 현장 자문회의 필요함.

- 가설공사시 구조보강을 통해 구조체의 안정성 확보에 유의바람.

○ 문화재위원 ○○○('20.8.31.)

- A1-005 전개도의 경우 전개도의 시작점과 끝점을 도면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전개도 도면 표기법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층의 내부 전개도도 필요.

- A1-006~9 치수선을 표기해 주시고 실측 내용중 물리적 상황에 대한 특기사항을 주기에 표기해주면 좋겠음.

- A2-001~4 박공부분의 치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음. 부분 상세 A는 단면 상세가 아니라 입면 상세인 듯 한데, 같은 크기로 그려진 현재의 내용은 부분 상세로 보기 어려움. 하단부 곡면처리된 부분은 곡면이 맞다면 곡률을 표시해주어야 함. 부분 단면 상세 B는 파라펫의 두께 등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음. 전반적으로 상세의 내용이 상세한 치수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박공면 중앙에 동그란 패턴에 대한 실측 내용이 빠져 있음. 가장 중요한 박락된 부분과 균열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음.

- A2-005~8 3층 입면상세도 : 치수가 누락된 부분이 많고, 상세한 부분에 대한 실측 내용이 빠져 있음. 가장 중요한 박락된 부분과 균열에 대한 정보가 없음.

- 창호 상세가 그려지지 않음.

- 본 실측조사는 반복되는 러시아공사관 탑의 하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작업이므로 현재의 균열과 박락 상태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 내용이 도면화되어야, 균열과 박락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수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20.6.23.)

- 반복되는 러시아공사관의 하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의 하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하자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가 필요함.

- 조사범위는 일차로 현재의 물리적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균열, 박락상태 등) 2차로 들떠있는 미장면을 제거한 후 균열 상태와 벽면 상태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함. 또한 이전 수리이력과 수리방법 및 재료에 대한 조사도 필요.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20.5.14.)

- 현재 러시아공사관 탑 현황에서는 이전 수리에서 교체된 벽돌과 재사용된 벽돌 그리고 원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임. 현재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미장면과 함께 부착되었던 외부 벽돌 일부가 함께 탈락되어 있고, 미장이 들떠 있는 부분도 박락이 예상되므로 미장면 박락이 예상되는 부분도 해체한 후 벽돌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현황상태를 기록한 후 박리 박락된 미장면을 제거하고 벽돌이 노출된 후 자문회의를 통해 향후 보수방안을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금회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이전에 수리보고서를 참조하여 시공의 방향을 설정하기 바람

- 기록화 작업을 위해 현황 및 진행 과정을 면밀히 기록하고 수리보고서는 전문업체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의뢰하여야 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전반적인 보수에 대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진행

-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한 보강방안 마련 추진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5.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소장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1.3.23.)를 거쳐 등록 예고한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1건 3점	255×19cm 등	1950 ~60년대	국립 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82

(2)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0.3~9월) : '근현대문화유산 장애인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용역' 실시
- ('21.2.16.)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1.3.23.)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조건부가결'

* 4·6 사건 관련 유물과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에 대하여 문화재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별 번호 및 명칭 부여

(4) 등록예고 : '21.4.5. ~ 5.4.(30일간) *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는 자유와 인권을 외친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의 목소리를 보여준 4·6사건과 직접 관련된 유물로,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과 자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 중요한 가치가 있으므로, 예고 내용대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1.2.16.)

- '고흥 소록도 4·6사건 관련 진정서 및 성명서'는 진정서·물품통계표·성명서로 구성되며, 1950년대 초 소록도에서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록도 갱생원의 부정과 인권 유린에 항거하여 한센인들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낸 소록도의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유물임. 해당 유물은 자유와 인권을 외친 한센병 환자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유물로서, 의료사회학에서뿐 아니라 인권이라는 면에서도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등록가치가 있음.

○ ○○○○○ ○○○ ○○○('21.2.16.)

-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는 김상태 원장 해임운동과 관련된 유물로서 김상태 원장의 비위 사실과 관련된 진정서와 그에 따른 별첨한 물품목록, 성명서임. 해당 유물들은 환자들의 당시 시대상황 인식, 소록도의 운영 상황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들을 전달하고 있어 가치가 상당함.

○ ○○○○○ ○○ ○○○('21.2.16.)

-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는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로서, 1953년 김상태 원장 해임운동과 1954년 발생한 4·6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물임. 해당 유물들은 생존과 자존을 위한 사회적 소수자의 집합행동 사례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소록도갱생원의 부정부패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임. 진정서와 진정서에 별첨되어 있는 물품통계표는 1950년대 소수자들의 집합행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성이 풍부한 사료이며, 성명서 역시 원생들의 주장이 담긴 중요한 역사 사료로서 가치가 있음.

○ ○○○○○ ○○ ○○○('21.2.16.)

-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는 김상태 원장 해임운동과 관련된 유물로서 김상태 원장의 비위 사실을 폭로한 진정서와 그에 따른 별첨한 물품목록, 그리고 진정서 및 신문의 공개장이 별다른 반응이 없자 발표된 성명서임. 해당 유물들은 환자 인권과 자치의 관점에서 역사적 사건인 4·6사건의 실재를 보여주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크다고 보임.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2.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82

3. 소유자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4. 조사자 의견('21.2.16.)

<문화재위원 ○○○>

1) 개요

- <고흥 소록도 한센인 유물>은 크게 소록도 4·6 사건과 관련된 유물과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로 나눌 수 있음. 현재 국립 소록도 병원 한센병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진정서, 물품목록, 성명서)'는 1950년대 초 전쟁 직후 소록도에서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록도 갱생원의 부정과 인권 유린에 항거한 4·6 사건과 관련하여 한센인들이 주체적인 목소리를 낸 소록도의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유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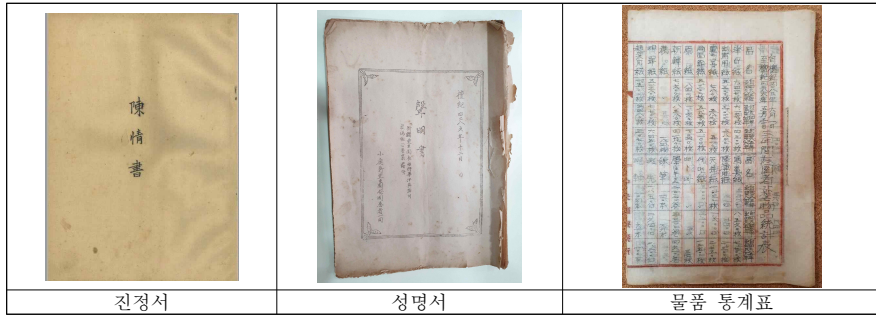
	명칭	재질	가로 세로(cm)
1	진정서	종이	19*25.5
2	물품통계표	종이	18*25.5
3	성명서	종이	20*28

2) 주요 내용 및 특징

- '고흥 소록도 4·6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는 소록도에서 1952년부터 1954년까지 진행되었던 원장 김상태의 부정을 폭로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소록도 한센인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통칭 4·6 사건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록물임.
- 1916년에 개원한 소록도는 1945년 8.15까지 일제의 절대적인 격리정책 하에 있었으나 해방 이후 자치체가 허용되어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의사 밑에서 일했던 김상태가 제8대 원장으로 부임한 뒤 제도가 다시 강압적으로 바뀌었으며, 1951년 이후 수용자의 대폭 증가 및 전쟁으로 인해 구호 물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원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어져 1954년 4월 6일 구속자 석방, 원장 불신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쫓겨 대회를 일으킨 것을 4·6 사건으로 부름.
- 이 사건은 당시 '나환자의 호소'(동아일보 1953년 6월 5일자)에 작은 기사로 실리기 시작하여 '소록도 갱생원장(김상태)의 비행'을 만천하에 공포함'이라는 제목으로 전남 소록도 갱생원 재원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광고 난에 게재(동아일보 1953년 10월 23일자)하여 사회적으로 알려짐.

- 이후 보건부에서 조사단이 파견되었으나 사실무근으로 판명하는 바람에 '횡령은 사실 무근'(동아일보 1953년 11월 19일자)이라는 기사가 나기도 했고, 이를 종교 분쟁으로 몰고 가면서 '소록도 종파 분쟁'(조선일보 1953년 12월 7일자)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며 경향신문에서는 1954년 1월 28일부터 3회에 걸쳐 '소록도 분규'를 자세히 조사하여 기사화하기도 함. 그러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1954년 4월 6일 소록도 주민들이 시위를 벌인 4·6 사건이 벌어졌으며 이를 주도한 혐의로 자치위원장 김민옥이 구속되기도 함. 결국 원장 김상태를 비롯하여 총무과장과 경리계장을 파면하는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됨.
- 주민자치회는 1950년대 당시 6,000여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생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만든 민주적인 조직으로, 자치회 총회를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이 책임을 맡고 산하에 식량부, 의료부, 문교부, 공안부, 후생부, 총무부로 분담하여 장안리, 남생리, 중앙리, 동생리, 서생리, 신생리, 북성리로 나뉘는 7개 부락의 운영을 지원한 기관임. 진정서와 성명서, 물품통계표는 남성교회의 창고 캐비닛 위에서 2015년에 박물관 설립 차 옛 물건 및 문건을 조사하던 준비팀에 의해 발견되었음. 남성교회는 북성교회에 이어 소록도에서 두 번째로 1928년에 세워진 교회로 소록도 주민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으며 자치위원회가 주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으므로 당시에 만들었던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진정서는 소록도의 비인권적인 현황을 정부 및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소록도 갱생원 자치회원 일동 명의로 1953년 9월 작성한 문건으로 등사본 10쪽 분량임. 내용은 "지난 해 10월 『기독교보』 10월호에 소록도 갱생원장에 대한 종교 탄압 사실 및 경비 부정 착복 등 기사가 실렸으나, 이 본질이 종교탄압이 아니라 원장의 경비 부정 및 인권탄압임을 알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1. 천여 명 유령인구 경비 부정 처분 건, 2. 장태(醬太) 교환 조건으로 백미 반출시 백미반출과 대두입하의 차이량 부정처분건, 3. 광목 부정 착복 건, 4. 연료용 할목(割木) 불법유용건, 5. 선박대출비 부정처분건, 6. 구호물자 부정처분건, 7. 백미 부정처분건, 8. 별채작업 임금중 부정사실건, 9. 4284년도 연보내의 부정사실건, 10. 종교탄압에 관한 건 등 10개 항목에 걸쳐 조목조목 내용을 밝히고 이를 바로잡고자 1. 천여명의 유령인구부의 경비 사용처에 대한 사실조사, 2. 전술한 참고재료(10개 항목의 부정사실건)에 대한 국고예산지출결의서와의 문서대조, 3. 별지첨부한 과거 3년간의 자치회 전물품 수령 통계표에 대한 자치회 문서와 직원들의 문서와의 대조, 4. 언론자유 및 신앙자유 확보 등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 내용에 따르면 물품통계표가 첨부문서로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성명서는 1953년 12월에 작성한 문건으로 역시 "소록도 갱생원 재원환자 일동" 명의로 등사본 13쪽에 걸쳐 작성한 것임. "갱생원장 비행사건 속보 및 소위 갱생원장 비행사건 진상의 허위보고를 폭로함"이라는 부제로 소록도 갱생원 사건을 조사하러온 감찰요원들의 감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이후 원장 및 교도과장이 상경하여 허위 보고를 보건부에 제출했으므로, 원장 김상태의 개인 비리 및 세간에 알려진 내용에 대한 허위 사실을 나환자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 식량 부족, 강제수용, 직원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遠因)과 경리권 문제, 외부 환자들의 선동, 교도사 문제, 지익풍 목사의 비행, 기독교부 편집책임자의 편법적 행동 등 발단이 된 근인(近因)으로 나누어 밝히고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임.
- 물품통계표는 문서 용지에 필사로 기록되어 있으며, 한자로 '中央癩療養所'가 인쇄된 전용 용지임. 제목으로 "自檀紀四二八三年六月一日 至檀紀四二八六年五月三一日 三年間 在園者가 받은 物品統計表"라고 쓰여 있어 1950년 6월 1일~1953년 5월 31일까지의 3년 동안의 기록을 정리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총 10쪽으로 1~6쪽에는 종이, 노트, 먹과 잉크 등 문방구류, 세면기, 국자, 실, 옷, 신발 등 생활용품, 소금, 밀치, 과자 등 식료품, 툴, 지게 등 도구류 등으로 총 123종의 물품이 정리되어 있음. 7쪽과 8쪽에는 3년간의 식량 수입(受入) 내역이 따로 정리되었는데, 쌀, 보리, 밀, 밀가루 등 11종의 물품이 기록되어 있음. 9쪽과 10쪽에는 중요 약품으로, 아스피린, 페니시링, 키니네, 물핀, 소화제, 한센병 치료제로 쓰인 대풍자유(大風子油), 주사기, 반창고 등 22종의 약품과 기구가 정리되어 있음. 위의 진정서 내용에 첨부되었다고 한 물품통계표의 필사본 원본인 것으로 보임. 자치회는 이처럼 갱생원 재원자들이 실제로 받은 물품에 대한 기록과, 요양소 측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물품 기록을 대조하여 이를 근거로 요양소의 비리 사실을 고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번에 조사한 소록도 4 6 사건 관련 유물인 진정서, 성명서, 물품통계표는 생활 유물이 아닌, 소록도의 자치와 인권에 관한 유물임. 진정서와 성명서는 등사본이나 다른 기관 등에는 소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유일본으로 판단됨. 물품통계표는 필사본으로 역시 복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7) 등록가치의견

- 고흥 소록도 한센인 유물인 진정서, 성명서, 물품통계표는 소록도 4 6 사건의 경과와 내역을 알려주며, 소록도가 해방 뒤 자치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일제가 만든 비인도적인 절대적인 격리정책으로 회귀되는 것에 맞서 자유와 인권을 외친 한센병 환자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유물로서, 의료사회학에서뿐 아니라 인권이라는 면에서도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등록가치가 있음.

8)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진정서 및 성명서, 물품통계표는 4 6 사건과 관련된 유물로서 하나의 범주로 파악하여 등록시 명칭은 '고흥 소록도 4 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 ○○○>

1) 개요

- 소록도는 식민지기 시작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격리의 섬이었음. 해방이후 1962년 법적인 격리체계가 해제되었지만, 실질적 격리는 유지가 되어,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격리의 섬임. 환자들은 소록도 격리의 섬에서 단종 수술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했음.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을 하기도 했음. 또한 의료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단기교육을 받고 의료보조인 역할을 하기도 했음. 그래서 소록도에는 격리, 폭력, 의료의 역사 뿐 아니라, 환자공동체가 자신들의 존엄성을 지키며 투쟁해온 역사, 인간의 삶을 유지해온 역사가 중첩되어 있음.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심사대상이 되는 유물들은 환자중심의 소록도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이 유물들은 소록도 유물이 문화재로 등록된 시기에는 발굴되지 않았던 유물임. 소록도에 한센병박물관이 만들어진 이후, 학예사들의 체계적인 노력으로 인해 이전에 방치되었던 유물들이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음. 이번에 문화재 심사의 대상이 되는 유물들은 다음과 같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진정서	19*25.5	인쇄
	물품통계표	18*25.5	필사
	성명서	20*28	철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성명서와 진정서는 등사용지에 인쇄된 것으로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뒷표지에 일부 손상이 있어 추후 보존을 위한 처리가 요청됨.
- 물품통계표는 사무용지 5장을 접어 끈으로 묶어 선장되어 있으며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고흥 소록도 한센인 유물은 한센병 박물관에서 수집 보존하고 있어 보존 환경은 매우 양호한 편임.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특히 지류의 경우 전시실에서 오래 노출 전시한다면 손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고흥 소록도 한센인 유물은 소록도라는 특정 지역에서 통제되어 살아온 한센인들의 역사 가운데, 4 6 사건으로 통칭되는 자치회의 활동을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장애와 배제의 역사를 당사자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민주적인 힘을 기르고자 했는가를 알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고흥 소록도의 한센인 관련 유물은 2016년 문화재 조사에 의해 '고흥 소록도 한센인 생활 유품' 14점(개인 치료용 갈, 단추 끼우개, 국자, 냄비, 숟갈, 시멘트 블록형틀, 기와틀, 연탄형틀)이 한센인들의 특성을 드러내는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로서 등록문화재 제66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록도 내 병원 등 건축물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 1953년 발생한 46사건은 해방 후 한센병 환자들의 소록도 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병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저항한 사건임. 해방이후 잠시간의 민주적 소록도 운영을 통해 1947년 도입된 환자 자체단체가 구성됨. 하지만 1947년 김형태 원장에서 김상태 원장으로 원장이 바뀌며, 일제 강점기의 제도와 관행들이 소록도에서 다시 회복되었음. 절대거리의 상정인 무독지대, 유독지대의 구분을 다시 부활하고 엄격한 경계선을 통해 환자에 대한 차별을 통제를 강화했음.

표 3-1 연도별 수용환자 수(1945~1960년)²⁵⁷

연도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환자수	4,416	5,748	6,254	5,555	5,299	5,400	6,130	5,729
연도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환자수	5,413	5,470	5,587	5,863	5,882	5,856	5,250	5,184

* 출처: 소록도갱생원(1966), 『연보』, 66쪽.

- 위의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방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재원 환자수가 증가했던 상황임. 전쟁과 환자수의 증가로 인해 물자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내부의 운영 조차 일제 강점기의 방식으로 회귀한 상황에서 자치회는 김상태 원장에 대한 저항을 시작. 그러나 원장해임운동은 실패하였고 1953년 자치회 내부 갈등과 4.6 데모로 이어져 이후 자치회가 해산되었음.
- 당시 이런 상황은 신문, 기독교신문 등에 소개되어 있음. 기독교신문에서는 “ 園長 金尙태氏가 總務課長 敎導課長과 合作하여 敎會彈壓의 野蠻的이고도 惡質的인 行動을 敢行하여 敎會를 괴롭히고 있는데 特殊地帶인 小鹿島의 王座를 占하고 있는 園長의 所行이니만치 그 影響은 甚히 커서 敎會는 萎縮一路에 處하였다 한다.”(기독교신문, 1952/10/13)
- 46사건과 관련한 중 유물은 김상태 원장 해임운동과 관련된 유물로서 김상태 원장의 비위 사실을 폭로한 진정서와 그에 따른 별첨한 물품목록, 그리고 진정서 및 신문의 공개장이 별다른 반향이 없자 발표된 성명서임.
- 당시 진정서와 성명서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천여명에 해당하는 유명인구 경비 불처분, 백부정처분, 연료 비용 불법유통, 광목 부정착복, 선박대출대 부정착복, 구호물자 부정처분 등 내부의 물자와 관련된 부정착복, 부정부패가 문제가 되었음.
- **진정서(단기 4286년 9월)**
 - 김상태 원장 해임을 위해 진정서에 문제점과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해임 청원운동을 펼쳤음. “과거 6·25동란이후 현금(現今)까지의 갱생원 재원자들은 민주시대에 살면서 민주혜택을 입지 못한 한 가련한 나환자이였습니다. 나병이란 선언을 받고 갱생원을 찾아온 저지들은 치료와 수양을 위주한 격리생활로서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애국애족자가 되려는 일념밑에 소록도를 제이의 고향과 다름없는 유일의 안주지(安住地)를 삼고 희생적인 정신과 각오로서 민족혈통정화만이 못도(모토)로 하여 묵묵히 로양을 하고 있는 5천에 가까운 료양자이였습니다.”라고 밝히며 김상태 원장을 해임하는 것이 민주적 가치실현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소록도갱생원 자치회의 이름으로 요구했음.

- ① 천여명 유명인구분의 경비 사용처에 대한 사실조사
- ② 전술한 참고자료(10개항목)의 부정사실건에 대한 국고예산지출결의서와의 문서대조
- ③ 별지첨부한 과거3년간의 자치회 전물품 수령 통계표에 대한 자치회문서와 직원들의 문서와의 대조
- ④ 언론자유 및 신앙자유확보 등등

○ 물품 통계표

- 물품표는 당시 원내 물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부정착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필사로 적어둔 것임. 진정서와 성명서의 주요 내용이 물품 착복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물품의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음.

○ 성명서 (단기 4286년 12월)

- 위의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성명서를 통해 비위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함. 소위 갱생원장 비행사건 진상에 보고된 내용에 중 허위사실로 식량부족, 직원부족, 격리수용 등 소록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지적함. 이는 소록도 갱생원 재원환자 일동의 명의로 정리됨.
- 위의 문건들은 모두 소록도 교회에서 2020년 말에 발견된 것으로, 첩필본의 경우에도 동일 문서가 다른 한센인 유관시설에는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문서의 경우에는 보존처리가 필요함. 그래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록도의 경우 박물관에서 유물 관리를 잘 하고 있음. 단지 소록도 병원의 특성상 연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물의 성격과 의미를 밝히는 연구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소록도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곳으로 한센역사, 의료사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 곳으로, 이곳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있음.
- 한센병 박물관이 설립된이후 학예사들이 상주하면서 실내에 산재해 있는 유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음. 학예사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박물관이 연구, 보전, 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소록도는 한센인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자, 근대 의학사, 사회사, 인권사의 중요한 현장임. 이곳에서 환자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문화재로 등록이 된다면, 향후 소록도의 역사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환자 인권운동사에 대한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가능함.
- 소록도와 관련된 유물은 지속적으로 발견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박물관에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문화재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에 이 유물이 지정이 된다면 이런 활동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기존에 소록도 유물은 일상생활사적인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환자의 인권 관련 활동, 의료활동 참여 등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 볼 수 있음. 그래서 이 유물들의 지정을 통해 소록도의 환자 인권사의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소록도 환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는 환자 인권사, 의료사, 생활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모두 가치가 있는 귀중한 유물임. 소록도 100여년의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진정서/성명서 계열의 경우, 환자들의 당시시대상황 인식, 소록도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들을 전달하고 있어서,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도 상당함. 문화재 등록이 된 이후, 그동안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던 46사건과 환자들의 운동이 연구가 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배제와 격리의 역사 뿐 아니라 환자들의 인권 운동의 양상이 밝혀질 것임.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고흥 소록도 4 6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 ○○ ○○○>

1) 개요



진정서 표지 진정서 마지막 쪽 물품통계표 첫번째 쪽 물품통계표 마지막 쪽 성명서 표지 성명서 마지막 쪽

- 상기 물품들은 현재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로서, 아래에 설명할 1953년 김상태 원장 해임운동과 1954년 발생한 4.6 사건과 직접 관련있는 것들임. 소록도박물관 개관 이전인 2015년 유물 수집차 소록도내 남성교회(1927년 창립)를 방문하여 유물수집 중 강단 옆 방송실 캐비닛 위에서 발견. 타기관 소장은 확인불가.

2) 주요 내용 및 특징

- 한국에서 나병에 관한 기록은 세종실록에 나질(癩疾)이라는 병명으로 처음 출현함. 1445년에 제주에 구질막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나오며, 1612년 사간원에서 경상, 강원, 충청도의 대풍창 치료와 방제를 청했다는 기록이 있음.
- 1876년 개항 이후, 서구 선교사들에 의한 나병원이 부산(1908, 호주장로회), 광주(1911, 미국남장로회), 대구(1913, 미국 북장로회)에 세워졌음. 조선을 병탄한 일본은 이들 서양 선교병원 설립에 자극받아, 1915년 나환자 격리 수용소로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소록도를 선정하고, 1916년 소록도에 자혜의원을 설립하여, 1945년 제2차세계대전 패전 이후 철수할 때까지 5명의 일본인 원장 시대를 거치게 됨.
- 1933년 부임한 제3대 원장 스오 마사스에는 소록도 자혜의원 제1차 확장공사를 시작하고, 벽돌공장을 준공하였으며, 시설 명칭을 1934년 10월 소록도갱생원으로 개명함.

- 1935년에는 소록도 신사를 준공하고, 원장의 권한으로 환자를 감금할 수 있는 감금실을 설치하였으며, 1936년에는 정관절제수술을 전제로 부부동거를 허용하기도 함. 1937년에 간호부양성소를 개설하였으며, 총 3차에 걸친 소록도 확장공사 결과 1939년에는 6,020명의 환자를 수용함. 1942년 6월 20일 스오 원장의 압제에 반발한 이춘상이 스오 원장을 척살함. 2021년 현재 이춘상 기념사업회가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 1945년 광복 이후 공권력의 공백기에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속에서 84명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함. 1945년 김형태 원장 취임 후 녹산중학교 개설(1946), 환자 자체제 허용(1947) 등 환자들의 교육과 자치에서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음.
- 1948년 4월 15일부터 1954년 10월 2일까지 재임한 제8대 김상태 원장 시기에 소록도갱생원은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운영체제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음. 김상태 원장은 일제강점기 스오 원장 시절 의관(6등 8급 正7)으로 근무하였으며, 경성의학전문학교 출신의 나병학자였음. 그는 질서회복이라는 명분하에 그간 이루어진 여러 발전을 되돌리는 일을 함. 자신이 일제하 소록도갱생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으므로 자신에게 익숙한 관리통제방식을 재생시킨 것임(『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역사편』, 2017, 156).
- 김상태 원장이 주도한 변화는 환자들에게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들이었음. 그 중 몇 가지를 들면:
 - 직원지대와 병사지대를 무독지대(無毒地帶), 유독지대(有毒地帶)로 구분하는 절대 격리를 부활. 병사지대로 통하는 도로입구에 감시소와 면회실 설치. 자녀들까지도 월 1회 도로 경계선 양쪽 끝에 일렬로 서서, 자녀는 바람을 등지고, 부모는 바람을 맞는 위치에서 면회기회를 가짐. 이를 ‘수탄장(愁嘆場)’이라 부름.
 - 1949년 5월 6일 대통령령 90호로 소록도갱생원이 중앙나요양소로 명칭이 바뀌고, 육지에 있는 도립 요양소 방식으로 요양소의 준수사항과 일과표를 강제. 중앙나요양소 수용환자 준수사항과 일과표 내용은 일제강점기 소록도갱생원의 ‘입원환자심득(入院患者心得)’과 그 내용과 형식이 유사하였음.

수용환자 준수사항

1. 나병은 만성질환으로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환자는 치료는 물론, 위생 기타 일상생활에 있어서 직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
2. 환자는 상호간에 예의를 존중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일가 단란 공존의 미덕을 함양하여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의(情誼)를 다하여야 한다.
3. 환자는 항상 정숙 온화하여야 하며 난폭한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4. 환자는 허가 없이 소정 구역 외에 출입할 수 없다.
5. 항상 화재방지에 주의하며 화기취급을 엄밀히 하여야 한다.
6. 화기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직원에게 급보하는 동시에 환자 소방대는 일치 협력하여 중환자(重患者) 유환자(幼患者)의 구호 및 소화에 지력하여야 한다.
7. 병사 내 또는 기타에 비치된 기물은 항상 취급을 정중히 하여 보존에 주의할 것이며 훼손 시는 소정 수속을 거쳐서 직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8. 약병은 사용한 후 각자(중증 또는 부자유 환자는 그 부침인)가 청세(淸洗)하여 약국에 반환하여야 한다.
9. 소내 물품 또는 생산품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소외 반출을 엄금한다.
10. 병사 내외는 물론 우물, 하수구, 변소, 정원 및 도로 등의 청소에 주의하여야 한다.
11. 전염병을 매개하는 곤충(모기, 파리, 쥐)의 구제 및 발생을 예방하며 변소 출입구 기타의 개방을 금한다.
12. 남 환자로서 여 병사에, 여 환자로서 남 병사에 출입을 요할 때는 사전에 직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공중 집회소, 복도, 도로에서 침을 뱉어서는 아니 된다.
14. 도박 또는 이에 유사한 부정행위는 엄금한다.
15. 자치회 역원은 특히 소행에 조심하여 일반 환자의 모범이 되고 환자간의 분쟁 기타 사건에 있어서 자치적인 입장에서 원만 공정한 해결을 하며 풍기단속 기타에 관한 직원의 명령 전달 및 제반 업무수행에 진력하여야 한다.
16. 자치회의 역원은 조식 점호 시에 각 병사를 순시하며 각 사장(舍長) 회피 하에 인원점호, 병증, 화기, 기타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환자는 자기의 취미에 따라 신앙을 가지며 정신적 위안을 얻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18. 환자는 종파로 당을 만들거나 불온한 사상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19. 경환자는 치료상 유익한 운동 기타의 노작(勞作)에 노력하여야 한다.
20. 부부동거는 정관수술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21. 미감아동(未感兒童)은 절대로 환자와 동거함을 엄금한다.
22.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학술 연구상 필요에 따라 사체를 해부할 수 있다.
23. 중환자 이외의 환자는 하기 일과표에 의하여 규율적 생활을 하여야 한다.
- (24. 위 각항에 위반하는 자는 의법처단한다. (1956 연보 77쪽))

<일 과 표>

일과기간	기상	점호	아침	점심	저녁	점호	소등	취침
3월 1일 ~ 4월 30일	07:00	07:30	08:00	12:00	18:00	21:00	22:00	22:00
5월 1일 ~ 9월 10일	07:00	07:30	08:00	12:00	18:00	22:30	23:00	23:00
9월 11일 ~ 10월 31일	07:00	07:30	08:00	12:00	18:00	21:00	22:00	22:00
11월 1일 ~ 2월 말일	07:00	07:30	08:00	12:00	17:00	20:30	21:00	21:00

자료) 『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역사편』, 2017, 158.
 (1956년도 연보 78쪽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아침 점호는 08:00, 아침 식사는 08:30으로 30분씩 늦춰졌음).

- 한국전쟁의 발발로 1950년 8월 5일부터 9월 29일까지 인민군 치하에 놓여있던 소록도는 10월3일 경찰대에 의해 수복되었음. 인민군치하에서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인민재판이 열렸으나, 당시 희생당한 사람은 없었고, 인민군 퇴각 시 따라갔던 인민위원장 등이 공급령은닉으로 인민군에 의해 학살당하는 등 희생이 있었음. 경미하게 가담한 환자들은 불문에 부쳐졌음.(『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역사편』, 2017, 161-162)
- 김상태 원장은 예산확보를 위해 임시수도인 부산을 오가며 애썼고, 병사 내의 질서회복을 위해 환자자치회를 재구성하게 하였음. 전쟁 이후 열악하고 궁핍한 상황이었지만, 위난을 함께 극복하면서 직원과 환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때보다 신뢰와 일체감이 충만했다고 함.(상동)
- 당시 5,000여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식생활을 해결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황은 열악했고, 생활물자도 순조롭게 배정되지 못했으며, 물가도 급속하게 올라서 수용환자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음. 직원과 의료진의 실정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적은 월급으로는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땅을 일구고 낙엽을 긁어모아 연료로 사용하면서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였음.(상동)
-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사회전반의 걸쳐 모든 물자가 부족하였는데, 소록도 역시 이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더욱 열악한 상황이었음.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이후 ‘국제연합민사원조사령부(United Nation Civil Assistance Command(이하 UNCAC))를 비롯하여 외국인간원조기관들로부터 지원된 구호물자가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음. 그러나 피복, 침구는 물론 기타 우비, 작업복, 고무신 등은 경비의 어려움으로 이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무엇보다 재원 환자들의 피복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였음.
- 주식과 부식의 공급은 현물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질적으로는 중증 및 부자유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어 공동 취사를 하는 중앙리 병사와 가정병사 중심의 중앙리를 제외한 마을과의 차이가 존재하였음. 주식의 경우 해방 이전 1인 1일 5홉 5작씩 배급하여 오던 것이 해방 후 일시적이기는 하나 많은 양이 감소하여 재원환자들은 빈궁함이 극에 달해 초근목피로 생활하다시피 하였음. 갱생원 당국의 노력으로 여러 곳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1951년 말에는 1인 1일 백미 2홉 8작, 잡곡 1홉 2작을 배급할 수 있었으나 1952년에는 사정이 더욱 어려워져 쌀(외국산) 7작, 잡곡 3홉 3작을 배급하였음.
- 양곡은 대개 조곡(나락)으로 들여와 갱생원 내 신생리에 위치한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배급하였으나, 외국 원조물자가 들어오면서 정미와 정맥으로 배급하였음 (『소록도 80년사』, 1996, 126). 간장은 콩과 소금을 배급하여 환자들이 직접 양조하도록 하였고, 육고기와 생선은 예산 형편상 명절과 국경일에만 소량 특별 배급을 하였음.
- 수용환자 1인당 1일 경비통계를 보면 급식비의 경우 전쟁이 치뤄지고 있던 1951년에는 단 2전 50환의 주·부식비를 받았으며 연료 역시 단 30환 뿐이었음. 구호물자들의 투입이 원활화된 1953년부터 점차 나아져 주·부식비의 수준이 26전 이상으로, 일용잡화비도 일부 예산이 책정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음. 1955년에는 직전 해의 3배 가까이 예산증가가 있었으며, 개원 40주년이 되는 1957년에는 1인당 1일 경비로 257전 27환까지 신장되었음(『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역사편』, 2017, 171) .

<표> 1950년대 수용환자 1인당 1일 경비 통계

(단위: 천 원)

년도	급식비		환자비		피복비	환자1인당1일 경비
	주,부식비	연료비(월동연료비)	일용잡화비	의약품비		
1951년	2.50	0.30	.	0.50	0.137	3.437
1952년	9.037	0.80	.	2.00	0.82	12.657
1953년	26.62	2.00	1.37	3.00	3.31	42.36
1954년	29.68	5.30	2.60	10.60	6.15	54.33
1955년	79.50	0.8(1.4)	1.38	35	0.11	136.28
1957년	158.34	10.00(2.9)	2.90	20.00	58.13	252.27
1959년	149.32	10.00(3.52)	3.53	20.20	19.10	205.48

자료) 『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역사편』, 2017, 171.

- 소록도에서의 노동에 대해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3차례에 걸친 확장공사를 비롯하여, 전시노동력 동원 차원에서 벽돌굽기, 가마니짜기 등 설세없는 노동력 동원이 지친 상태였음. 해방 후에도 중증 및 부자유 환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환자는 부침인 노역을 반드시 거쳐야 했음. 부침인은 소록도병원에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한센인들을 간병하는 사람으로 손발을 사용할 수 있는 비교적 경증의 한센병 환자들임. 오늘날로 말하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것임. 부침인들은 질병의 경중에 따라 5~10명의 환자들이 거주하는 남녀독신부에 1~2명씩 들어가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간병을 도맡아하는데, 병간호, 식사준비 및 보조, 빨래, 청소 등 질병 간호에서부터 일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생활을 수발하는 것임(『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역사편』, 2017, 266-267).
- 부침인들은 단순히 부침인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작업을 병행해야 했음. 작업의 종류는 소록도 섬 전반에 걸친 대부분의 토목공사는 물론이고 각종 제제소, 철공소, 목공소의 각종 도구 생산에까지 두루 포함되었음. 또한 주급을 위한 공급된 벼(나락)의 도정 뿐 아니라 각종 야채 재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자급자족토록 하였음. 한국전쟁 중 일부 시설손실에 의해 중단되었던 벽돌공장도 복구 운영하여 병원의 건축자재로 충당하였음. 1954년 7월 19일 자치회 내에 건설대를 창립하고 각 책임부서를 분담하여 본대와 지대로 구분하여 조직함.
- 이들 건설대는 갯생원 내의 건설 및 수리, 가공, 공사는 물론 15개소의 공장의 합리적 운영과 도내 해안도로 석축공사와 기타 토목공사, 도로공사 등 나아가서는 산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치산(治山), 수로를 관리하는 치수(治水)작업 등을 도맡아 하였으며 심지어는 미화작업을 하기 위해 소록도를 넘어서까지 인근 고흥지역의 작업을 전담하기도 하였음(『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역사편』, 2017, 266-267).
- 김상태 원장 퇴진운동의 시작은 1952년 10월 기독교보 10월호에 소록도갯생원장에 의 종교탄압사실 및 경비 부정착복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면서 시작되었음. 이 기사에서 김상태원장이 기독교인을 탄압한 것은 천여명에 달하는 유명환자분의 경비착복을 은폐하기 위한 것라는 점이 진정서가 제기한 문제의 요점이었음. 그러나 김상태원장은 강경하게 대처함.

일반사회에 여론화된 이 불미한 기사에 대해서 오해를 일소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가초비상시에 예산편성이라 넉넉지 않는 예산으로서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생활필수품 기타 물건을 구입할 때는 자치회와 상의해달라는 간구를 하였더니 원장은 가진 기만적 수단으로 재원자를 달래는다면 결국은 관청기밀이니 알려줄 수 없다 예산지출은 항목이 정해져있으니 국회의 승낙없이 단 일원도 변경 사용할 수 없다. 또는 환자들은 내용도 몰고 대외적선동에서 피동적으로 움직인다. 불평불만자는 썩부터 처치하겠다. 후자를 막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쓰겠다는 등 가진 위협과 공갈로서 함부로 탄압하더니 금춘(今春) 2월에는 언론자유는 민국의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도내(島內)의 유일한 여론기관이요 보도기관인 자치회기관지 <녹산주보>도 아무 이유없이 정간령을 내리며 설상가상으로 중증에 가까운 피요양자(자치회 중요간부)를 원장 자신이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진찰을 하여 음성이라고 진단을 붙쳐서는 퇴원령을 내리거나 하면 이 처사에 너무도 억울하는 78명의 친지들이 죄없이 축출을 당하여 증거없이 방랑의 신세가 될 피퇴도자의 거처를 염려하여 죄가 있으면 죄죄로 죄를 주거나 퇴원령만은 철거하여 달라는 애원을 하였더니 원장은 눈물로 애원하는 78명까지 퇴원축출하고 마니 이런 억울한 일이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진정서 2-3).

- 기독교보 1952년 10월 13일자 '소록도갯생원장의 종교탄압' 기사에서는 종교박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김상태 원장의 소행을 고발하고 있음.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조선일보 등이 이 사안을 여러 차례 보도함.
- 1953년 9월에 보건부당국 및 위경자 제씨에게 보냄. 발표된 『진정서』는 발표자가 '소록도갯생원자치회원 일동 xx명 대표'로 되어 있음. 진정서는 표지외에 14쪽에 이르며, 별첨으로 10쪽에 이르는 '물품통계표'가 있음. '물품통계표'는 '1950년 6월 1일부터 1953년 5월 31일까지 재원자가 받은 물품통계표(6쪽)', '1950년 6월 1일부터 195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식량수입내역표(2쪽)', '1950년 6월 1일부터 195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중요의약품수입통계표(1쪽)', 그리고 '1950년 6월 1일부터 195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치료재료품 및 본병약수입통계표(1쪽)'로 구성되어 있음.
- 세부 품목들은 환자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및 의약품 등으로 수백종에 달함. 당시 국제기구(국제연합민사원조사령부 UNCAC)와 외국인간원조단체들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외국산물품들이 다수 기재되어 있어서 당시 시설생활을 알 수 있음.
- 진정서에서는 상기한 종교탄압, 강제퇴원조치,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흉골천자진단법 시행, 환자의 실명 부작용을 수반하는 광전(光田)씨 반응 실험 시행과 함께 일본여자를 첩으로 들여서 직원 중심의 대한부인회장으로 세우고, 일본어로 회의를 진행하는 점, 환자 사이의 이간질, 환자와 직원 사이 이간질 및 직원 위주로 갯생원을 운영하는 관료적 색채, 연료대 부정사용, 문교부 폐지, 절대복종 강요 등 일제 이상의 억압과 일제시의 잘못된 전통을 이어받은 점 등을 지적하였음.

- 진정서에는 위 억압정책 이외에도, 10개항에 달하는 부정사실들이 열거되어 있음. 이들 자료는 갱생원의 기밀사항에 속하는 문서들에서 자치회원들이 조사해낸 것들임

1. 천여명 유령인구 경비부정처분건
2. 장태(醬太) 교환 조건으로 백미 반출시 백미반출과 대두입하의 차이량 부정 처분건
3. 광목 부정 착복건
4. 연료용 할목(割木) 불법유용건
5. 선박대출비 부정처분건
6. 구호물자 부정처분건
7. 백미부정 처분건
8. 벌채작업 임금중 부정사실건
9. 4284년도 연보내의 부정사실건
10. 종교탄압에 관한 건

- 진정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진정인들의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해 관계당국이 철저히 밝혀주기를 청원하고 있음;

1. 천여명 유령인구분의 경비 사용처에 대한 사실조사
2. 전술한 참고자료(10개항목)의 부정사실건에 대한 국고예산지출결의서와의 문서대조
3. 별지첨부한 과거3년간의 자치회 전물품 수령 통계표에 대한 자치회문서와 직원들의 문서와의 대조
4. 언론자유 및 신앙자유확보 등등

- 이상의 진정서에 대한 김상태 원장 내지 갱생원 측의 반응으로는 1953년 11월 23일 갱생원 직원과 계장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2가지를 결의한 것과 <소위 갱생원장 비행사건 진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나타남. 갱생원직원회의에서 결의된 바는 (1) 이번 원장 비행사건을 직원들이 분담책임을 질 것과 (2)원장이 이 심을 물러가게 되면 직원다수는 총사직할 것을 가결하고 보건부장관 앞으로 <소위 갱생원장 비행사건 진상>이라는 제목하에 직원 연서날인 및 총사직서를 첨부한 보고를 원장 및 교도과장이 상경하면서 감찰요원 및 보건부로 제출하는 것이었음.

- 이 소식을 접한 갱생원자치회는 1953년 12월에 소록도갱생원재원환자일동 명의로 발표한 『<소위 갱생원장 비행사건 진상>의 허위보고를 폭로함』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함. 이 성명서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는 갱생원측(원장측) 입장인 <소위 갱생원장 비행사건 진상>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원인(遠因) ①나환자는 그 타성*이 곡벽(曲僻)하고 자포자기하며 경거망동하기 쉬우며 항상 사회에 대한 즉 건강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음.

(2)본원 식량사정은 정원 6,100명분이 양곡을 수배하였으므로 실수용인원 약 5,600명에게 일률적으로 그 기준량 4합(合)을 배급하고 중환자 부침인 각 공장직공 기타 노동자에게도 그 노동의 경중에 의하여 일일일합 내지 5합의 특배(特配)를 주고 잔여양곡은 차를 저장 하여 현재 약 4개월분 1900석을 보유하고 있음.

(3) 육지요양소의 방종한 자유를 선망함으로 본원 환자중에는 불순분자들이 나날이 늘어나며 항상 도주계획하거나 또는 규합하여 원당국을 괴롭게 하는 방도만 부책하게 되었음.

(4) 본원은 일제시 350명 직원이 있었으나 해방후에는 직원수의 부족을 인해서 환자 자치위원회가 조직되어 병사지대의 말단행정을 맡게 되었으나 자치위원회가 발전강화됨에 따라 세력쟁투전이 전개되며 파벌이 심하여지고 자치위원회내에 소위 여당야당이 생기어 ...

(2) 근인(近因)

(1)(육지의) 각요양소에 있어서서는 경리 기타 원행정을 전부 자치회에서 하고 있으며 대구 애락원 여수애양원등은 경리는 직원이 하되 기타 원행정은 환자들이 하고 있으며 선교사회에서 경영하는 상기 요양소는 경작지도 넓고 환자들도 경환자뿐이요 부유층에 속하는 환자들인데다 영선 기타 사업* 풍족하며 구호물자도 본원에 비하여 많이 입*하고 겸하여 본원과 똑같은 환자*를 받고 백미로 계산된 예산으로 잡곡을 수배하고 그 차액은 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예산운용도 자유로워서 환자들의 생활은 본원과 큰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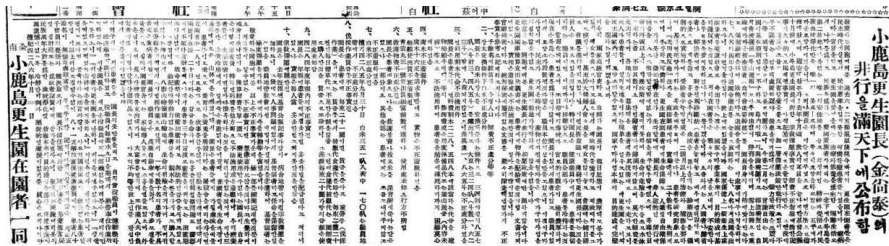
(2) 육지 각요양소의 환자는 본원 6,000환자에게 향하여 "너희들은 억압정치를 받고 만족하고 있는 무골동물"이니 소록도갱생원만이 일제 강점기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심지어는 갱생원직원들은 모조리 죽일놈 뿐이라고 하는 등 연사로서 부단의 자극을 주고 있으며 최근 육지환자들은 <요양소 운영은 환자들의 손으로> <구라사업은 우리들의 힘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소위 대한한센총연맹을 조직하여.... 소록도갱생원을 유일의 공격목표를 삼고 있으며 본요양소의 체계를 파괴하면 구라사업은 전국적으로 동포대들수중에 들어간다는 신념하에 본원환자들을 선동함으로 본원 극렬분자들은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우선 현원장을 내어보내야만 된다는 생각으로 각종공작을 꾸미게 된 것임.

(3) 환자교인수 1700명이라고 운운.... 각부락치료소 6동을 환자교인들이 점령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부락 치료소는 신축하여야 될 형편이라고 운운.... 목사는 교인의 환심 사는데만 급급하고 원직원의 인신공격을 공공연히하여 원내현환자생활이 궁핍은 원당국의 무성의와 무책임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가진 이간책을 써왔든 것임....재원환자에게 대한 원장훈시중 목사에 대한 충고적 연사를 삽입하였든 것을 갖이고 종교탄압이라고 **날조하여 이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정부 각 요로를 일방진정하는 동시에 기독교보에게까지 대서특필케 한 것임.

(4) (지역풍 목사) 본도에 레도시 원당국으로부터 누누이 구라사업의 목적과 본원의 사명을 설명하고 전임목사들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협력을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바 있었으나 표면상으로는 원당국과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는 듯이 하고 환자교회에 가서는 전임목사들의 반복적인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여 환자지대 교회에서 비밀리 지하적으로 교인들을 선동하며...

(5) 기독교보편집책임자 황성수씨는 국회의원이며 이 지방출신으로서 순천 노회와의 관계는 *밀하며 본원의 사명도 잘 알 것이며 환자들의 성품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본원을 중상하는 기사를 내용도 알아보지도 않고 일방적인 기사를 2회에 걸쳐 대서 특기함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임.

- 갱생원측(원장측)의 위와 같은 입장은 위 진정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임. 이에 대해 재원환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하나 하나 반박하는 내용이 성명서의 후반에 담겨 있음(내용 제시 생략). 성명서는 ‘친애하는 동포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으로서 ‘각 요로 및 각 요양소’에 성명서를 보내 여론형성을 기대하는 내용임. 아울러 ‘현명하신 위정자께서는 빨리 대책을 세워 원당국의 환자간 분열공작을 꾸미는 야수적인 이 사건을 빨리 선처해주시는 동시에 김상태원장의 비위비행을 공정히 처단해 주시기 천만바라마지 않습니다’ 라고 하여 당국의 개입을 희망하였음. 아울러 재원자일동으로 1953년 10월 23일자 동아일보에 성명서 내용을 ‘소록도갱생원장(김상태)의 비행을 만천하에 공포함’이란 제목의 광고로 실었음.



- 동아일보를 통해 환자들의 조직적인 반발을 알게 된 병원 당국은 1953년 10월 25일 새벽 자치회 부위원장 서원갑과 전 문교부장 강영섭을 원규위반으로 감금실에 수감하는 등 적극 진압에 나섰다. 병원 측과 원생들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소록도 문제가 여론으로도 환기되었고, 원생들의 집단행동 움직임도 나타났음.
- 사건이 보도되면서 중앙에서 의정국장, 나병계장, 고흥 경찰서장이 조정에 나섰고, 중앙감찰위원회에서 감사가 내려와 조사한 결과 환자들의 김상태 원장에 대한 진정은 무혐의로 처리되었음(『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역사편』, 2017, 179).
- 원장 배척운동의 실패는 종교 갈등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확산되었음. 즉, 처음부터 원장 배척운동에 방관만 하던 천주교인 환자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임. 원장 배척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자치회 간부들이었고, 자치회 간부들 모두가 기독교 장로이거나 그에 가까운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원장 배척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이뤄진 것이었음.

- 운동의 주도세력들은 환자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안인 만큼 교과를 초월해 함께할 것을 권유했지만 천주교 측에서는 신중한 태도로 합세를 하지 않았음. 결국 주도세력들은 천주교인 환자들을 불의(不義)에 가담하는 반역자라고 비난하였었고, 천주교인들은 혹시나 모를 위협에 두려워했고, 천주교 사도회장은 원장에게 천주교인들의 신변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게 됨. 12월 2일 원장은 천주교인 환자 200여 명을 보육소에 수용하였는데, 천주교인들이 보육소에서 생활한지 한 달 여가 지난 1954년 1월 5일, 수원 성라자로마을 하한주 신부가 진상조사를 위해 내원하여 사태수습에 들어감. 교회 측은 천주교인의 생명과 재산 및 신앙생활의 보장을, 천주교인 측은 자치회에 협조하고 병사지대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서로 교환하고 천주교인들이 환자지대로 복귀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되었음(상동).
- 사태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자치회 내부에서 다시 분열이 발생하였음. 원장 배척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자치회 간부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에 머물러 있던 김민욱 위원장을 데려오기로 결의하였고, 1954년 2월 김민욱 위원장은 야음을 틈타 소록도로 돌아왔음. 위원장이 복귀하면서 자치회에서는 ‘민보단’(단장 김해인)이라는 단체를 새롭게 결성하고, 그 안에 치안대(치안대장 서성국)를 구성하였음. 일련의 과정을 미뤄볼 때, 자신들의 정보가 직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믿고, 환자들의 통행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등 치안활동을 전담하게 한 것임. 이러한 조치에 장규진 부위원장 등은 반기를 들었고, 일부러 통금을 지키지 않는 등 시비를 걸었음. 그러다가 장규진 집에서 11시가 넘게 놀다 돌아가는 환자들과 치안대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장규진이 곧바로 감찰계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으며, 결국 치안대원 3명이 녹동지서로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튿날 민보단장 김해인과 치안대장 서성국도 녹동지서로 연행되었으며, 5명 모두 고흥경찰서로 넘겨졌음. 사건의 여파는 더욱 확대되어 3월 31일에는 김민욱, 서원갑, 강영섭 등도 구속되었고, 4월 5일 녹동지서 순경들에 의해 김병련이 연행되어 감으로써 원장 배척운동의 주도자들 모두가 고흥경찰서에 구속되게 되었음. 이를 지켜본 환자들은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고, 감정은 격앙되어 4월 6일 오전 10시 수많은 환자들이 경계선 앞에 집결하여 시위를 벌였고 결국 경계선을 뚫고 직원지대로 밀고 올라갔음. 이에 고흥에서 출동한 경찰기동대와 직원들은 공포를 쏘고 곤봉으로 환자들을 제압하며 시위를 진압하였음. 이들이 휘두르는 무력 앞에 환자들은 기겁을 하고 후퇴하여 사방으로 도망쳤는데, 당시 환자들이 얼마나 혼비백산 했는지 도망가느라 벗겨진 고무신짝이 두 가마니요, 의족도 수십 개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음.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한 경찰과 직원들은 시위가담 환자들과 주도자들을 색출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감금실에 입감해버렸음.
- 병원 측은 가담자들을 출신지역과 가까운 나요양소로 분산수용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중앙의 허가를 받아 4월 11일자로 이송하였음. 당시 이송 조치된 이들은 총 25명으로(장로 4명, 집사 17명, 권찰 4명) 전북 소생원에 9명, 여수 애양원에 6명, 부산 상애원에 8명, 대전 애경원에 2명씩 각각 이송 조치되었음. 먼저 경찰에 연행되었던 주도급 인사들은 구속 송청(送廳)되었는데, 재판 결과 서성국, 김병련, 김해인의 소요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각 7월과 6월의 선고를 받고 상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음. 김민욱, 서원갑, 강영섭은 1954년 7월 31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고, 구류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의 벌금을 납부한 후 석방되었음.

- 석방 후 김민욱, 강영섭은 익산 소생원으로, 서원갑은 여수 애양원으로 각각 분산 수용되었음. 사태를 마무리한 병원 당국은 사건을 일으킨 자치회를 해산하고 조무원 제도를 실시하였음. 또한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흉골골수천자에 의한 나균 검사도 중지하였으며, 일률적이던 강제노역을 지양하고 건강한 환자 200여 명으로 건설대를 구성하여 환자들의 불만을 상당히 해소하였음. 하지만 소요사태로 인해 어렵게 실시한 자치회가 다시 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급 인사들이 강제 퇴원 당하면서 환자들의 자치권이 크게 훼손되었음. 84인 학살사건 이후 갱생원에서 발생한 가장 큰 분규이자 인권침해사건으로, 환자들의 자치권이 크게 약화되고, 갱생원의 부정부패의 문제가 사회에서 쟁점이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음 (『소록도 100년: 한센병 그리고 사람, 백년의 성찰-역사편』, 2017, 180-181).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을 따서 4.6 사건이라 칭함.
- 1954년 9월 24일자 경향신문 기사(‘갱생원 분쟁은 해결, 양배착복직원(糧配着服職員) 처벌’)를 보면 김상태 원장 및 총무과장과 경리계장 등 3인이 감찰위원회 징계회의에 따라 파면처분 받은 것을 알 수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3건(진정서, 물품통계표, 성명서) 모두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변형이나 노후화 흔적 없음. 단 작은 글자크기로 등사한 관계로 일부 읽기 어려운 글자들이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3건 모두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어 보존관리에 전혀 문제 없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생존과 자존을 위한 사회적 소수자의 집합행동 사례를 잘 보여줌. 언론을 활용한 여론전략, 관련 핵심 부서를 상대로 한 청원 전략 등을 잘 보여줌. 아울러 사회적 소수자의 집합행동에 대한 주류 사회의 반발과 억압장치의 가동을 잘 보여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토론과 실천과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한국전쟁기와 직후인 1950년대 전반, 외국인조물자에 크게 의존하여 생존해가던 소록도요양원에서의 생활상을 물품통계표의 세부 물품 명칭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으며, 이를 미루어 당시의 고아원과 같은 사회복지시설들의 운영과 원생들의 생활을 상상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임.

6) 등록가치의견

- 역사성 측면에서 진정서는 별첨 자료로 물품통계표가 첨부되어 있음으로써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1950년대 한국전쟁이 막종료된 엄혹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집합행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성이 풍부한 사료임.
- 특히 진정서에 첨부되었던 물품통계표는 소록도요양원의 의료, 행정, 환자들의 삶 등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주고 있음. UNCAC(UN주한민사원조사령부)와 외국인간원조단체들로부터의 구호품들이 실제 현장에 전달되었던 것을 물품통계표는 자세히 전해주고 있음. 미루어 고아원 등 당시 만들어지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원생들의 생활상을 미루어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보물창고임.

- 성명서 역시 원생들의 주장이 담긴 중요한 역사 사료로서 가치가 있음. 진정서와 성명서 내용은 거의 비슷하며, 소록도갱생원의 부정부패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음.
- 회귀성 측면에서 진정서와 물품통계표, 성명서 모두 높게 평가됨. 특히 진정서에 첨부된 물품통계표는 별지 형태로 되어 있고, 반투명한(두께가 얇은) 용지여서 자료정리하면서 망실훼손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보존되어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희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성명서는 별첨문건 없는 단일 문건으로 한국전쟁 직후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역시 희귀한 것으로 평가됨.

7)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2건 모두 약칭으로는 ‘진정서’(‘물품통계표’), ‘성명서’로 표현하였지만, 문화재로 등록 시에는 정확한 이름을 밝혀주어야 할 것임. 그럼으로써 명칭으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명칭의 표지화가 가능할 것임.
- 진정서--> 인권보장과 부정부패근절을 위한 소록도갱생원 자치회원 일동의 건의문 및 지급받은 물품명세서
- (물품통계표--> 소록도갱생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명세서)
- 성명서-> 소록도갱생원장 김상태 비행사건에 대한 소록도갱생원 재원환자 일동의 성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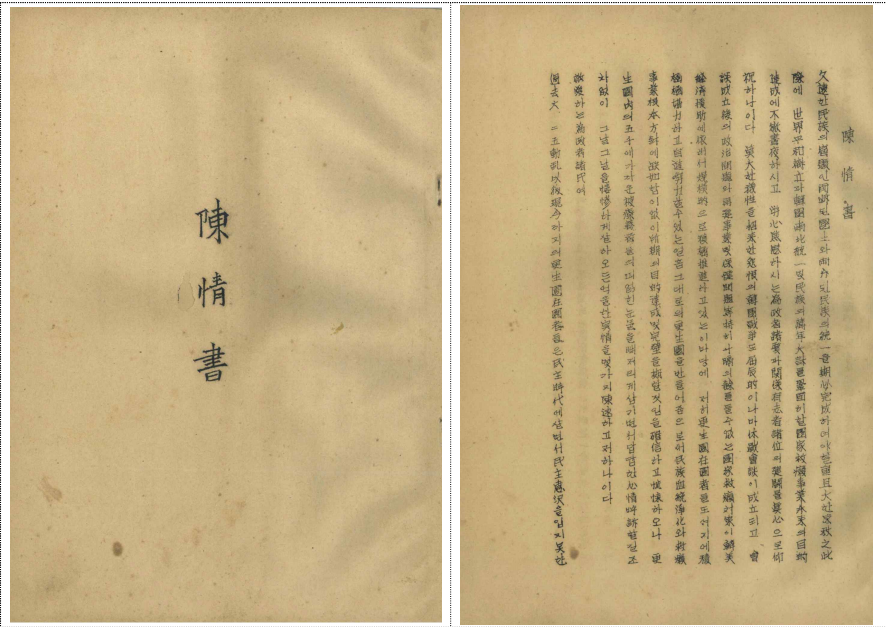
<○○○○○ ○○ ○○○>

1) 개요

- <고흥 소록도 한센인 유물>은 크게 두 가지 역사적 사건과 기관에 관한 유물임. 하나는 해방 후 소록도 한센인 자치활동을 보여 주는 4.6사건에 관한 유물이며 다른 하나는 소록도만의 독특한 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센인이 의료인으로 양성되었던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임.
- 4.6사건은 해방 후 한센병 환자들의 소록도 자치회가 주축이 된 저항 사건임. 환자자치회는 광복과 민주주의의 바람을 맞아 1947년 도입된 ‘환자자치제’에 의해 구성된 기구였음. 그러나 한국 전쟁으로 인한 내부 분열, 전쟁으로 물자 부족이 심해진 점, 김상태 원장 부임 후 관리와 통제 위주의 일제강점기 정책으로 회귀한 점 등이 원인이 되어 1952년 자치회가 주축이 되어 김상태 원장해임운동이 발발하게 됨. 그러나 원장해임운동은 실패하였고 1953년 자치회 내부 갈등과 4.6 데모로 이어져 이후 자치회가 해산되는 아픔을 겪게 됨.
- 4.6사건은 크게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흉골골수천자’ 방법으로 촉발되었던 김상태 원장 해임운동 및 진정 국면으로 1953년 가을부터 1954년 1월까지 지속되었음. 기존에 해임운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다른 하나는 해임운동 실패로 야기된 자치위원회 내부 분열이 4월 6일 소요 사태로 치달았던 1954년 2월부터 4월까지의 국면임. 이 중 유물은 첫째 국면인 김상태 원장 해임운동과 관련된 유물로서 김상태 원장의 비위 사실을 폭로한 진정서와 그에 따른 별첨한 물품목록, 그리고 진정서 및 신문의 공개장이 별다른 반응이 없자 발표된 성명서임.
- 진정서와 물품목록, 신문의 공개장, 성명서를 함께 보면 4.6 사건 당시 자치회의 주요한 문제의식, 문제제기 내용, 그리고 당시 소록도 갱생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진정서에서 문제가 된 내용들은 경비부정 문제, 녹산주보 정간 문제, 흥골천자진 단법과 인체 실험과 같은 가혹한 진단과 의학 연구 문제, 원장의 친일활동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음. 물품목록은 연보와 물품 지급이 맞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자치회만으로 물품 통계를 작성한 것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진정서 표지

진정서 제1면



성명서 표지

성명서 제1면

물품 통계표

- 본 진정서 및 성명서, 물품목록은 소록도한센병박물관 소장 유물로서 박물관 개관 이전 2015년 유물 수집차 소록도 내 남성교회(1927년 창립)를 방문, 유물 수집하던 도중 강단 옆 방송실 캐비닛 위에서 발견함.
- 유물 규격은 진정서는 19*25.5cm, 성명서는 20*28cm, 물품통계표는 18*25.5cm임. 진정서와 성명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첩필로 쓰고 등사관에 붙여서 잉크를 묻힌 밀대로 인쇄를 하는 방식으로 제작함. 물품통계표는 '중앙나요양소' 원고지에 표로 작성되어 있음.
- 성명서 표지에는 <소위 갱생원장 비행사건 진상의 허위 보고를 폭로함>이라는 제 소록도 갱생원 재원 환자 일동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음. 진정서는 표지에 진정서라고 되어 있으며 말미에 소록도 갱생원 자치회원 일동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록도한센병박물관에서 개별 비닐에 잘 보존하고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진정서 및 성명서, 물품 목록은 소록도 한센인의 자치 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물임. 해방 이후에도 자치의 관점에서 다양한 갈등이 있었고 정부의 한센인 관리 정책이 강압으로 끝났던 역사와 함께 유물이 제시된다면 더욱 가치를 발할 것으로 여겨짐.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해방 후 각종 환자 인권 관점의 저항 운동 관련된 문화재는 현재 전무하며, 등록 가치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본 유물은 환자 인권과 자치의 관점에서 역사적 사건인 46사건의 실체를 보여주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크다고 보임. 46사건의 경과와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

8)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고흥 소록도 4.6 사건 관련 유물>로 정리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6.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소장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1.3.23.)를 거쳐 등록 예고한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	1건 4점	27 × 19cm 등	1950 ~60년대	국립 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82

(2)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0.3~9월) : '근현대문화유산 장애인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용역' 실시
- ('21.2.16.)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1.3.23.)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조건부가결'

* 46 사건 관련 유물과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에 대하여 문화재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별 번호 및 명칭 부여

(4) 등록예고 : '21.4.5. ~ 5.4.(30일간) *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녹산의학강습소는 소록도 한센인 등을 의료보조인력으로 양성하여 한센병 치료 등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한 기관임. 해당 유물(청진기·해부학책·수료증)은 녹산의학강습소의 교육·운영과 그 존재 실체를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1.2.16.)

- 녹산의학강습소는 환자 관리체계를 민주적이고 환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1949년에 개설된 곳으로, 소록도에만 존재했던 특수한 의학 교육 기관임.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인 청진기, 해부학 책, 수료증 2종은, 체계적인 환자 위주의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소록도만의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관 운영을 보여주는 유물로서 역사적인 의미나 의료사적인 의미에서 등록 가치가 있음.

○ ○○○○○ ○○○ ○○○('21.2.16.)

-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은 청진기·해부학책·수료증은 소록도만의 독특한 제도로서 환자들을 훈련시켜 다른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인력으로 양성하는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임. 해당 유물들은 의료자원과 인력이 부족했던 소록도에서 환자 중심적인 의료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들임.

○ ○○○○○ ○○ ○○○('21.2.16.)

-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은 소록도에서 의료보조인력을 양성하였던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임. 녹산의학강습소 출신 의료인력은 동환(同患)으로서, 한센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존재였고, 이들 의강 출신들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성심성의껏 진료에 나서 환자들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의료인력이었음. 이들과 관련된 유물은 회소하며, 한센역사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망각되지 않고 기억되어야 할 귀중한 유물이라고 판단됨.

○ ○○○○○ ○○ ○○○('21.2.16.)

-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은 청진기·해부학책·수료증으로 구성된 유물로, 환자들을 훈련시켜 다른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인력으로 양성하는 의학교육기관이었던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임. 해당 유물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한센인의 독특한 의학교육제도와 소록도인들의 자활 노력이 결합된 유물로서 가치가 있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 1. 명 칭 :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
- 2. 소재지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82
- 3. 소유자 :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 4. 조사자 의견('21.2.16.)

<문화재위원 ○○○>

1) 개요

- <고흥 소록도 한센인 유물>은 크게 소록도 4·6 사건과 관련된 유물과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로 나눌 수 있음. 현재 국립 소록도 병원 한센병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청진기, 해부학책, 수료증 2종)’은 소록도에 1952~1961년간 설치되었던 녹산의학강습소와 관련된 유물로, 한센인들에게 의학을 강습하여 환자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했던 소록도만의 고유한 방식을 알 수 있는 유물임.

명칭	재질	가로 세로(cm)
청진기	플라스틱, 고무	길이 83
해부학책	종이	19*27
수료증 - 강선봉	종이	38.8*26.8
수료증 - 김영설	종이	38.8*26.8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녹산의학강습소(鹿山醫學講習所)는 소록도에만 존재했던 특수한 의학 교육 기관임. 소록도 내에 병원이 있었으나 환자에 비해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했으므로 재원자 및 외지인 중에서 선발하여 진료학, 약리학, 안과학, 조제학, 해부학, 외과학, 세균학, 이비인후과학, 생리학, 내과학 등을 교육시킨 후 소록도 내에서 의료 보조 인력으로 활용함. 이 제도는 해방 이후 첫 번째 한국인 원장으로 부임했던 김형태 원장이, 환자 관리체계를 민주적이고 환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고안한 것으로 1949년에 개설됨. 이는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체하는 것뿐 아니라 환자 스스로 역량을 준비시키는 병원 운영의 전환점이기도 했음. 강습생들은 소정의 입학시험을 거쳐 입학한 뒤 2년간(초기에는 3년) 의학 교육을 받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어 임상 각 과에 배치되어 6,000명에 이르는 환자를 매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함.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고 하며 수료생들은 소록도뿐 아니라 국내 각 요양소나 집단소에 배치되어 의료부분에서 활동함. 녹산의학강습소는 국립 소록도 병원으로 체계가 갖추어지는 1961년까지만 운영됨.

- 청진기는 녹산의학강습소 제1기 수료생 김주형이 강습소를 수료할 때 기념으로 받은 것을 평생 간직해 온 것임. 이를 제6기생 강선봉이 한센병 박물관 개관(2016년)을 준비하면서 2015년 직접 원주에 가서 받아온 것임.(강선봉 증언, 2021년 2월 16일 조사시)
- 김주형은 강습소를 수료한 뒤 소록도에서 근무하다가 원주로 이주하여 의료활동을 해왔으며 한센복지협회 등의 일을 하며 한센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힘쓴 분으로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생 가운데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음. 청진기는 82cm 길이로 플라스틱과 고무로 제작하여 진찰시 사용한 기구임. 고무 관 양쪽에 “The Health” I.R.Cu”가 적혀 있어 1950년대 미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됨. 청진기는 진단에 주로 사용했으나 한센인들이 아프거나 심지어 사망 직전에조차 “그래도 청진기를 한 번씩 대주는 것”이 진찰을 받았다는 심리적인 위안을 받는 것으로, 한센인들에게는 매우 상징적인 물품이었다고 함(강선봉 증언).
- 『해부학』 책은 1956년에 녹산의학강습소에서 직접 등사본으로 제작하여 사용한 것으로, 총 58쪽으로 이루어져 있음. 내용은 해부학 용어와 각 신체부위의 뼈와 근육을 그림으로 그리고 각 부위 명칭을 기재한 도해서임. 표지에는 “解剖學”이라는 제목과, “鹿山醫學講習所 第五基生用”이 등사로 되어 있으며, 영문 필사체로 “Yang Dong Sng”라고 쓰여 있고, 주문방인으로 “梁銅承”이라는 사용자인이 적혀 있음. 이 도장은 내지의 중간중간에도 있어, 소유자가 적었던 것으로 보임. 이 『해부학』 책은 전래된 것은 아니고 한센병 박물관에서 중고 서적 사이트에서 발견해 구입했다고 함. 뒷표지에 “발간사 : 녹산의학강습소”, “년월일 : 1956.8”, “등사인 : G. K. H”로 등사되어 있어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음. 겉표지는 등사용지로 되어 있으나 한 장 안쪽에는 기존의 잡지용지를 끼워넣어 내구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증은 제6기생인 강선봉과 제7기생인 김영설이 받은 것으로 한센병 박물관에 기증한 것임. 강선봉은 1937년생으로 1960년 3월에 제6기생으로 수료한 뒤 1962년까지 소록도에서 근무했고, 김영설은 1935년생으로 1961년에 제7기로 수료한 분임. 강선봉의 수료증은 제151호로 “소록도 갱생원 부설 녹산의학강습소장 차윤근” 명의로 발급되었으며, 김영설의 수료증은 제17호로 “국립 소록도병원 부속 녹산의학강습소장 체재위” 명의로 발급됨. 특히 강선봉은 소록도 근무 이후 방사선과 기사로 훈련 받고 타지로 가 의료 활동을 활발히 했으며, 한센병 박물관 설립 시 녹산의학강습소 제1기 수료생인 김주형의 청진기를 기증받아 오는 등 소록도 유물 수집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분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청진기는 사용 흔적이 있으나 보존 상태는 양호함.
- 『해부학』 책은 등사본으로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지질이 좋지 않아 장기적으로는 보존 처리가 요청됨.
- 강선봉의 낙산의학강습소 수료증은 접힌 자국과 얼룩, 오랜 세월을 통해 바랜 흔적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임. 김영설의 수료증은 보존상태가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고흥 소록도 한센인 유물은 한센병 박물관에서 수집 보존하고 있어 보존 환경은 매우 양호한 편임.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특히 지류의 경우 전시설에서 오래 노출 전시한다면 손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고흥 소록도 낙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은 한센인 자신들이 의학을 배워 스스로 치료를 담당했던 특정한 시기의 역사를 담은 것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상황을 보여주는 역사 유물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고흥 소록도의 한센인 관련 유물은 2016년 문화재 조사에 의해 ‘고흥 소록도 한센인 생활 유품’ 14점(개인 치료용 칼, 단추 끼우개, 국자, 냄비, 숟갈, 시멘트 블록형틀, 기와틀, 연탄형틀)이 한센인들의 특성을 드러내는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로서 등록문화재 제66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록도 내 병원 등 건축물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 청진기, 해부학 책, 낙산의학강습소 수료증은 소록도에 일정 기간 설치되었던 낙산의학강습소의 교육과 운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임. 청진기는 현재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부학 책도 등사본이나 다른 본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음. 수료증은 다른 수료생의 것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파악된 것은 없음.

7) 등록가치의견

- 고흥 소록도 낙산의학강습소 관련 청진기와 해부학 책, 수료증 2종은 체계적인 환자 위주의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소록도만의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관 운영을 보여주는 유물로 역사적인 의미나 의료사적인 의미에서도 등록 가치가 있음.

8)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청진기와 해부학 책, 수료증 2종은 낙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로서 등록 시 명칭은 ‘고흥 소록도 낙산의학강습소 유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 ○○○>

1) 개요

- 소록도는 식민지기 시작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격리의 섬이었음. 해방이후 1962년 법적인 격리체제가 해제되었지만, 실질적 격리는 유지가 되어,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격리의 섬임. 환자들은 소록도 격리의 섬에서 단종 수술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했음.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을 하기도 했음. 또한 의료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단기교육을 받고 의료보조인 역할을 하기도 했음. 그래서 소록도에는 격리, 폭력, 의료의 역사 뿐 아니라, 환자 공동체가 자신들의 존엄성을 지키며 투쟁해온 역사, 인간의 삶을 유지해온 역사가 중첩되어 있음.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심사대상이 되는 유물들은 환자중심의 소록도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이 유물들은 소록도 유물이 문화재로 등록된 시기에는 발굴되지 않았던 유물임. 소록도에 한센병박물관이 만들어진 이후, 학예사들의 체계적인 노력으로 인해 이전에 방치되었던 유물들이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음. 이번에 문화재 심사의 대상이 되는 유물들은 다음과 같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청진기	길이 83
해부학책	19*27
수료증 - 강선봉	38.8*26.8
수료증 - 김영설	38.8*26.8

- 고흥 소록도 낙산의학강습소는 한국과 소록도 만의 독특한 제도로서 해방 후 의료인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환자들을 훈련시켜 다른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인력으로 양성하는 의학교육기관이었음.
- 이들은 중졸 이상 학력을 갖춘 한센병 환자로서 영어, 국어, 한문, 산수 등 일반 상식을 시험 이후 입학. 이들의 활동을 통해 당시 소록도 내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메워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이들은 소록도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 요양소나 나병환자 정착마을에서 근무하기도 하였고 주변 마을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기도 하면서 유능한 의료인력으로 인정받았음.
- 의학교육의 역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소록도 환자 자치의 측면에서도 낙산의학강습소의 의미는 적지 않았음. 의학강습소를 졸업한 환자들은 임상 각 과와 각 마을 치료실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을 뿐더러 다른 의료인들보다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자부심이 강했음.
- 현재의 유물들은 의료자원과 인력이 부족했던 소록도에서 환자 중심적인 의료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들임.

- 청진기 : 이 청진기는 1952년 8월 14일 제1기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생 16명에게 기념품으로 지급된 것이며, 1회 졸업생인 김주형이 보관하고 있던 것임.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소록도에서, 청진기는 환자들이 의료를 경험하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했음.
- 해부학책 : 녹산의학강습소에서 이용되던 해부학 교과서임.
- 수료증 : 녹산의학강습소 학생들의 수료증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청진기의 경우도 낡았지만 현재 원형이 비교적 보존되고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록도의 경우 박물관에서 유물 관리를 잘 하고 있음. 단지 소록도 병원의 특성상 연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물의 성격과 의미를 밝히는 연구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소록도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곳으로 한센역사, 의료사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 곳으로, 이곳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을 계속할 수 있음.
- 한센병 박물관이 설립된 이후 학예사들이 상주하면서 실내에 산재해 있는 유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음. 학예사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박물관이 연구, 보존, 교육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소록도는 한센인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자, 근대 의학사, 사회사, 인권사의 중요한 현장임. 이곳에서 환자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문화재로 등록이 된다면, 향후 소록도의 역사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환자 인권운동사에 대한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가능함.
- 소록도와 관련된 유물은 지속적으로 발견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박물관에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문화재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번에 이 유물이 지정이 된다면 이런 활동의 기록제가 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기존에 소록도 유물은 일상생활사적인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환자의 인권 관련 활동, 의료활동 참여 등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 볼 수 있음. 그래서 이 유물들의 지정을 통해 소록도의 환자 인권의 가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소록도 환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는 환자 인권사, 의료사, 생활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모두 가치가 있는 귀중한 유물임. 소록도 100여년의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

<○○○○○ ○○ ○○○>

1) 개요

- 상기 물품들은 현재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들로서, 소록도에서 의료보조인력을 양성하였던 녹산의학강습소(1949~1962)와 관련있음. 즉, 1949년 국립소록도병원(당시명칭은 중앙나요양소)에 개설된 녹산의학강습소 제1기 졸업생 김주형이 기증한 청진기 1점, 제5기생용 해부학책 1책, 동 강습소 수료생인 강선봉(제6기, 1960년), 김영설(제7기, 1961년)의 수료증 각 1점임.
- 청진기는 제1기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식에서 김주형이 졸업선물로 받은 것으로, 한센병박물관 개관(2016.5.17.) 이전인 2015년 5월 21일 녹산의학강습소 제6기 출신 강선봉이 국립소록도병원 부탁으로 김주형을 찾아가 받아가지고 온 것임. 해부학책은 제5기 양동승(梁銅承)이 사용하던 것을 한센병박물관이 구입한 것임. 수료증은 강선봉과 김영설이 한센병박물관에 기증한 것임.
- 나병원(혹은 나요양원)에서 환자가 다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돕는 의료보조원으로 활동한 일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관찰되나, 환자에게 의학강습을 통해 보조 의료원으로 양성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이는 일제강점기 이래 소록도에 대규모 나요양소를 운영해 온 역사와 관련이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한국에서 나병에 관한 기록은 세종실록에 나질(癩疾)이라는 병명으로 처음 출현함. 1445년에 제주에 구질막이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나오며, 1612년 사간원에서 경상, 강원, 충청도의 대풍창 치료와 방제를 청했다는 기록이 있음.
- 1876년 개항 이후, 서구 선교사들에 의한 나병원이 부산(1908, 호주장로회), 광주(1911, 미국남장로회), 대구(1913, 미국 북장로회)에 세워졌음. 조선을 병탄한 일본은 이들 서양 선교병원 설립에 자극받아, 1915년 나환자 격리 수용소로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소록도를 선정하고, 1916년 소록도에 자혜의원을 설립하여, 1945년 제2차세계대전 패전 이후 철수할 때까지 5명의 일본인 원장 시대를 거치게 됨.
- 1933년 부임한 제3대 원장 스오 마사스에는 소록도 자혜의원 제1차 확장공사를 시작하고, 벽돌공장을 준공하였으며, 시설 명칭을 1934년 10월 소록도갱생원으로 개명함. 1935년에는 소록도 신사를 준공하고, 원장의 권한으로 환자를 감금할 수 있는 감금실을 설치하였으며, 1936년에는 정관절제수술을 전제로 부부동거를 허용하기도 함. 1937년에 간호부양성소를 개설하였으며, 총 3차에 걸친 소록도 확장공사 결과 1939년에는 6,020명의 환자를 수용함. 1942년 6월 20일 스오 원장의 압제에 반발한 이춘상이 스오 원장을 척살함. 2021년 현재 이춘상 기념사회회가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
- 1945년 광복 이후 공권력의 공백기에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속에서 84명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함. 1945년 김형태 원장 취임 후 녹산중학교 개설(1946), 환자 자체제 허용(1947) 등 환자들의 교육과 자치에서 어느 정도 발전이 있었음.
- 1948년 제8대 김상태 원장 부임 이후,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운영체제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음. 1949년 5월에 중앙나요양소로 개칭하였고, 처음에는 3년 과정의 녹산의학강습소를 개설하였음. 한국전쟁의 발발로 중간에 의학강습이 중단되었다가, 곧 재개함.

“또한 6·25 전쟁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의학강습소를 재개하여 1952년 8월 15(14일)의 오기인듯함)일 제1기 1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부족한 직원 인력을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요원이 절대 부족한 전국 각 나요양원의 의료조무원 확충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국립소록도병원, 1996, 소록도80년사, 121-122)

- 녹산의학강습소는 의료조무원(혹은 자료에 따라 ‘의료조수’, ‘의료요원’, ‘환자 진료 기간요원’, ‘환자의료원’ 등으로 표현됨)을 양성했던 교육기관임. 이들은, 정식 의학교육을 받고, 의사자격을 갖춘 의료인은 아니나, 나요양원 현장에서 의사를 보조하여, 환자들에 대한 의료를 제공한 인력들임. 1953년도 『국립요양소 갱생원 연보』를 보면 의학강습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음.

“본원 의학강습소는 나환자에게 의학적 기초지식과 임상적 기술을 습득시켜 **의료조수**를 양성하여 현하 긴급히 요청되는 나요양소내 부족된 **의료요원**을 충족시킴으로서 구라사업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아래 ...단기 4285년 8월 14일에 제1기생 16명의 수료를 보아 해당 각요양소에 배치되어 **환자 진료 기간요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학제의 변경에 따라 급년도에는 수료생을 보지 못하였으나 제3기생의 신입생을 모집하여 제2기생과 더불어 모-든 난관을 극복하여 가며 강의를 제속중임으로 앞으로 예산상 합법을 기하여 명실공히 겸전한 **환자의료원** 양성기관이 될 것을 기하고저 한다”(87, 이텔릭은 보고자가 강조한 것임).

- 1949년에 입학한 제1기 교육과정으로 애초 3년 과정으로 계획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중간에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1952년 8월 14일에 수료함. 이후 2년 과정으로 이수년수가 바뀌었음. 1953년 녹산의학강습소에 재학중인 사람들은 소록도 출신이 대다수였지만, 그 밖에도 전국 여러 곳의 나요양원에서 선발되어 왔음. 의학강습소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여러 요양원에서 자발적으로 입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음.

<표>1953년 현재 녹산의학강습소 재학생의 출신분포자료)
『국립요양소 갱생원 연보(1953)』, 88.

	1기	2기	3기	계
갱생원	14	17	27	58
애생원	2		1	3
애양원		2		2
애락원		1	2	3
신생원			1	1

- 의학강습소 입학자격은 남녀 구분없이 중졸 이상의 학력이면 되었음. 국어, 영어, 산수, 상식 과목으로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경쟁률이 100:1 정도였음. 처음 3기까지는 3년 과정이었는데, 후일 2년 과정으로 단축됨. 의학강습소 수료후 갖는 자격은 내부(소록도와 육지의 요양소 및 정착촌)에서만 통용되는 제한적인 것으로서, 의강 출신 중에는 이때의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정착농원에서 약국개업(익산 농장에서 약국개설한 제8기 김현수, 후일 방사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원주 한센복지협회에서 내과주임으로 일한 제1기 김주형 등)

- 녹산의학강습소에서 강습했던 과목과 담당교사는 1953년도의 경우 다음과 같음.
<표> 강습과목 및 담당교사자료) 『국립요양소 갱생원 연보(1953)』, 88.

과목	직위	성명
수신	원장	김상태
해부학	의무관	남천우
세균학	의무관	최시룡
생리학	의무사	이홍덕
약리학	의무관	신정식
조제학	약제관	홍연호
진단학	의무관	문병렬
내과학	의무사	이홍덕
외과학	의무관	남천우
안과학	의무관	신정식
이비인후과학	의무관	최시룡

- 표에서 보듯, 나환자 진료를 위한 기본 과목들이 망라되어 있음. 교재는 일본의학 교재를 축약하여 등사한 것을 사용하였음. (1956년 사용된 해부학 교재 참고). 의강 제6기생들이 인체표본을 만들어 교육과 실습에 활용함.(강선봉 면담 내용).
- 녹산의학강습소는 1961년 최재위 원장이 부임하면서 달라진 병원 체제와 함께 1962년 제8기 수료를 끝으로 폐지되었음. 의학강습소 출신 환자들이 병원 의료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 의료조무원 체제는 198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다가 1978년 병원에 간호조무사 양성소가 생겨 간호조무사들이 간호 업무를 점차 전담하게 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짐.(한센병박물관, 내부자료, 2021.1.16.).
- 1961년까지 수료생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제7기까지의 수료생 수는 다음과 같음.

<표>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생 수 자료) 한센병박물관, 내부자료, 2021.1.16.

수료년도	수료생수	비고
1952년	16	제1기생
1953년	20	제2기생
1954년	18	제3기생
1955년	35	제4기생
1956년	53	제5기생
1959년	25	제6기생
1961년	45	제7기생
합계	212	

- 녹산의학강습소를 수료한 사람들은 소록도병원에서, 그리고 육지의 요양원에서 의료보조행위를 하였는데, 의사가 없는 경우나 상황에서는 직접 의사 역할을 수행하였음. 몇몇 증언이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사망사실 확인: 소록도에서 사망한 환자가 발생하면, 사망사실 확인이 되어야 장례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당시 사망자는 김주형 장로의 손을 안거친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청진기를 가지고 출동하여 사망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었다”.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소록도의 병사지대에 의사가 들어갈 수는 없기에, 그곳에 살고 있거나 혹은 그곳에서 근무하는 의강 출신이 청진기를 사망자의 가슴에 대고 호흡이 멈춘 것을 확인하는 사망사실 확인절차는 동료로서 의강출신이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서비스였음. (2021.2.16. 강선봉(의강 6기) 면담내용). 그런 의미에서라도 의강 출신에게 청진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 정관수술: 진신마취(척추마취) 후 정관수술(단 산부인과 수술은 직원들이 하였음. 위 강선봉 면담내용). 또한 오장열의 구술에 따르면, 21세에 호혜원에 입소하여 결혼한 그는 환자로부터 정관수술을 받았음. (국사편찬위원회, 해방이후 한센병 정책과 질병경험에 관한 구술사, 전자사료관 2004년도 수집 구술자료(사료철 COH005_11_00A0006). 2004.5.23.)
- 환자 사망 후 해부할 때 의강출신들이 거들음. 단, 해부는 의사들이 하였음. 일제강점기부터 소록도에서는 환자가 사망하면 반드시 해부를 하였는데, 공휴일에는 의사들이 근무를 하지 않으니 해부하지 않고 바로 화장장으로 보냈음. 그래서 환자들이 두 번 죽지 않기 위해 공휴일에 죽는 것이 소원이라는 말이 있었음. 소록도에서의 해부가 유명하여 전남대의대에서 견학을 정도였음. (이상 강선봉 면담내용).
- 정착촌에서 근무할 때 맹장수술하여 4명 살린 적 있음. 당시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각하여, 외부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한센병 뿐 만 아니라 일반 질병 등은 정착촌에서 의강 출신들이 치료나 수술을 감당함.(강선봉 면담 내용)
- 의사로서의 자아정체성을 갖기도 함: 의사처럼 가운입고, 수술복입음. (강선봉 면담)
- 상황에 적응하여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술: 환자들의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혈이 안되어 거의 죽어가는 사례가 있었음. 이 때 봉합사로 혈관 6개를 묶어서 지혈하고 수술 성공한 경우도 있음(강선봉 면담 내용)
- 한센병의 특성 상 환자 신체에 상처가 많이 발생하는데, 한센인들이 자가치료를 위해 보리밥에 비누를 섞어 상처에 붙이는 경우가 많았음. 상처가 아물면 이것을 버리는데, 쥐가 이것을 먹고 결절 등이 생기는 등, 사람에게서 쥐로 한센병이 전염되기도 함.
- 소록도 혹은 한센병 역사에서 녹산의학강습소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됨;
 - 1950~1960년대 한국 보건의료 현실상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늘 부족하였고, 거기에 더해 한센병환자에 대해서는 편견과 차별로 인한 진료거부 등이 심각하던 때에 녹산의학강습소 체제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 및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에서 한센병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기여함. 실제 1950년대 소록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찰자에 따르면, ‘나병의사(Leprosy Doctors)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병원을 정상적으로 되돌리려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공무원인 의사들은 상황을 바꿀 수 없어 한쪽으로 비켜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한센병박물관, 내부자료, 2021.1.16.)
 - 한센환자에게 의강 출신은 동환(同患)으로서, 자신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존재였고, 실제, 의강 출신들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성심성의껏 진료에 나서 환자들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의료인력이었음.
 - 의강 출신들은 환자처지입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자기개발의 기회를 갖게 되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까지 보존된 청진기, 해부학, 그리고 수료증은 한센역사에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망각되지 않고 기억되어야 할 귀중한 유물이라 할 수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청진기는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고무 호스도 전혀 갈라지지 않은 상태이고, 플라스틱 부분도 깨끗하고 완전함.
- 해부학의 부제는 골(骨), 인대(靭帶)로 되어 있어 근골격계에 관한 내용임을 보여줌. 하단에 영문 필기체로 yang dong seng이 적혀있고, 타원형 막도장 형식으로 梁銅承이라 새겨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존이 잘 된 것으로 보임. 마지막 표지는 다소 훼손된 상태이나 서지사항이 수록된 페이지는 보존되어 있어 내용상 권권이 보존되었음.
- 수료증 2매 모두 보존상태가 좋음. 강선봉의 수료증은 위아래가 약간 작은 액자 속에 보관된 듯, 색바랜 정도에 차이가 있고, 상단과 하단에 침수 흔적이 있으나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이상없음. 김영철의 수료증은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이들 유물들은 2016년 5월 17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문을 연 한센병박물관 수장고에 보존되어 있는 바, 향온, 향습 등 보존환경이 완벽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이들 유물들은 역사학을 위한 연구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임: 한국현대사, 한국의학사, 한국한센병사, 사회사, 사회복지사 등

6) 등록가치의견

- [청진기] 역사성 측면에서, 이 청진기는 1952년 8월 14일 제1기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생 16명에게 기념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 이상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각별한 바, 첫째, 제2기 부터는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소록도에서 환자 사망 시 의강출신이 반드시 ‘청진기’를 들고 사망진단을 해야만, 그 다음 장례절차에 따라 화장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죽음 이후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한국인의 심성에 비추어보았을 때 중요한 상징성을 가졌다는 점. 희소성 측면에서 1952년 8월 14일 제1기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생 16명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한 청진기는 그 사이에 대부분 망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그 희소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서 등록가치가 높음.
- [해부학] 역사성 측면에서 이 책자는 일본의료진들이 남겨놓고 간 의학서나 소록도 근무 한국인 의사들이 보았던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전문필경사(‘등사자 G K H’로 표기되어 있음)가 내용을 쓰고, 그리는 과정을 거쳐 등사 및 제본을 거친 책자 형태로서, 변변한 의학교과서가 없던 시절의 의학교육서로서 의미를 가짐.
- 희소성 측면에서도 이러한 책자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 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희귀성도 높다고 평가됨.



- [수료증] 역사적 측면에서 녹산의학강습소의 수료증서는 환자로서 기초적인 의학 강습을 받은 사실을 증빙하는 귀중한 증명서로서, 사회적으로는 보건의료 전문직들에 대한 자격제도가 성립되기 전에 비록 일부 시설에서만 제한적으로 통용되었지만, 의료자격을 위한 증명서로서 그 의미가 큼. 특히 8기까지 교육과정이 이루어진 후,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큼. 회소성 측면에서는 아직 생존해 있는 의학강습소 수료생들은 이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회소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을 것임.

7)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관련 :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자세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는 포함되어야 할 것임: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제1기생에게 기념으로 준 청진기,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해부학 교재,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증.

<○○○○○ ○○ ○○○>

1) 개요

- <고흥 소록도 한센인 유물>은 크게 두 가지 역사적 사건과 기관에 관한 유물임. 하나는 해방 후 소록도 한센인 자치활동을 보여 주는 4.6사건에 관한 유물이며 다른 하나는 소록도만의 독특한 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센인이 의료인으로 양성되었던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임.
-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는 한국과 소록도 만의 독특한 제도로써 해방 후 의료인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환자들을 훈련시켜 다른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인력으로 양성하는 의학교육기관이었음. 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실시한 사례는 소록도와 유사하게 한센인을 대규모로 격리시켰던 필리핀이나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 의학교육제도 상에서도 독특한 기관이라 할 수 있음. 1949년 김상태 원장에 의해 처음 개설된 본 강습소는 처음에는 3년, 이후에는 2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총 7회에 걸쳐 212명의 의료인력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됨. 이후 1961년 최재위 원장에 의해 폐교되었음.
- 이들은 중졸 이상 학력을 갖춘 한센병 환자로서 영어, 국어, 한문, 산수 등 일반 상식을 시험 본을 치른 후 입학할 허락하였음. 처음에는 남성들만 입학하였으나 6기부터는 여성들도 입학하였다고 함.

- 생리학, 해부학 등 기초교과목과 외과학, 이비인후과학, 내과학 등 임상교과목이 함께 교과과정으로 짜여져 있어 일반적인 일제 시대 의학강습소 수준과 유사하다고 생각됨. 일반적인 당시 보조의료인력 양성 수준보다 훨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되며 절단수술이나 맹장수술 등 주요한 수술과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짐. 이들의 활동을 통해 당시 소록도 내 부족한 의료인력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메워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이들은 소록도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타 요양소나 나병환자 정착마을에서 근무하기도 하였고 주변 마을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기도 하면서 유능한 의료인력으로 인정받았음. 1960년대 말 면허 제도가 정비되기 이전까지 이들의 진료 활동 또한 많았던 것으로 보임.
- 의학교육의 역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소록도 환자 자치의 측면에서도 녹산의학강습소의 의미는 적지 않았음. 의학강습소를 졸업한 환자들은 임상 각 과와 각 마을 치료실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을 뿐더러 다른 의료인들보다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자부심이 강했음. 비록 정식 면허를 얻지는 못했지만 환자들로서는 의학강습소에서 의료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많이 지원하였고 소록도로 전원한 경우도 많았음. 또한 환자들은 의사들에게서 얻기 부족했던 돌봄의 기회를 동료 한센인 의료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음.
-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은 의학의 대상으로 머무르는 것 만이 아니라 의학의 주체가 되어 지식을 익히고 연마하고자 한 한센인들의 열망이 담겨져 있다는 점, 그러한 열망을 바탕으로 소록도 내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한센인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 등에서 근현대 의료사회사에서 중요한 유물이라고 평가됨.

2) 주요 내용 및 특징

(1) 청진기



- 본 청진기는 소록도한센병박물관 소장 유물로서 1952년 졸업한 녹산의학강습소 제1회 졸업생 김주형이 2015년 5월 21일에 기증한 것임. 김주형은 여수에양원 입원 중 손양원 목사의 소개로 녹산의학강습소에 입학한 후 1950년대 말까지 환자 진료에 종사하였으며 이후 강원도로 이주하여 대한나관리협회(현 한센복지협회 강원지부)에 근무하였음.
- 청진기를 기증 받은 강선봉(녹산의학강습소 제6기)의 증언에 따르면 김주형은 이 청진기로 소록도 내에 의료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음. 청진기는 강습소 졸업 때 졸업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함.
- 길이 83cm, 보관 상태가 양호함.

- 양귀형 청진기이며 재료는 고무와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것임. 벨 부분과 귀마개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당시에 흔한 유형이었음. 상표로 'The Idealth'라 칭해져 있음.

(2) 『해부학(解剖學)-골(骨), 인대(靱帶)편』 교재

	
『해부학(解剖學)』 교재 표지	『해부학(解剖學)』 교재 목차
	
『해부학(解剖學)』 교재 삽화	『해부학(解剖學)』 교재 뒷면

- 『해부학(解剖學)』 교재는 소록도한센병박물관 소장 유물로서 고서·희귀서적 판매처(장서각문고)에 매물로 올라온 것을 구입하였음. 원 소유자 양동승(梁銅承)은 녹산의학강습소 제5기 졸업생으로서 대한나관리협회(현 한센복지협회 광주전남지부)에 근무한 바 있음. 교재에 양동승의 성명과 인감이 찍혀 있음. 규격 19*27cm
- 표지에 녹산의학강습소 제5기생용(鹿山醫學講習所第V期生用)(X는 V의 오기로 보임)이라고 적혀 있어 제10기생용으로 만든 해부학 교재이며, 등사된 것임. 골(骨), 인대(靱帶)라고 적혀 있어 근육, 장기 등 다른 해부 부위별 교재가 따로

있었을 것으로 여겨짐.

- 해부학 용어와 신체부위, 골학총론, 골학각론, 두골, 사지골, 인대학으로 목차가 구성되어 일반적인 골학 교재와 유사한 순서이며 인체부위와 골, 인대 부위가 삽화로 정리되어 있어 각 부위의 모양과 명칭을 익힐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맨 마지막에 녹산의학강습소의 교표로 여겨지는 포셉 가위 모양의 '의학' 그림이 적혀 있음. 발간사-녹산의학강습소, 연월일-1956년 8월, 등사인 GKH로 기록되어 있어 제작년월일, 장소, 등사인을 확인할 수 있음.
- 교재 표지 종이를 다른 잡지 내지를 활용하여 만들었으며 종이 질이 좋지 않음.

(3)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증 2점

	
강선봉 선생님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증	김영설 선생님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증

- 수료증 2점은 녹산의학강습소 제6기 졸업생 강선봉(姜善奉, 1960년 졸업), 녹산의학강습소 제7기 졸업생 김영설(金永設, 1961년 졸업)의 녹산의학강습소 수료증임. 수료증은 각각 국립소록도병원부속 녹산의학강습소 소장인 차윤근(車潤根)과 최재위(崔在緯)의 명의로 발행되어 있음. 제151호(강선봉), 제173호(김영설)로 번호가 매겨져 있어 수료 순서를 확인할 수 있음. 졸업학생의 생년월일, 본적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음. 녹산의학강습소 직인을 통해 문서의 공식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본 수료증의 주인인 강선봉은 1939년 경남 출생으로 녹산초등학교, 녹산중학교를 졸업한 후 녹산의학강습소를 졸업한 소록도 인입. 1962년 소록도를 떠나 정착촌 등에서 의료활동을 함. 김영설은 1935년 함남 출생으로 1961년 의학강습소를 졸업한 후 대구에라원 의료부에 총 책임자로 근무함.
- 강선봉 선생님 수료증 보관 상태는 김영설 선생님의 수료증보다 종이 질이 좋지 않아 바래져 있고 일부 접혀 있는 상태로 보관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함. 규격은 각각 38.8*26.8cm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함. 특히 청진기의 경우 1950년대 물건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좋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록도한센병박물관에서 개별 비닐에 잘 보존하고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소록도 한센인들의 의료교육에 관하여 한센인 역사에서는 잘 알려져 있었으나 기

7. 「서울 진관사 소장 석가불 괘불도 및 괘불함」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진관사 소장 「서울 진관사 소장 석가불 괘불도 및 괘불함」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1.3.23.)를 거쳐 등록 예고한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 및 괘불함」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진관사 주지(법명 : ○○)
- (2) 심의내용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 및 괘불함	1건 2점	○ 괘불도 (전체) 768×457cm (화면) 720×423cm ○ 괘불함 (길이) 503.2cm, (높이) 43.4cm (너비) 38.0cm 등	1935년	진관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진관사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8.3.7.) : 문화재 등록 신청(서울특별시→문화재청)
 - ('21.2.26.)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1.3.23.)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원안가결'
- (4) 등록예고 : '21.4.5. ~ 5.4.(30일간) *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해당 유물은 조선 후기 불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서양화법 및 사진기법 등을 도입한 근대기 작품으로, 국가무형문화재인 '진관사 수륙재'의 주불화로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등록예고 내용대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존의 의학사나 의학교육사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항임.

- 관련하여 자료와 증언들을 잘 발굴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음. 특히 당시의 커리큘럼과 교육 내용을 다른 의료인력 양성기관과 비교하고 이후 의료조무원 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한센인의 자체적 의료 활동과 자활 노력과 연결하여 검토함으로써 격리 및 통제 정책 속에서 한센인들의 자구적 노력을 평가하고 근현대 환자사의 주요한 역사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한센인 생활 관련 기 등록 문화재로 한센인들이 스스로 제작한 생활용품 <고흥 소록도 한센인 생활 유품>이 있으나 교육을 통한 자활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 유물의 가치가 크다고 보임.
- 근대의학교육 관련 문화재로 2016년에 문화재로 지정된 간호교과서 만이 있음. 본 유물은 소록도 한센인 대상 의학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조명될 필요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본 유물은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라는 국내 한센인의 독특한 의학교육제도와 소록도인들의 자활 노력이 결합된 유물로서 가치가 있음. 진술하였다시피 녹산의학강습소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의학교육제도임.
- 청진기는 의료인이 된 환자들이 환자 대상 진료에 사용한 도구로서 공동체적 의미가 있으며, 해부학 교재와 수료증은 녹산의학강습소의 실재를 보여주는 문서로서 가치가 크다고 보임. 녹산의학강습소의 교육 내용과 수료생들의 시술 범위를 좀더 발굴하고 다른 의학 교육 기관과 체계적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들에게 의학 교육과 의료인으로서의 활동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8)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관련 유물>로 정리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1.2.26.)

- 진관사 소장 괘불도는 족자형식이며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보살을 배치하고 그 뒤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배치한 오존도(五尊圖) 형식의 대형 불화임. 해당 유물은 전통적 도상을 계승하면서도 입체감, 공간감 등 근대기의 새로운 조형언어를 반영한 점에 주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또한 화기를 통해 제작연도와 제작자, 주문자, 시주자 등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진정성이 있음. 괘불함 역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괘불도의 화기처럼 제작연도, 제작자, 시주자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등록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21.2.26.)

- 진관사 괘불도는 1935년 퇴운일섭의 주도 하에 존상 구성과 도상에 있어 조선 후기 불화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전체 화면 구도와 포치, 존상 표현에 있어서는 서양화법이나 사진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공간감과 입체감을 살린 새로운 기법 등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수준 높은 불화로 등록 가치가 충분한 유물임. 괘불함 또한 동시기 일괄 유물로 함께 등록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21.2.26.)

- 진관사 괘불도는 1935년에 제작된 야외의식용 대형 불화로, 석가삼존과 가섭, 아난 총 5위로 구성된 형식을 지닌 유물임. 근대기 시기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며, 특정한 안료와 적극적인 서양화법인명암법에 의한 입체감의 표현과 그림자 표현을 통한 실재감의 구현을 잘 보여주고 있음. 또한 제작인연과 제작자, 제작상황이 분명한 작품으로, 당시의 큰 스님인 만공월면이 증명으로 참여하고 근현대기 새로운 화풍을 추구한 대표적 화승 5인이 참여한 시기성 짙은 작품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 및 괘불함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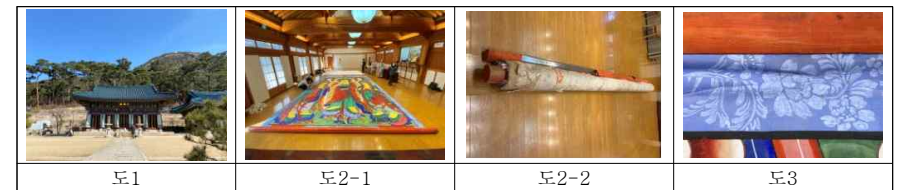
3. 소유자 : 진관사

4. 조사자 의견('21.2.26.)

<문화재위원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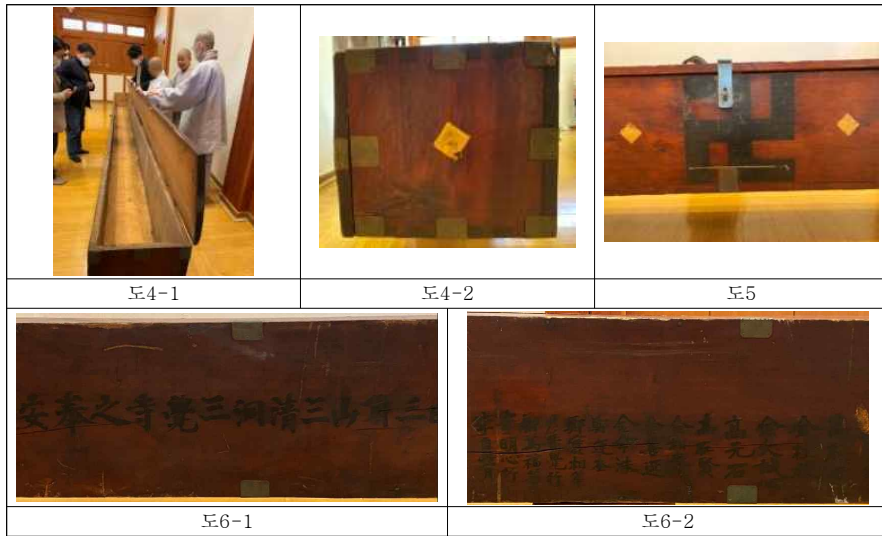
- 가) 괘불도: 서울 진관사(도 1)가 소장하고 있는 괘불도는 족자형식이며 본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협시보살을 배치하고 그 뒤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배치한 오존도(五尊圖) 형식의 대형 불화임.(도 2) 정중앙에 정면관으로 서 있는 본존은 왼손을 아래로 내리고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들고 있는 석가불의 설법 자세를 취하고 있음. 좌우협시보살상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본존불을 향해 합장하고 있으며 그 뒤쪽으로 본존의 광배 좌우에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역시 본존불을 향해 합장하고 있음. 하단의 좌우에는 붉은색 바닥에 목서의 화기가 있음. 장황은 별도의 다른 천을 덧대어 처리하지 않고 괘불과 같은 바닥 천이며 검은색 경계선을 둘러서 시각적으로 본 그림과 구분하였고 푸른 바탕에 흰색으로 당초문양을 그려 장식했음.(도 3)
- 나)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실외에서 사용해온 유물인 만큼 자연 손상이 발생하였음. 특히 향좌측의 화면의 손상이 심한 편인데, 지지체의 바탕천과 후배지가 들떠 어긋나면서 표면에 주름이 발생하였고 안료가 부분적으로 벗겨졌음.



- 나) 괘불함: 괘불도를 보관하기 위한 나무함으로 표면에 옷칠이 되어있음. 상판 전체를 열어 괘불도를 넣고 꺼낼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각 모서리에 장식이 달려 있음.1)(도 4) 함의 전면에는 '근(탄)'을 중심으로 梵字(법자)와 마름모꼴 금박이 장식되어 있음(도 5). 함의 밑면(바깥쪽)에 제작연도, 주문자, 시주자 등이 기록된 목서가 있음.(도 6)

1) '괘불함' 대신에 '괘불궤'라는 용어 사용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데, 전통 목가구에서 '궤'는 상판이 반만 열리는 형식이며 '함'은 상판 전체가 하나의 문으로 열고 닫히는 구조의 가구이기 때문에 진관사의 경우는 '괘불함'이 적합한 용어로 판단됨.

- 보존 상태가 전체적으로 양호하며 결구의 뒤뜰림 등이 보이지 않음. 자물쇠와 경첩의 일부는 사용하면서 교체한 것으로 판단됨.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기록(화기)

- 본 괘불도 하단에는 붉은 바탕에 묵서의 화기가 2건이 있음. 향우측 화기에 따르면,²⁾ 이 괘불도는 佛紀 2962년 즉 1935년 4월 8일에 보응문성, 퇴운일섭³⁾, 송과영순, 우일, 병희가 함께 제작하였으며, 이 괘불도 조성을 주도한 화주는 혜운경상이며 증명으로 만공월면, 초월을 모셨음. 지주질(施主秩)에는 상당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형필과 그의 자부 및 아들, 손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 향좌측 화기의 마지막에 본 괘불도를 진관사에 시주한 것으로 알려진 이선 덕화(李善 德華)의 집 주소와 가족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⁴⁾
- 괘불함 바닥에는 “世尊降化二千九百六十二年乙亥四月三角山三清洞三覺寺之奉安也 (세존강화이천구백육십이년을해사월삼각산삼청동삼각사지봉안야)”라는 묵서가 있어서 이 괘불도는 삼각산 삼청동 삼각사(三覺寺)에 1935년 4월에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 묵서에는 이어서 혜운의 화주로 괘불도와 다른 시주자들이 괘불함 조성에 동참하였음을 밝히고 있음.⁵⁾

2) 佛紀二千九百六十二年乙亥四月初八日 證明比丘 滿空月面 初月 會主比丘慧雲慶相 誦呪比丘荷翁範頌 持殿比丘荷翁範頌 片手比丘普應文性 金魚比丘退耘日變 松坡永順 又一 秉熙 鍾頭 永文 供司 錦泉 別供 沈氏 都監 性浩 化主比丘慧雲慶相 施主秩 淸信士甲戌生劉觀我士 淸信女乙酉生朴大慈行 淸信女丁巳生金大願心 淸信女甲申生閔成佛心 長子丙午生全鑿弼 子婦 乙巳生金氏 孫子己巳生全景雨 次孫甲戌生全承雨 孫女庚午生全明雨 淸信女壬戌生朴大願行 坤禽 庚辰生金貞植 信女 甲申生安智慧月 長子壬寅生崔正源 子婦壬寅生郭忠順 孫子 癸亥生崔相益 孫女甲子生崔相順 信女戊寅生金淸淨性子婦 辛丑生李氏 孫子壬戌生李世龍 乾倉庚寅生羅慶石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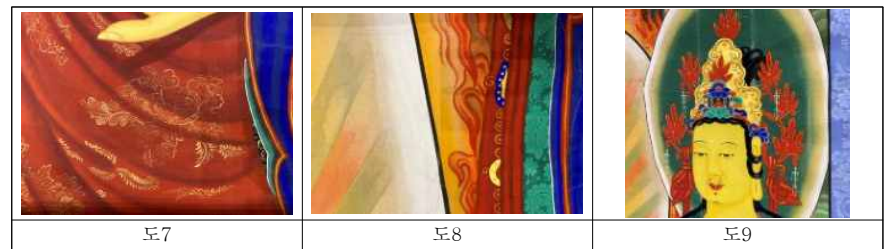
3) 퇴운일섭(1900-1975)의 『연보』에 따르면, 36세때인 1935년 3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혜운의 의뢰로 김보용, 지송파, 김우일, 안병문과 함께 서울 안양암에서 삼청동 삼각사 괘불도를 제작했음. (三十六載乙亥昭和十年 三月三日發至四月六日京城府昌新町安養庵畫所中京三清洞三覺寺 慧雲托掛佛畫 時畫員 金報應 地松坡 金又日 安秉文 同) 이 기록을 통해 진관사 괘불도 조성에 약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제작자의 이름이 화기와 약간 다른 것은 화기의 오류로 판단됨.

4)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一三三호 十九洞四반 乾命癸丑生 金峪玉 坤命丁巳生 李善 德華 長子戊寅生 金承泰 子부계미생 이인수 손자병오생 김현수 손자무신생 현규 손자경술생 현욱

- 따라서 이 괘불도는 괘불함과 함께 서울 삼각사에 봉안되었다가 이후 이선덕화의 시주로 진관사에서 소장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나) 특징

- 도상
 - 화면 중앙에는 본존불은 왼손은 아래로 내리고 오른손을 가슴 높이로 올려 설법인을 하고 있으며 좌우 협시보살상은 합장을 하고 있고 나이가 든 가섭존자와 젊은 아난존자가 불보살상의 뒤편에서 합장인을 하고 있음. 지물을 들고 있지 않아서 존명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 후기에는 三身佛(삼신불), 三世佛(삼세불), 석가불, 미륵불 등을 主尊佛(주존불)로 한 괘불도가 유행하였는데, 특히 19세기 후반에는 축지인 수인의 석가불과 설법인의 아미타불이 중첩된 주불이 등장하였음. 진관사 괘불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제작된 석가불 괘불도로 볼 수 있음.
- 조형적 특징
 - 진관사 괘불도는 존상 구성이나 도상적 특징은 19세기 후반의 괘불도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세부 표현에서는 서양화법이 가미되어 있음. 특히 존상의 옷주름 표현에서 윤곽선을 사용하지 않고 엷은 물감을 반복적으로 덧발라서 입체감 표현을 시도했으며 본존의 손의 표현에서 그림자를 그려 넣거나 협시보살의 머리카락 등에 하이라이트를 처리하여 자연 광선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구현했음. (도 7, 8, 9) 광선에 대한 인식은 본존불의 광배 처리에서도 드러나며,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광배 뒤로 엷은 먹 처리(바림 기법)로 화면에 공간감을 표현하고 있어서 근대기에는 서양화 기법이 불화 제작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
 - 진관사 괘불도는 색채가 전반적으로 매우 화려하고 선명할 뿐만 아니라 본존의 광배에는 전통불화 표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물감의 번짐 효과를 사용하여 일반 회화적 느낌을 살리고 있음.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은 새로운 안료를 도입했음을 의미하며 추후에 안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요구됨.



3) 원형 보존 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 괘불도와 괘불함 모두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괘불도는 지지체가 바탕칠과 후배지가 들뜬 상태이며 괘불도를 맡아서 보관함으로 인해 지속적인 표면 손상이 일어나고 있음. 괘불함은 사용으로 인한 판재의 자연 마모가 보이며 자물쇠와 경첩의 일부가 교체된 것으로 보임.

5) 世尊降化二千九百六十二年乙亥四月三角山三清洞三覺寺之奉安也 …… 坤命黃氏 吳信實 金萬法華 化主慧雲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패불도의 지지체의 보수 및 화면 안료의 안정화가 필요함. 단, 안료 안정화 이전에 안료의 과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현재 진관사 패불도는 매년 수륙제 의식에서 외부에 걸어두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됨. 따라서 날씨를 충분히 고려함을 물론 자연 광선 아래에 걸어두는 시간을 제한할 것을 권함.

5) 등록 가치 의견

- 진관사 패불도는 화기를 통해 제작연도와 제작자, 주문자, 시주자 등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진정성이 있음. 진관사 패불도에는 전통적 도상을 계승하면서도 입체감, 공간감 등, 근대기의 새로운 조형언어를 반영한 점에 주목할 수 있으며, 금어 퇴운일섭은 1920-50년 사이에 적잖은 불화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전수 조사가 필요하지만, 진관사 패불도는 규모, 보존상태, 조형적 특징이 지닌 시대성 등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음. 패불도 뿐 아니라 패불함 역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패불도의 화기처럼 제작연도, 제작자, 시주자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 지정할 필요가 있음.

6)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재의 명칭은 ‘서울 진관사 패불도 및 패불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상의 구성상으로 본존이 석가불로 추정할 수 있지만, 도상적으로 특정할만한 지물이 없고 기록적으로도 존상의 명칭을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불화 명칭을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소속을 ‘서울 진관사’로 밝히는 이유는 이 패불을 제작할 당시에는 서울 삼각사에 봉안되었지만, 이후에 유출되어 현재 진관사에 기증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1977년부터 시작된 ‘진관사 수륙제(현재 국가무형문화제)’에서 사용하는 주불화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참고문헌

- 정명희, 「조선후기 패불탱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42·243(한국미술사학회, 2004), pp. 159-195.
- 최엽, 「근대기 불교계와 불화의 제작」, 『동양미술사학』 13(동양미술사학회, 2012), pp. 269-295.
- 허상호, 「조선후기 명문 패불례 연구」, 『불교미술사학』 28(불교미술사학회, 2019), pp. 757-792.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진관사 패불도는 1935년에 보응문성, 퇴경일섭 등 근현대를 대표하는 화승들이 조성하였음. 진관사 패불도는 1977년 이래 진관사에서 거행하고 있는 진관사 수륙제(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의 주불화로서 의식 상단(上壇) 중앙에 걸림. 의식이 없는 평상시에는 패불함(1935년)에 보관함.
- 진관사 패불도는 장황 방식과 존상 구성에 있어 조선후기 불화 형식을 계승하면서 근대 화승들이 탐구했던 새로운 시각 표현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음. 존상 얼굴과 신체, 옷주름 등에 빛을 인식한 명암법을 사용하여 그림자를 표현하였고 사진기법에 착안해 문양을 묘사하였음. 또한 화면에 하늘 표현을 강조하며 존상 광배 주변에 먹색바림을 주어 공간감과 입체성을 살린 표현 등은 근대 화승들이 성취한 전통기법과 서양의 표현기법의 이해와 수준을 보여줌.

- 진관사 패불도를 맡아 보관하는 패불함은 패불도와 함께 1935년에 제작하였음. 패불함은 전통 목가구기법으로 만들어졌고 각 모서리와 뚜껑 연결 지점에는 장식을 달았음. 함 밑면에는 제작시기와 시주자 명단이 적혀 있음. 함 앞면에는 ‘卍’자를 중심으로 범자(梵字)로 ‘옴마니반메훴’이 적혀 있고 마름모꼴 금박을 붙여 장식하였음. 금박 장식은 19세기 후반 경기도 사찰의 불단(佛壇: 부처 및 보살상을 모신 단상)에 사용한 장식기법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 기록

- 진관사 패불도는 불기2962년 즉 1935년 4월 8일에 보응문성, 퇴운일섭, 송파영순 등의 화승들이 참여해 제작하였다. 진관사 패불도 조성을 주도한 회주이자 화주는 혜운경상이며 증명으로 당대 선지식인 만공월면, 초월스님이 모셔졌음. 패불도 조성에는 많은 시주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이 가운데 주요 시주자로 전형필 일가가 확인됨. 좌측 마지막에는 1970년대 진관사에 패불도를 기증한 이선덕화 일가가 기증 시주절에 연달아 추가해 기록되어 있음.

[화기 1(좌측)]

佛紀二千九百六十二年乙亥四月初八日 證明比丘 滿空月面 初月 會主比丘慧雲慶相 誦呪比丘荷翁範碩 持殿比丘荷翁範碩 片手比丘普應文性 金魚比丘退耘日變 松坡永順 又一 秉熙 鍾頭 永文 供司 錦泉 別供 沈氏 都監 性浩 化主比丘慧雲慶相 施主秩 清信士甲戌生劉觀我士 清信女乙酉生朴大慈行 清信女丁巳生金大願心 清信女甲申生閔成佛心 長子丙午生全鑿弼 子婦 乙巳生金氏 孫子己巳生全景雨 次孫甲戌生全承雨 孫女庚午生全明雨 清信女壬戌生朴大願行 坤禽 庚辰生金貞植 信女 甲申生安智慧月 長子壬寅生崔正源 子婦壬寅生郭忠順 孫子 癸亥生崔相益 孫女甲子生崔相順 信女戊寅生金清淨性子婦 辛丑生李氏 孫子壬戌生李世龍 乾禽庚寅生羅慶石 이하 생략...

[화기 2(우측)]

이상 생략...서울시강남구는현동一三三호 十九통四반 乾命癸丑生 金峪玉 坤命丁巳生 李善 德華 長子 戊寅生 金承泰 자부계미생 이인수 손자병오생 김현수 손자무신생 현규 손자경술생 현욱

- 진관사 패불도는 삼각산 삼각사(三覺寺) 패불도로 조성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기록은 패불도를 보관하는 패불함 밑면에 적혀 있음. 패불함은 패불도와 같은 1935년 4월에 제작되었고 혜운의 화주로 패불도와 다른 시주자들이 패불함 조성에 동참하였음.

[패불함 목서]

世尊降化二千九百六十二年乙亥四月三角山三覺寺之奉安也 ■主錄 高在浩 金桂俊 金大誠心 高元石...중략...坤命黃氏 吳信實 金萬法華 化主慧雲

- 퇴운일섭의 『연보』에는 36세 되던 1935년에 혜운이 의뢰하여 김보응, 지송파, 김우일, 안병문 등과 함께 3월 3일부터 4월 6일에 서울 안양암에서 삼정동 삼각사 패불도를 조성한 일이 기록되어 있음. 이 기록을 통해 패불도 조성을 이끌었던 수화승은 퇴운일섭이며, 스승인 보응문성을 모시고 동료 화승인 송파영순 그리고 제자인 우일, 병문 등과 함께 33일만에 패불도를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음.

[年譜]

三十六歲乙亥昭和十年 三月三日發至四月六日京城府昌新町安養庵畫所中京三清洞三覺寺 慧雲托掛佛畫 時畫員 金報應 地松坡 金又日 安秉文 同

○ 현상과 주제

- 진관사 괘불도의 전체크기는 세로 768cm, 가로 457cm이다. 족자형으로 장황되어 있으며, 반달형 상측에는 2개의 고리가 박혀있음. 화면 가장자리는 푸른 바탕에 흰 모란당초가 화려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는 장황 가장자리 꾸미개천을 그림으로 그리는 불화 특유의 표현법임. 괘불도 뒷면에는 주서(朱書: 붉은 글씨)로 복장(腹藏)과 점안(點眼)을 의미하는 다라니(陀羅尼)와 범자를 적었음.
- 진관사 괘불도의 화면 크기는 세로 720cm, 가로 423cm이다. 화면 중앙에 그려진 여래는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올려 설법인을 하고, 좌우 협시보살은 합장을 하고 있는데 보관이나 손에 특정 지물을 그리지 않아 존명을 알 수 없음. 화면에서 존명이 파악되는 존상은 노비구인 가섭존자와 젊은비구인 아난존자일 뿐임.
- 조선후기에 괘불도는 18세기를 기점으로 축지인을 한 석가불을 주존으로 하는 형식이 유행하였으며, 간혹 오른손에 꽃을 든 석가불 즉, 염화불이 표현되었음. 19세기 후반에는 축지인 혹은 염화불 수인의 석가불과 설법인의 아미타불이 중첩된 주불이 등장하였고, 이와 맞물려 좌우 협시보살도 문수보살·보현보살, 관음보살·대세지보살이 중첩되거나 존명이 불분명하게 특정 도상을 생략하는 경향이 생겨났음. 이런 경향은 화기에도 반영되어 영산회(靈山會)와 같은 정확한 불화명을 적기보다는 괘불탱, 괘불화, 괘불 혹은 상단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음. 진관사 괘불도에서 나타나는 설법인을 한 주불과 도상이 명확하지 않은 협시보살의 표현도 이러한 경향의 연장선상임.

○ 표현과 특징

- 진관사 괘불도는 존상 구성과 도상에 있어 19세기 후반의 괘불도를 계승하는 한편 전체 화면 구도와 포치, 존상 표현에 있어서는 서양화법이나 사진기법을 기반으로 해 공간감과 입체감을 살린 새로운 기법 등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음.
- 먼저 구성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괘불도에서 삼존, 오존 등의 존상을 화면 가득 채우는 구성에서 벗어나 화면 상단의 하늘 부분을 확장시키고 여래와 좌우 협시의 배치 간격을 넓혀 여래의 오색광배가 화면에서 드러나게 하였음.
- 확장된 하늘 부분은 여래에서 퍼져 나오는 서기와 구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 기존 불화에서 구름은 매우 도식적이고 평면적으로 표현되지만 진관사 괘불도에서는 이 부분의 공간감을 살리기 위해 전통적인 구름 표현뿐만 아니라 경계선을 몽환적으로 처리한 구름 표현이 혼용되고 있음. 이렇게 표현된 구름과 서기는 여래의 광배, 가섭존자와 아난존자 광배 뒤로 길게 바림한 먹색과 조화를 이루어 시각적으로 화면에 깊이감을 더함.
- 깊이 있는 하늘 표현은 여래 광배에 표현된 일본식 화염 표현과 바림기법을 이용해 채색된 적색·녹색·황색의 오색광배와 대비를 이루며 다른 괘불도에 비해 화면에서 작게 그려진 여래의 존재감을 화면 전면에 부각시키는 효과를 줌.
- 진관사 괘불도에서 가장 주목되는 표현은 빛에 대한 인식과 이를 반영한 사실적 명암표현과 그림자 표현임. 불화에서 명암법은 19세기 말부터 사용되었다. 진관사 괘불도에서는 이전에 조성된 불화에서 보다 발전된 명암법이 시연되었음. 여래의 눈, 코, 입술 등에는 한층 발전된 명암법이 사용되었고 코의 표현에는 윤곽선 위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사실성을 높였음. 사실성에 기반한 얼굴의 입체적인 표현은 협시보살에서도 나타나며, 특히 가섭존자와 아난존자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음.

- 진관사 괘불도를 조성한 화승들의 빛에 대한 인식, 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의지는 여래의 수인에 그림자를 표현한 점에서 명확해짐. 수인은 부처의 상호와 함께 불교 도상의 핵심임. 진관사 괘불도에서는 15도에서 비추는 빛을 의식하듯 설법인을 한 오른손의 그림자를 붉은 법의 위로 먹색 바림을 하여 그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였음.
- 이러한 그림자 표현은 여래의 왼손과 여래의 왼편 가사와 대의 등에서 확인됨. 뿐만 아니라 오른편에 자리한 아난존자는 목 부분에서 사선으로 그림자를 주었음. 이처럼 진관사 괘불도에서 여래의 수인과 법의, 아난의 목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림자는 다른 불화에 적용되었던 서양의 명암법에서 한 단계 진보된 표현이자 당시 화승들의 시도했던 실험 정신을 보여줌.
- 그림자 표현 외에 근대 불화에서 시도되었던 서양의 명암법과 사진기법에 기반한 표현기법이 존상의 복식 등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음. 옷자락과 옷주름의 사용된 명암법외에도 근대 진영에 적용되었던 사진기법을 착안한 명암법과 문양 표현은 1920~40년대 불화에서 시도되었던 새로운 표현들임. 진관사 괘불도에서 화면 하단은 녹색을 칠하고 음영을 주어 연꽃대좌가 대지에서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표현하였음. 이러한 대지의 인식과 표현은 20세기 초 보용문성부터 시도되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진관사 괘불도는 1935년 제작 당시의 화면 상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형 불화에서 나타나는 화면을 지탱하는 상측의 손상과 화면 상단의 바탕천과 후배지의 분리가 뚜렷하게 확인됨. 상측은 현재 가로로 길게 갈라져 있으며 이를 보강하기 위해 금속판을 덧대 보강해 놓은 상태임. 화면은 감고 펴는 반복된 작업으로 인해 화면 전체에 가로 꺾임 현상이 있으며, 바탕천과 후배지가 분리되는 들뜸 현상이 화면 전체에서 확인됨.
- 괘불함은 관재가 고르고 결구의 뒤틀림 등이 보이지 않으며 내부의 상태도 양호함. 다만 괘불함의 자물쇠와 함 뒷면 경첩 일부는 후에 교체한 금속부재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진관사 괘불도에서는 화면을 지탱하는 상측의 약화와 화면에서 바탕천과 후배지의 분리가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됨. 이에 괘불도는 금속을 덧댄 상측과 화면의 안정화를 위한 보존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괘불함은 자물쇠와 경첩을 시대에 맞게 복원해야 함.
- 진관사 괘불도는 해마다 거행되는 국가무형문화재인 수륙재의 상단 불화로 무형유산에서 차지하는 상징성과 위상도 상당함. 따라서 괘불도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존처리와 모사도 제작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진관사에서는 괘불도를 수륙재의 상단 불화로 현래함으로써 불교의식에서 괘불도가 차지하는 위상과 기능, 의미 등을 연구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잘 보여주고 있음. 다만 해마다 거행되는 의식에서 괘불도를 보다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원본과 모사도를 번갈아 사용하기를 권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제와의 가치 비교·검토

- 새로운 문물과 매체, 사상 등이 유입되던 근대에 불화는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시각적 표현이 공존하고 있음. 기존에 등록문화재로 등재된 8점의 패불도 역시 새로운 시대에 지켜야 하는 전통이 무엇이며, 시대를 반영한 새로운 표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여 지정하였음.
- 진관사 패불도가 제작되던 1930년대는 불화를 주문했던 사찰 승려와 이를 제작하는 화승 사이에 불화 고유의 종교적 특징을 지키면서 근대의 새로운 표현과 기법 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자 했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줌. 진관사 패불도 제작을 주도했던 퇴운일섭은 불화 제작에 입문한 이후 1920년부터 1950년 사이에 중국과 일본에서 화보와 사진을 활용한 새로운 도상과 형식의 불화 창출, 전통 표현과 재료에 명암법과 사진기법, 다양한 안료와 아교, 천 등을 접목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하였음. 따라서 퇴운일섭의 불화는 1920년~1950년에 조성된 불화를 중심으로 근대적 의미를 가진 불화를 선별하여 문화재 지정을 검토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1935년에 퇴운일섭의 주도하에 조성된 진관사 패불도는 조선 후기 불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근대에 유입된 명암법, 사진기법만이 아니라 그림자 등 새로운 표현을 뛰어난 기량으로 완성한 수준 높은 불화로 등록 가치가 충분함. 패불도를 보관하는 패불함도 동시기 일괄 유물로 함께 등록할 필요가 있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진관사 패불도의 화기에 불화 명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여래와 협시보살에서 불화명을 뒷받침할만한 도상적 특징이 명확히 표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명칭은 ‘패불도 및 패불함’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진관사 패불도의 원소장처는 삼각사이지만, 독립운동가인 춘성스님의 삼각사를 창건한 의도와 다르게 1943년에 창씨개명한 친일승려가 사찰을 운영한 점, 해방과 한국전쟁 중 친일승려 사찰인 까닭에 삼각사가 폐사에 가깝게 방치된 점, 이 과정 중 외부로 유출된 패불도와 패불함을 신도가 진관사에 기증한 신도 일가가 화기에 기록된 점, 그리고 패불도가 기증된 후 이를 계기로 진관사에서 1977년에 시작된 수록제가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이 패불도가 진관사 수록제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지정명칭은 ‘진관사 패불도 및 패불함’이 적합하다고 판단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이 불화는 1935년에 제작된 야외의식용 대형 불화로 제작당시의 패불함에 보관되어 있음. 석가삼존과 가섭, 아난 총 5위로 구성된 간략한 형식임.
- 패불도의 증명은 만공월면, 회주는 혜운경상, 제작자인 화승은 총 5인이 참여하여 편수는 보응문성이, 금어는 퇴운일섭이 맡아 송파영순(송과정순으로 추정), 우일, 병희(병문으로 추정)이 함께 그림. 이들 5인의 화승들은 명암법을 불화에 자주 사용한 대표적인 화승들임.
- 이 작품은 본래 서울 삼청동 삼각사의 패불도로 제작되었으나 1960년대 후반 경 이선덕화 보살의 시주로 현재는 진관사의 성보로 등록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화기 및 제작상황

- 1935년 일제강점기 제작됨.
- 대형의 야외의식용 불화로 근현대를 대표하는 화승 5인이 참여하여 제작.
- 화면 아래 양쪽에 붉은 칸을 마련하여 기록한 화기를 통해 서울 삼청동 삼각사에서 1935년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추어 제작한 것을 알 수 있음.
- 증명에 당대 큰 스님이자 서예가인 만공월면(1871~1946) 스님이 참여함.
- 패불도의 회주 및 화주, 그리고 패불함의 화주로 혜운경상 스님이 참여하였음. 혜운경상은 서울 삼청동 삼각사의 승려로 이 불사를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진관사 패불도>는 화기를 통해서도 제작 당시 서울 삼청동 삼각사에 봉안되었음이 확인됨. 1960년대 후반 이선덕화 보살의 시주로 진관사에서 소장하게 되었고, 현재는 진관사의 성보로 등록되어 있음.
- 이 불화의 금어로 참여한 퇴운일섭(김일섭, 1900~1975)이 기록한 작업일지(년보)에는 ‘서울 삼청동 삼각사 혜운의 부탁으로 패불을 그렸다’는 내용이 있어 삼각사 승려 혜운경상이 직접 제작의뢰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 ‘3월 3일에서 4월 6일까지’ 한 달여 간 서울 창신동 안양암 화소(講所)에서 김보응(보응문성), 지승과(송과정순), 김우일(우일), 병문(병희)과 함께 제작했음을 기록하여 패불도 화기의 기록과 거의 일치하며, 화기의 ‘병희’는 ‘병문’의 오기였을 것으로 생각됨. 일섭의 이 기록은 패불도의 제작의뢰와 제작기간, 제작장소, 정확한 제작자를 특정할 수 있어 제작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임.(원문: “三月三日發至四月六日京城府昌信町安養庵講所中京三清洞三覺寺 慧雲托掛佛書 時畫員 金普應 池松坡 金又日 安秉文 同”)
- 이 불화에 참여한 5인의 화승은 보응문성이 스승격이며, 퇴운일섭과 병문이 그 제자로 알려져 있음. 김우일은 퇴운일섭의 제자로 알려져 있음. 또 당시 이들 화승들이 다른 불사에서 다른 조합으로 몇 명이 함께 작업한 경우가 있어 사승 관계 혹은 화연관계로 구성된 제작자로 이루어짐.
- 시주자 중 간송 전형필의 가족들이 포함됨.

나) 도상과 화면구성

- 부처와 양 협시보살을 화면 전면에 짙게 배치하고 노승의 모습을 한 가섭과 젊은 승려의 모습을 한 아난 불보살 뒤쪽에 상반신만 표현한 총 5위의 존상들로 구성된 간략한 형식임.
- 설법인을 취한 부처의 모습과 도상만으로는 불보살의 존명을 명확히 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패불 중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한 영산화 패불이 많은 점,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제작한 점, 유사한 구성의 다른 패불들로 미루어볼 때, 이 패불도는 석가모니불과 그 협시인 문수보살·보현보살로 이루어진 석가삼존과 석가의 두 제자를 그린 것으로 추정됨.
- 본존은 지면에서 솟아오른 청연화족자 위에 서 있으며, 붉은색 대의와 흰색이 섞인 청록계열의 군의를 입고 있음. 두광과 신광을 갖추었고 원형의 두광 주위에 화염을 두드러지게 그렸음. 두부(頭部)에는 정상계주와 중간계주를 그리고, 정상계주로부터 오색의 빛줄기가 부채꼴 방향으로 솟아오르고 이와 함께 천공은 피어오르는 구름으로 짙 채움.

- 본존의 왼손은 복부 부근에서 손바닥을 위로 향해 엄지와 중지를 결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가슴께로 들어올려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역시 엄지와 중지를 결하고 있음.
- 문수와 보현으로 추정되는 양 협시보살은 청연화족좌위에 합장한 자세로 중앙의 본존을 향해 서 있음. 세로로 긴 타원형의 두광을 갖추.
- 석가모니의 제자인 노승의 모습을 한 가섭과 젊은 승려의 모습을 한 아난은 불보살의 뒤편에 상반신만 보이게 작게 그려 크기로 위계를 나타내려 하였으며, 중앙의 본존을 향해 합장한 자세임.

다) 표현기법

- 초본의 경우 특히 본존의 상호, 즉 미간이 유독 넓고 방향의 넓직한 얼굴형태 등으로 미루어 보아 1930년대 보응문성이 금어로 참여해 그린 불화와 매우 유사함 (참고도판1). 따라서 초본은 수화승인 보응문성의 초본을 활용하거나 보응문성이 주도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렸을 가능성이 큼.
- 채색과 표현기법에 있어서는 금어인 김일섭의 화풍이 두드러짐. 전체적으로 공을 들여 그린 것으로 보임.
- 전체적으로 명암표현과 그림자 표현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점이 특징적임.
- 전통시대 입체감의 표현은 주로 선묘를 우선으로 하여 바림을 하는 방식이 우세한 것에 반해, 이 불화에서는 윤곽선보다 면적인 붓질을 통해 입체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 하였으며, 옷주름과 구름의 표현에서 이러한 점이 두드러짐. 보살의 머리카락에도 면적 붓질의 하이라이트를 주어 표현함.
- 그림자의 표현도 보다 객관적 표현에 가깝게 하려 시도한 노력이 보임. 광원을 설정하여 그림자의 방향과 모양에서 사실성을 고려한 것이 보이며, 이러한 시도는 불화에서는 매우 희귀한 것임. 과학적 원근법, 빛의 표현에 대한 시도와 이와 같은 화승들의 새로운 시도는 이전 시기 전통 불화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근대기를 통해 유입된 새로운 문물의 영향을 도입해 그리는 근대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임.
- 다만, 바닥 그림자 표현은 19세기 말부터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충청도 화승들의 표현방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 보응문성의 스승인 금호약효와 그 제자들 사이에서 자주 쓰인 지역적 특징을 보이는 기법임. 그림자를 표현하겠다는 인식은 있었으나, 정확한 이해 없이 관습적으로 가로로 거칠게 선을 그어 표현함. 회녹색, 혹은 올리브그린 계열의 바닥색에 같은 계열의 채도가 낮은 색, 혹은 옅은 먹색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 불화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임.
- 불보살의 경우 안면에는 명암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근대기에도 일반적이거나, 이 불화에서는 불보살이 경우도 안면에 명암을 표현하여 입체감을 주었으며, 역시 윤곽선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색변화를 통해 입체감을 표현. 코 밑의 반사광의 표현은 화승들이 서양화법과 입체감 재현방식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줌. 이러한 표현은 퇴운일섭은 물론 보응문성, 송과정순의 불화에서도 자주보이며, 불보살 상호의 명암표현 방식은 보응문성의 작품과 거의 유사함.
- 불보살의 옷에 보이는 문양은 전통불화와는 달리 매우 다양한 새로운 문양들을 사용하였음. 두꺼운 광택있는 비단과 같은 복식 천의 표현을 볼 수 있는데, 먹색, 붉은색, 주황, 녹색 등 기본 색을 입히고 그 위에 두께감 있는 백색이나 황색의 단색 선묘로 묘사한 문양은 실제 근대기 불단을 덮은 천의 질감과 문양 등에서 시각적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어 역시 실재감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추정됨.

- 이러한 표현기법 역시 충청도 지역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들이 두드러지게 사용하였음.
- 코발트블루를 두드러지게 사용한 것은 시기적 특징임.
- 먹선으로 구획한 화면의 바깥쪽은 그림상황으로 하였음. 연청색의 바탕색에 백색으로 물골법의 꽃과 덩굴을 그려 장식하였음.
- 부분적으로 금을 사용함.

라) 패불함

- 목제의 패불함은 패불함에 기록된 목서로 보아 패불도와 같은 해, 같은 달에 제작한 것으로 보임.
- 패불함 바깥쪽에 범자와 만자를 목서로 기재
- 패불함 바깥쪽에 정사각형 모양의 금박을 부착하여 장식한 것은 근대기 사찰의 목제 공예품(불단, 불보살의 대좌)이나 건축 장식에서 자주보이는 시기적 특징임.

<패불도 화기>(밑줄은 조사자 강조)

坤 甲申生趙氏
 佛紀二千九百六十二年乙亥四月初八日
證明比丘 滿空月面
 初月
會主比丘慧雲慶相
 誦呪比丘荷翁範頌
 持殿比丘荷翁範頌
片手比丘普應文性
金魚比丘退耘日燮
 松坡永順
 又一
 秉熙
 鍾頭 永文
 供司 錦泉
 別供 沈氏
 都監 性浩
化主比丘慧雲慶相
 施主秩
 清信士甲戌生劉觀我士
 清信女乙酉生朴大慈行
 清信女丁巳生金大願心
 清信女甲申生閔成佛心
長子 丙午生全鑿弼
子婦 乙巳生金氏
孫子 己巳生全景雨
次孫 甲戌生全承雨
孫女 庚午生全明雨
 清信女壬戌生朴大願行
 坤 庚辰生金貞植
 信女 甲申生安智慧月
 長子 壬寅生崔正源
 子婦 壬寅生郭忠順
 孫子 癸亥生崔相益
 孫女 甲子生崔相順
 信女 戊寅生金清淨性
 子婦 辛丑生李氏
 孫子 壬戌生李世龍
 乾 庚寅生羅慶石

坤 戊子生朴氏
 坤 甲申生趙氏
 長子 己酉生閔龍奎
 孫子 甲戌生閔敬泰
 乾 戊子生安英均
 長子 壬子生安鍾九
 長姪 己酉生安鍾億
 次姪 癸卯生安鍾一
 坤 庚寅生吳氏
 亡兄 海州吳氏
 童女 壬辰生裴榮淑
 信女 生李滿月華
 信女戊寅生 李明心行
 長子癸卯生 尹洪奎
 女息癸亥生 尹清淨行
 孫子戊辰生 尹梁漢
 信女庚申生 李普覺善
 信女丙辰生 李普覺相
 信女乙酉生 尹普覺行
 長子己酉生 李鳳周
 長孫丁卯生 李哲
 信士丙戌生 韓性朱
 信女丁丑生 林道德華
 信女己巳生 李萬德衍
 長子癸巳生 洪基范
 坤 庚寅生 金明漢
 長子辛亥生 白南珠
 乾 壬申生 崔允根
 信女癸未生 洪金池華
 信女丙子生 李正心行
 信女 金順德
 童子甲子生 李普亨
 童子己未生 康禹植
 信女辛巳生 李明月性
 坤 甲午生 崔氏
 長子癸亥生 閔秉學
 女息丙寅生 閔秉姬

信女戊寅生 金大誠心
 信女己卯生 鄭萬福華
 信女甲午生 申光明心
 亡父 平山 申氏
 亡母 全州 李氏
 信女庚子生 金普月光信女辛卯生 梁普日光
 童女辛酉生 金貞淑
 坤 徐南順
 信女乙丑生 金普德行
 信女癸酉生 白白蓮華
 長子己丑生 金應俊
 坤 辛卯生 姜氏
 長子乙丑生 劉洪相
 女息癸亥生 劉美相
 坤 壬午生 金玉貞
 信女甲子生 李法雲行
 信女庚午生 金慧日華
 信女己卯生 李大道華
 信女乙未生 李英姬
 信女乙卯生 黃心德行
 信女辛巳生 洪青蓮華
 乾 乙亥生 李範泰
 坤 甲申生 金氏
 長子己卯生 李啓鍾
 乾 壬寅生 李千應
 乾 金鍾仁
 長子戊午生 金時榮
 坤 丙辰生 崔氏
 乾 庚辰生 具氏
 서울시강남구논현동一三三호 十九통四반
 乾命癸丑生 金嶠玉
 坤命丁巳生 李善德華
 長子戊寅生 金承泰
 자부계미생 이인수
 손자병오생 김현수
 손자무신생 현규
 손자경술생 현욱

<패불함 목서>
 世尊降化二千九百六十二年乙亥四月三角
 山三覺寺之奉安也

■主錄
 高在浩
 金桂俊
 金大誠心
 白白蓮華
 高元石
 高在賢
 金相奉
 金喜延
 金命洙
 鄭蓮奎
 鄭寶相華
 尹普覺行
 鄭萬福華
 李明心行
 李自性月
 金敬俊
 李英鎮
 柳妙善華
 崔妙善華
 崔賢淑
 崔元卿
 金大慈月
 李炳煥
 孫相億
 金安壽
 金昌燁
 坤命洪氏
 坤命黃氏
 吳信實
 金萬法華
 化主慧雲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가) 패불도

- 패불도는 현재 목제의 상하 축이 있고, 그림상황으로 되어 있음. 뒷면에 붉은색의 범자 다라니 기재되어 있음. 상축은 제작 당시부터 2개의 목제를 사용하여 결합한 것으로 보이며, 보강을 위해 목제 접합부분에 길게 금속재를 덧대었음. 보강 금속재는 후대의 것으로 보임.
- 상축에 걸기 위한 금속제 원형 고리가 양쪽에 있으니 원래 자리에서 이동이 있었던 흔적이 있음.
- 화면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고 원형의 보존이 잘되어 있음. 화면 상의 회화적 보수 흔적은 없어 보임.
- 현재 배접부분의 분리현상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으며, 화면이 배접지로부터 떠 말아 보관하면서 가로접힘 현상이 군데군데 보임.

- 군데군데 접힌 부분 중심으로 안료가 떨어지거나 마모된 현상 보임. 현재 안료 중 코발트블루 등 일부 안료는 가루가 묻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접히면서 닿는 면에 안료가 묻어나 추후에도 섬세한 취급보관 요함.
- 군데군데 일정한 굵기로 세로로 길게 안료가 굽힌 흔적 있음.

나) 패불함

- 패불함 모서리 쪽 닳거나 굽인 흔적들 있음.
- 패불함 안쪽 이전의 누수 오염 흔적이 보임.
- 자물쇠 결합 부분은 후대 새로 달았음.
- 금박장식은 결락된 부분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대웅전 불단 뒤에 패불함 자리를 마련하여 보관 중임. 향온습습이 되는 환경은 아님.
- 패불함과 패불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각 측면에 문을 내었음.
- 현재 패불을 맡 때 얇은 중성지를 사용하여 덮어주어 보관.
- 현재의 패불석주와 패불대는 후대 새로 제작한 것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진관사의 패불은 이미 1970년대부터 수륙재에 직접 걸어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현재도 의식에 사용 중임. 진관사는 예로부터 수륙재를 전문으로 시행한 왕실 관련 주요 사찰로, 불교의 주요한 무형유산인 수륙재와 이에 사용되는 패불도를 잘 보존 활용함으로써 종교적 의미 뿐 아니라 총체적 문화유산의 구성요소로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 진관사의 패불은 수륙재 시행사찰인 진관사의 사찰 성격 강조, 무형유산인 수륙재 절차와 그 중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패불 이운 설명,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불보살이 현장에 강림하는 듯한 시각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기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일반 대중들에게도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이 패불도는 간단한 구성이지만, 서양화법을 매우 적극적으로 구사하여 실제감을 부여하려는 제작자의 의도가 확실한 작품으로 시기적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임.
- 이 불화의 제작자 5인은 모두 근현대기 활동한 대표적인 화승들로 그 중 특히 보응문성과 퇴운일섭은 전통시기 불화들과 밀그림이나 표현기법에서 의식적으로 차별화를 둔 불화들을 제작한 두드러지는 성과를 낸 화승들임. 이들은 모두 사승관계와 화연관계로 이어져 있어 서양화법을 적극적 수용한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음.
- 일섭의 본격적인 작품활동은 1920년대 중반 경으로 이 패불도는 그의 작품활동 중 비교적 젊은 시절 제작한 작품으로서도 의미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형의 야외의식용 불화라는 점에서 가치가 큼. 이 작품 이후 일섭은 1938년 현 조계사의 전신인 태고사 대웅전 불화를 송파정순과 함께 제작하였는데, 당시 제작 직후 불교잡지에 바로 소개되어 주목됨.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태고사 대웅전의 불화의 제작자로 참여하여 서양화법을 두드러지게 사용한 불화를 제작한 것은 당대 일섭의 실력과 명성, 그리고 선호되었던 화풍을 짐작케 함. 진관사의 패불은 이처럼 일섭의 화명이 높아져 활발히 활동하던 시절의 작품임.

7) 등록가치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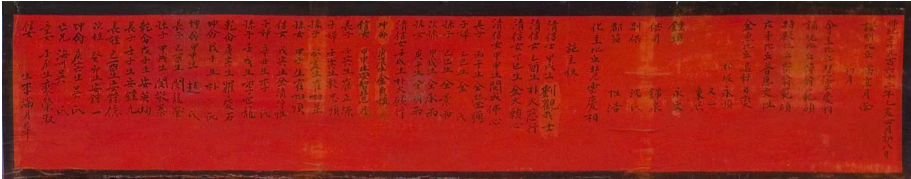
- 이 괘불도는 근대기 시기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며, 특정한 안료와 적극적인 서양화법, 즉 명암법에 의한 입체감의 표현과 그림자 표현을 통한 실재감의 구현을 잘 보여줌. 개별 화승들의 화풍도 보이며, 공들여 제작한 수작임.
- 작품의 제작인연과 제작자, 제작상황이 분명한 작품으로, 당시의 큰 스님인 만공 월면이 증명으로 참여하고 근현대기 새로운 화풍을 추구한 대표적 화승 5인이 참여한 시기성 짙은 작품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음.
- 현재 배접의 분리현상, 화면 접합 현상 등이 진행되고 있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적절한 보수와 보존이 행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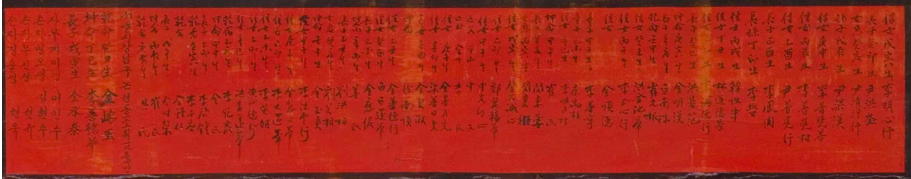
- 1935년 제작당시는 서울 삼청동 삼각사에서 의뢰하여 제작되었으나 현재 문서상으로는 서울 진관사 소유의 성보로 정리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임. 소유권 문제가 확실히 정리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미 1970년대부터 진관사의 불교행사에 사용되어 오기도 하였으므로 <서울 진관사 괘불도 및 괘불함>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함.
- 이 작품이 박물관에 봉안되거나 하였다면 원 봉안처의 명칭을 사용하였겠지만, 현재 진관사의 행사에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유물을 현존하지 않는 사찰의 명칭을 사용하여 규정한다면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단, 원 봉안처로부터의 이동 관련 정보는 이미 오픈되어 있는 정보이므로, 이후 설명문이나 소개자료 등에는 화기 정보와 소장 연유를 명시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함.



서울 홍천사 <감로회도>(1939)의 부분, 보응문성, 명문 참여



향우측 화기



향좌측 화기

*** 사진자료



진관사 소장 석가불 괘불도



괘불도 상속의 접합분과 금속 보강재

괘불도 상속 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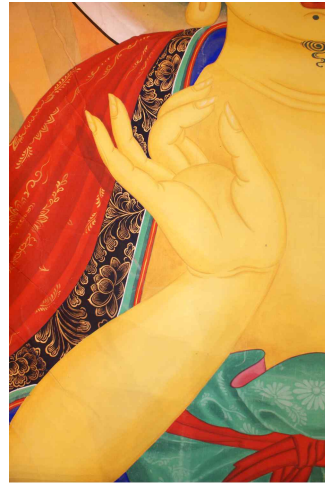
괘불도 가로접힘 부분



괘불도 상축 측면과 베접지 분리진행 상황



본존 상호와 명암 표현



입체감과 그림자 표현

명암법과 그림자 표현



새로운 문양

바닥 표현



래블함



래블함의 상단

안전번호 근대 2021-04-08

8. 「제51회 보스턴마라톤대회 우승메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장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메달」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51회 보스턴마라톤대회 우승메달」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1.3.9.)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4.2.)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제51회 보스턴 마라톤대회 우승메달	1건 1점	○높이 9.8cm ○너비 5.3cm	1947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KSPO DOME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1.3.9.) : 문화재 등록 신청(서울특별시→문화재청)
- ('21.4.2.)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제51회 보스턴마라톤 대회('47.4월)에서의 서윤복 선수의 우승은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정부 수립 이전 'KOREA'를 국제 사회에 인식시켰으며,
- 대한민국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정식회원국으로 가입('47.6월)하는데 초석을 마련하는 등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역사적 인물·사건과 관련된 유물이므로 문화재 명칭 부여 지침*에 따라 우승 당사자인 '서윤복'을 추가하여 '서윤복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우승메달'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 제4조제2항제3호의나호 : **특정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물명 + 유품·유물(명)」으로 하되, 별도의 유물 명칭이 없는 경우 「인물명 + 유품(유물)」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제4호 :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명 + 유물(명)」으로 한다.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1.4.2.)

-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메달'은 서윤복 선수가 광복 이후 1947년 미군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국제대회인 제51회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정 후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하여 받은 메달임. 태극기를 달고 'KOREA' 국명으로 참가해 처음으로 받은 메달이라는 점과 "KOREA"를 국제 사회에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으므로 문화재로 등록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음.

○ ○○○○○○○○ ○○ ○○○('21.4.2.)

-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메달'은 서윤복 선수가 광복 이후 처음으로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후 수여받은 메달임. 그의 우승은 내부적으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외부적으로는 전 세계에 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KOREA(대한민국)를 알리는데 큰 공을 세우고, 대한민국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데 하나의 초석을 마련하였음. 따라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며 받은 해당 우승 메달은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 ○○○○○○○○ ○○ ○○○('21.4.2.)

-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메달'은 1947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서윤복이 처음으로 KOREA와 태극기를 달고 제51회 보스턴마라톤대회 출전해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하며 받은 메달임. KOREA라는 국호를 달고 나가 세계를 제패한 결과물로서, KOREA를 세계에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그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큼. 또한 해방직후 어수선한 사회에서 국민은 물론 해외동포들에게 신생국의 국민으로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귀중한 유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판단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명칭 : 서윤복 제51회 보스턴마라톤대회 우승메달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 1. 명 칭 :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메달
-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KSPO DOME
- 3. 소유자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4. 조사자 의견('21.4.2.)

<문화재위원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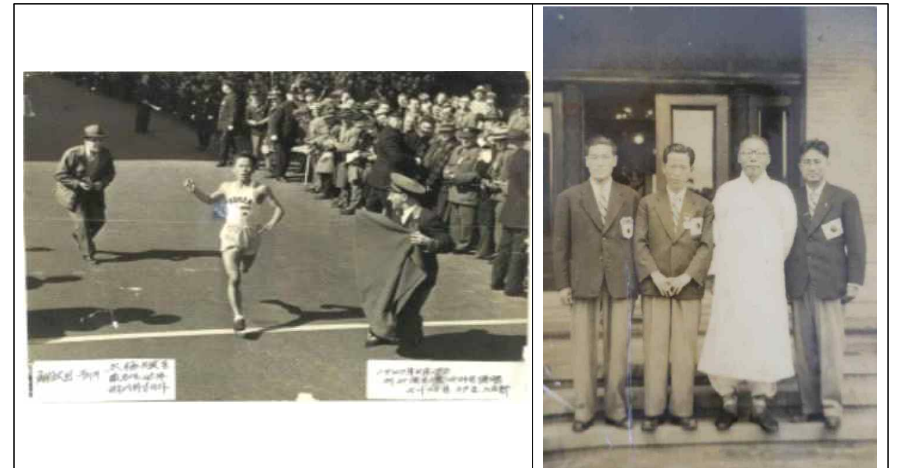
- 서윤복 선수가 광복 이후 1947년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국제대회인 제51회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정해서 태극기를 달고 2시간 25분 39초라는 세계 신기록을 내며 우승하여 받은 메달임.
- 해방 후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미군정 시기의 어려운 여건에 해외의 마라톤에 출정하여 받은 우승 메달로 "KOREA"를 알렸다는 역사적인 의의가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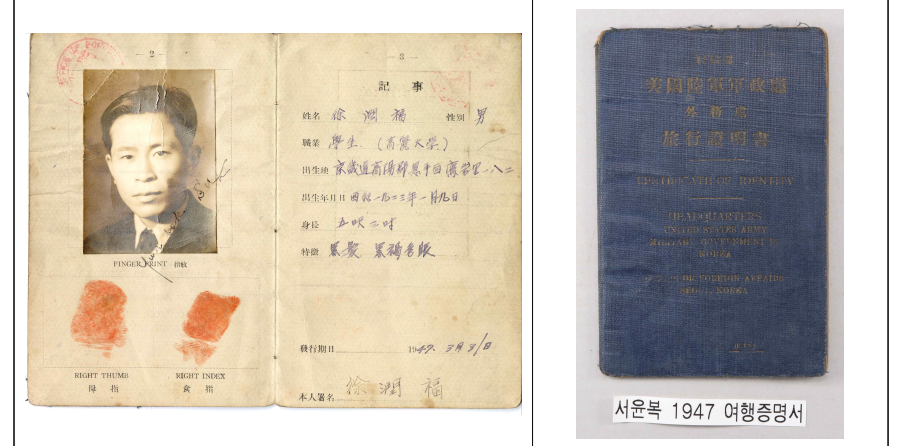
- 1947년 제51회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서윤복(徐潤福, 1923-2017) 선수가 출전해 우승하여 받은 메달임. 서윤복 선수는 이듬해인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첫 올림픽인 런던 올림픽에도 출전했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숭문중고등학교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40년간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 이사, 전무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한 한국 마라톤계의 주요 인물임.
- 메달의 맨 윗부분에는 "AMERICAN MARATHON"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으며, 중앙에는 보스턴 마라톤의 로고가 1947년이라는 연도 표시와 함께 있고, 메달 부분은 가운데의 문장과 그 위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이를 둘러싸고 "BOSTON ATHLETIC ASSOCIATION 1887"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음. 이는 보스턴 마라톤 메달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뒷면을 보면 핀으로 옷에 부착하게 되어 있으며, 메달의 뒷면에는 "1st PRIZE 1947"로 새겨져 있어 1947년의 우승 메달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서 매년 4월 셋째 주 월요일 애국자의 날에 열리는 국제 마라톤 대회로, 1896년에 처음 시작된 그리스 아테네 근대 올림픽을 기념하고자 이듬해인 1897년 보스턴선수협회 주최로 첫 대회가 열렸으며 서윤복 선수가 참가한 1947년이 제51회가 개최되었음. 서윤복은 1947년 4월 19일 2시간 25분 39초로 유력한 우승 후보들을 물리치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으며, 1950년 제54회 대회에서 함기용(2시간32분39초)-송길윤-최윤철이 1,2,3위를 휩쓸었고, 2001년 제105회 대회에서 이봉주가 2시간 09분 42초의 기록으로 우승함.

- 서윤복 선수는 보통학교 5학년 때인 1936년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것을 보고 육상선수의 꿈을 키웠다고 함. 보통학교를 졸업한 다음 해인 1940년에 경성상업실천학교(현 숭문중고등학교) 야간부에 입학해 교내 체육대회의 단축 마라톤(6km)에서 우승하고 육상부에 들어가게 됨. 서윤복을 중심으로 각종 대회에서 육상부가 수상하게 되어 이후 숭문학교는 마라톤 명문으로 나게 됨.
- 서윤복은 1945년 10월 단축마라톤 대회에서 2위, 1945년 12월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에서 우승, 1946년 조선중앙일보사 주최 제1회 조선마라톤 선수권 대회 우승으로 두각을 나타냄. 이후 손기정 선수가 후계자로서 양성하기 위해 훈련시킴.
- 1947년 미군정기로서 미국의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감독 손기정, 코치 남승룡, 선수 서윤복 3명이 미군정청 체육과장 스메들리 여사 및 미군정 당국의 지원과 언더우드 미군정 고문, 교포들의 후원 및 응원으로 태극기와 “KOREA”를 달고 출전해 대회사상 동양인으로서 첫 우승기록이자 대회 신기록을 수립함.

- 기증 유물 가운데에는 런던올림픽 참가 메달, 보스턴 마라톤 서윤복 동상, 보스턴 마라톤 대회 기념 열쇠, 보스턴 마라톤 대회 서윤복 선수 신문 스크랩 액자, 미군정청 공보부 발행 사진 액자, 보스턴 마라톤 대회 사진이 수록된 앨범과 영상 자료 등이 들어 있으며, 당시 귀국해서 김구 선생을 경교장으로 방문했을 때 “북정가(北征歌)”를 쓴 글씨를 받았으나 한국전쟁 때 잃어버리고 현재는 사본이 남아 있음. 보스턴 마라톤 참가를 기록한 서윤복 자필 수기도 있음.(35쪽 분량)
- 서윤복은 2019년 5월 14일 국가 공헌을 인정받아 손기정, 민관식, 최형철에 이어 체육인으로는 4번째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됨.



<p>보스턴 마라톤 골인 장면</p>	<p>기념 사진(손기정 감독, 서윤복 선수, 김구 선생, 남승룡 코치)</p>
----------------------	---



<p>1947년 미군정청에서 발행한 여행증명서</p>	<p>여행증명서 표지</p>
-------------------------------	-----------------

- 서윤복의 우승은 우리나라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입하는 데에 초석이 됨. 에이버리 브런디지 당시 IOC 부위원장의 협조와 조선체육회의 노력으로 정부 수립 이전인 1947년 6월 20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40차 IOC 총회에서 정식회원국으로 승인받아 1948년 생 모리츠 동계올림픽과 런던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었음.
- 서윤복의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우승 메달은 현재 2023년 개관 예정인 국립체육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박물관측은 2017년 11월 서윤복의 유족으로부터 보스턴 마라톤 우승 메달을 비롯한 유물 31점을 기증받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메달은 녹이 슬거나 변형된 부분 없이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음.
- 자체 케이스는 없는 상태이나 국립체육박물관에서 보관 상자를 마련하여 잘 보관하고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 중인 국립체육박물관의 임시 수장고에 보존하고 있어 보존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소유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어 이 메달을 소장하게 된 것으로, 체육박물관 건립 후 전시 및 연구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손기정 선수가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하여 받은 금메달이 국가등록문화재 제489호로 등록되어 있음. 이 메달은 한국인이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처음으로 받은 뜻깊은 것이나, 일제강점기 당시 일장기를 달고 출전했었음. 반면 서윤복 선수는 해방 후 태극기를 달고 “KOREA” 국명으로 참가해 처음으로 받은 메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해방 후인 1947년에 미군정기에도 불구하고 서윤복 선수가 국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우승함으로써 받은 메달로, “KOREA”를 국제 사회에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으므로 문화재로 등록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문화재 신청 명칭은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우승 메달”이나 이 명칭에는 우승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고, 미군정기라는 시기에 대한 표현도 들어 있지 않아 해방 후 첫 출전하여 받은 것임을 알 수 없음.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 “서윤복 1947년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우승 메달”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됨.

<○○○○○○○○ ○○ ○○○>

1) 개요

- 세계 5대 마라톤대회(보스턴, 뉴욕, 런던, 베를린, 시카고) 가운데 보스턴마라톤 대회는 여타의 국제대회와 비교하여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중요 대회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1947년 4월 19일, 당시 24세이던 서윤복이 2시간 25분 39초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제51회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1위를 차지함. 1897년 출발한 제1회 대회 이래 첫 동양인 우승자였던 서윤복은 세계육상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당시 미국 언론은 ‘기적’이라는 제목의 1면 기사로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갖 벗어난 약소국의 우승 소식을 널리 알렸음. 이러한 쾌거와 함께 3년 뒤인 1950년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다시 한번 한국 육상의 위력을 과시하게 됨. 손기정 감독의 인솔 아래 함기룡, 송길윤, 최윤철이 1, 2, 3위를 휩쓰는 기적을 이루어 냄.

- 향후 1994년 대회에서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황영조가 2시간 8분 49초의 한국 최고기록으로 4위를 기록함.
- 2001년 105회 대회에서 이봉주는 2시간 9분 43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 51년 만에 다시금 보스턴마라톤대회를 제패함.
- 서윤복은 손기정과 함께 일제강점기, 미군정 치하의 국가적 난관 시기에 우리 국민의 민족적 자존심과 희망을 안겨준 마라톤 영웅임. 이러한 애국심과 헌신적 노력은 황영조, 이봉주와 같은 마라톤 영웅들이 탄생한 기반이 됨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세로 9.8cm의 크기로 이루어짐.
- 서윤복이 받은 우승 메달의 한쪽 면은 훈장과 같이 옷 위에 꽃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서 중앙 윗부분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음.
- 대상물은 앞면에 ‘AMERICAN MARATHON’, ‘1947’, BOSTON · ATHLETIC · ASSOCIATION · 1887, 중앙 상단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으며, 대상물 뒷면에는 ‘1ST PRIZE, 1947’이 표기되어 제51회 보스턴마라톤 우승 메달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유물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대상물은 보수이력이 없으며, 원형 변형이나 탈락 등 특이사항이 없음. 제51회 보스턴마라톤 우승메달은 서윤복이 1947년에 수여 받은 이래로 개인이 보관하였음. 2017년 6월 27일 작고 이후 유족(기증자)이 국립체육박물관(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증하였음.
- 메달 케이스가 노후하여 보수, 혹은 교체가 필요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체육의 가치와 문화가 소통하고 성장하는 HUB 공간으로서 국립체육박물관에 전시하려는 환경은 아직 미약해 보임.

5) 문화제 활용 관련 사항

- 서윤복의 보스턴마라톤 제패는 광복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시련을 겪던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 준 쾌거였음. 서윤복의 업적을 기념하는 기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적극 보존 관리할 계획임.
- 서윤복의 업적을 기념하는 등 역사 교육의 자료로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제와의 가치 비교·검토

-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유물(국가등록문화재 제489호), 제1회 아시안컵 축구대회 우승컵(국가등록문화재 제493호) 등이 등록되어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서윤복의 제51회 보스턴마라톤 우승은 광복 이후 처음으로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세계 신기록을 달성한 역사적 의미를 지님. 이는 내부적으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외부적으로는 전 세계에 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KOREA(대한민국)를 알리는데 큰 공을 세운 기념비적 사건임.
- 서윤복의 보스턴마라톤 제패는 광복 이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갖은 시련을 겪던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 준 쾌거였음. 조선인의 역량을 세계만방에 객관적으로 입증한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서윤복의 우승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는데 하나의 조석을 마련하였음. 서윤복 우승을 환영하는 리셉션에서 당시 에이버리 브런디지(Avery Brundage) 미국 NOC 위원장이자 IOC 부위원장은 “아직 KOREA가 정부수립을 하지 않았지만 1948년 런던에서 개최된 제14회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서윤복의 우승으로 말미암아 브런디지 위원장의 협조와 조선체육회의 노력이 가세했고, 정부 수립 이전인 그 해(1947년) 6월 20일 스웨덴 스톡홀름 제40차 IOC 총회에서 정식회원국 승인을 받음. 이후 194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과 런던올림픽에 정식회원국으로서 참가할 수 있었음.
-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며 받은 우승 메달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특별한 메달로 학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희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
- 낡은 스파이크 신발에 손수레의 바퀴의 고무를 덧대어 신은 채 보스턴마라톤대회를 제패한 서윤복의 업적은 비단 체육인으로서의 기록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량을 세계에 알린 대역사의 주체자로서의 가치를 가짐. 2019년 5월 14일 국가 공헌을 인정받아 손기정, 민관식, 최형철에 이어 체육인으로서 4번째로 안장되었음.

8) 참고문헌

- 『대한민국 체육사 주요인물수록-한국체육인명사전』, 한국체육사학회, 2015. p. 565.
- 『한국육상경기 100년사』, 대한육상경기연맹, 2013. pp. 274~289.
- 『체육한국을 빛낸 영광의 얼굴들』 편찬위원회, 2005. pp. 414~417.
- 『20세기 한국스포츠 100년』, 이길용기념사업회, 1999. ‘경기인 100걸’ p. 127.
- 양재성(2015). 대한의 아들, 족패천하 서윤복. 대한체육회, ANA COMMUNICATIONS.
- 스포츠서울. 1993년 4월 19일.
- “우리민족의 우수성, 서선수, 일착 보스턴마라톤손 조선군제패” 조선일보 1947년 4월 22일.

<○○○○○○○○ ○○ ○○○>

1) 개요

- 1947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서윤복이 처음으로 KOREA와 태극기를 달고 제51회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한 메달임.

2) 주요 내용·특징 및 등록가치의견

- 1897년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서 처음 거행한 보스토마라톤대회는 그 전 해에 열린 그리스 아테네 근대올림픽을 기념하고자 개최한 국제대회로서, 런던마라톤, 로테르담마라톤, 뉴욕마라톤 대회와 함께 세계 4대 마라톤대회의 하나임. 특히 1947년 제51회 대회는 해방 후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출전한 첫 국제대회로서 동양인이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여 Korea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됨.
- 1947년 4월 19일 제51회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서윤복 선수는 2시간 25분 39초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차지함. 이 기록은 종래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세운 2시간 29분 9초로 세계신기록을 3분 4초를 앞당기는 결과로 두 번째로 마라톤의 세계제패라는 성과를 가져온 결과임.
- 그 결과 우승을 차지한 서윤복은 시상식에서 월계관을 쓰고, 1등을 기념하기 위한 우승 메달을 수여받았음. 이때 받은 우승메달은 일반적인 스포츠대회의 우승 메달과 달리 금색이 나는 메달 속 안에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것이 특징으로서, 일명 ‘다이아몬드 메달’로 불림.
- 우승 메달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금박의 색깔로 만들, 크게 상단·중단·하단의 3가지 구조로 이루어지되, 각 부분은 금색 줄로 연결을 하였음. 가장 상단 부분은 직사각형의 표식 안에 ‘AMERICAN MARATHON’ 라고 글자를 써넣어 미국 마라톤을 기념하기 위한 메달임을 표시하였음. 중간 부분은 미국의 국기 두 개를 겹쳐 펼쳐놓은 형태의 디자인으로 장식한 뒤, 그 위에 푸른색 바탕에 ‘1947’이라는 숫자를 써넣어 개최 연도를 표시해 놓았음. 하단 부분은 둥그런 메달 안에 보스턴대회의 마스코트인 유니콘상을 그려넣었고 그 위에 0.22캐럿의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아 다른 국제대회와의 차별화를 보여줌. 그 둘레로 ‘1887 BOSTON ATHLETIC ASSOCIATION’라 하여 이 대회가 1887년 보스턴육상협회에 의해 창설된 대회임을 알려줌.
- 당시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1~3위 수상 품목의 경우, 1위는 월계관과 함께 우승 메달을 수여하였고, 2~3위는 우승 트로피가 수상되었음. 실제로 시상식때에는 다이아몬드가 뺀적거리는 금색의 우승메달을 달고 승리의 월계관을 썼음. 따라서 우승 메달은 1등을 상징하는 기념패로서의 성격을 띠. 서윤복은 우승 메달 외에도 그보다 더 큰 완주메달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서윤복의 영문 이름이 새겨져 있음.
- 우승 메달은 끈이 달려 목에 거는 형태가 아니라 옷깃에 착용할 수 있도록 훈장(badge)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옷핀의 형식으로 디자인된 것이 특징임. 실제로 당시 각종 사진 자료에 따르면, 서윤복 선수가 입은 양복의 왼쪽 옷깃에 우승 메달을 꽂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인 미 군정 아래에서 참가한 서윤복 선수는 1947년 제51회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세계신기록으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함. 그 결과 ‘코리아(Korea)’의 이름을 처음으로 전세계에 알리는 쾌거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해방 후 미 군정기 아래 좌우의 갈등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절에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는 결과를 가져옴.

- 서윤복의 보스턴마라톤 우승은 11년 전 일제강점기 때 손기정이 거둔 베를린마라톤 우승을 잇는 동시에 2년 뒤 1950년 보스턴마라톤대회의 합기용 우승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마라톤계에서 한국과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인 사건으로 기록됨.
- 결론적으로 상기 유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대회를 상징하는 스포츠 유물이자 해방 후 한국스포츠계를 새롭게 일어나가는 첫 상징 유산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대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는다고 평가함. 첫째, 1947년 제51회 보스턴마라톤에서 서윤복이 획득한 우승메달은 다른 국제대회의 우승메달과 달리 다이아몬드의 장식으로 꾸민 독특한 예술적 양식으로써, 일명 다이아몬드 메달로 불림.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새로운 평화를 바라는 시대의 열원이 담긴 세계적인 유물로서의 가치를 지님. 둘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군정기 아래 Korea라는 국호를 달고 나가 세계를 제패한 결과물로서, Korea를 세계에 알리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판단됨. 셋째, 서윤복의 마라톤우승은 종래 세계신기록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신기록을 달성한 결과였던 만큼, 그 유물이 세계육상계 내지 세계스포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됨. 넷째, 서윤복의 마라톤우승은 이후 국제마라톤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해방직후 어수선한 사회에서 국민은 물론 해외동포들에게 신생국의 국민으로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귀중한 유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판단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우승메달은 일반적인 국제스포츠대회의 우승메달과 달리 배지 형식의 메달로서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다이아몬드 장식이 여전히 75년이 지났으나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국립체육박물관(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보존되고 있는 향운합습을 비롯한 보존관리 환경이 충실하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해방 후 우리나라가 거둔 첫 마라톤 세계제패라는 의미와 함께, 미군정기 아래에 국제대회 출전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전시물로 사용가능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상기 유물은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유물(국가등록문화재 제489호)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독특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베를린마라톤 우승유물은 1936년 손기정 선수가 받은 금메달, 우승상장 및 월계관으로서, 우승자가 당시 수여받은 물품 전체가 보관중임, 반면 서윤복이 우승할 당시의 대회 참가 유물 등이 다수 확인되나 현재 우승메달만 등록 신청한 상태여서, 향후 다른 유물도 확인 되는대로 함께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현 우승메달은 다이아몬드 메달이라는 점에서 종래에 보기 드문 우승메달로 확인됨. 더구나 목에 거는 메달이 아닌 옷에 패용하는 메달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 사례로 평가됨.

7)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제51회 보스턴마라톤대회 우승메달로 사용하는 것이 무난함.

8) 참고문헌

- 조선일보 1947년 4월 22일자. 1947년 6월 24일자. 1947년 6월 29일자.
- 동아일보 1947년 4월 22일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장 서윤복 관련자료(사진)
- 마라토너 서윤복, 승문총동문회 서윤복일대기편찬위원회
- 20세기 한국스포츠 100년, 이길용기념사업회, 1999.
- 한국육상경기 100년사, 대한육상경기연맹, 2013.

9.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 첫 출격 기념 태극기」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공군박물관 소장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 첫 출격 기념 태극기」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근현대문화유산 6·25 전쟁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용역’을 통하여 조사된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 첫 출격 기념 태극기」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4.20.)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 첫 출격 기념 태극기	1건 1점	55.5×89cm	1952년	공군참모총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335-1공군박물관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0.3~10월) : ‘근현대문화유산 6·25 전쟁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용역’ 실시
- (’21.4.20.)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해당 유물은 6·25 전쟁에 첫 출격하는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을 위한 격려와 각오의 목서가 담겨있는 태극기로, 공군의 창설(’49)과 공군사관학교 개교 및 조종사 양성 후 6·25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최초 출격(’52)한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제1기 졸업생의 출격을 앞두고 후배(제2기)들의 응원문구가 서명되어 있는 특징을 감안하고, 명칭 부여 지침*을 적용하여 ‘서명문’을 추가한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서명문 태극기’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 지침」 제3조제1항 : 국가등록문화재의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 명칭은 그 문화재의 **가치와 특징 등을 잘 나타내고** 영구적으로 불릴 수 있어야 한다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전 문화재전문위원 ○○○(’21.4.20.)

-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 첫 출격 기념 태극기’는 6·25 전쟁 중 1952년 12월 14일 첫 출격 명령을 받은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천영성 중위)에게 후배들이 환송행사(장행회(壯行會))에서 임진 다짐·격려 문구와 성명을 태극기에 묵서(墨書)하여 전달한 태극기임. ‘祖國統一’, ‘臨戰無退’, ‘信念’, ‘快男兒’, ‘祝初出擊’ ‘先輩 千永星 中尉’가 묵서되어 있으며, 1949년 10월 15일에 제정된 ‘국기제작법’에 따른 형태로서 약간 거친 목화 면 재질에 홍·청과 흑색(4괘)의 3도 공관인쇄(등사기)로 제작되었음. 해당 유물은 6·25전쟁사 등 측면에서 등록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1.4.20.)

-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 첫 출격 기념 태극기’는 비행조종사로 첫 실전 투입(출격)을 앞둔 제1기생을 위해 열린 환송행사(장행회(壯行會))에서 제2기생들이 전달한 태극기로서, 첫 출격을 격려하는 문구, 작성자 성명, 수여받는 제1기생(천영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 해당 유물은 공군의 창설과 생도 양성뿐만 아니라 6·25 전쟁의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힘으로 비행조종사를 양성하려는 공군의 의지와 노고가 상징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유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21.4.20.)

-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 첫 출격 기념 태극기’는 6·25 전쟁 당시 첫 출격을 앞둔 선배의 비행을 축하하며, 후배들이 조국통일과 전쟁에 임하는 태세를 다짐하는 글귀와 이름을 한자(漢字)로 묵서한 태극기임. 해당 태극기는 공군사관학교의 정규과정을 통해 배출한 조종사의 첫 출격의 기록이며, 대한민국 공군의 6·25 전쟁 참전 기념물로서 등록 가치가 있음.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 1. 명 칭 :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 첫 출격 기념 태극기
- 2.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335-1 공군박물관
- 3. 소유자 : 공군참모총장
- 4. 조사자 의견('21.4.20.)

<전 문화재전문위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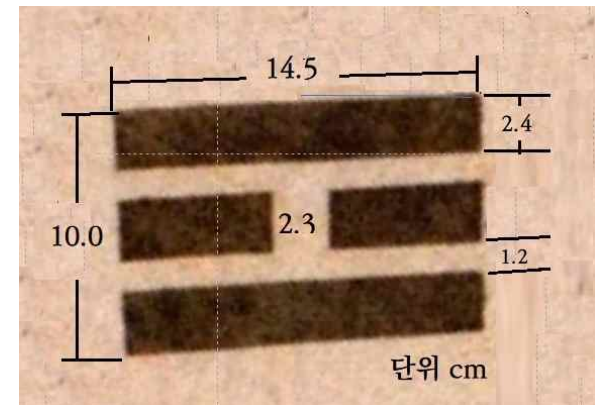
1) 개요

○ 6·25 전쟁 중 1952년 12월 14일 첫 출격 명령을 받은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천영성 중위가 환송행사(장행회)에서 후배들과 함께 조국통일의 비장한 임전 다짐 문구와 이름을 붓글씨로 쓴 서명문 태극기.

2) 주요 내용 및 특징

- 공군사관학교는 당초 1949년 1월 14일 육군항공사관학교로 창설하고 6월 10일에 제1기 사관생도 97명 입교 후 10월 1일 공군사관학교로 개칭하였음. 1950년의 6·25 전쟁 중 1951년 7월 10일(입관)·8월5일(졸업식)으로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을 배출하고, 그중 1차 실전 출격 비행훈련을 마친 장교는 이관모, 김영환, 윤자중, 이희근, 김영민, 김낙균, 이주표, 천영성, 정해영, 최영창, 고팡수, 김중보 등 13명이었음.
- 이들 13명은 1952년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세 차례로 나누어 첫 출격 명령을 받았음. 출격에 앞서 12월 5일 최용덕 공군사관학교장과 제2기 공군사관학교 후배들이 장행회(환송회)를 마련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2기 후배들은 첫 출격하는 1기 선배들에게 존경과 조국통일의지 등 임전 격려 문구와 성명을 태극기에 묵서(墨書)하여 기념으로 선물하였음.
 - 1952. 12. 13 출격 : 이관모, 김영환, 윤자중, 이희근
 - 1952. 12. 14 출격 : 김영민, 김낙균, 이주표, 천영성, 정해영, 최영창, 이배선, 고팡수
 - 1952. 12. 17 출격 : 김중보
- 이날 2기 김용수(1981년 소장 예편), 김동호(1981년 소장 예편), 박재성(1976년 대령 예편)은 12월 14일 첫 출격하는 선배 1기 천영성 중위를 위해 임전무퇴 등 격려의 묵서 서명문 태극기를 선물하였는데, 천영성 중위는 이 태극기를 목에 걸고 첫 출격하였음. 6·25 전쟁 중 62회를 출격 임무를 완수하였고, 휴전 후 가보처럼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1999년에 공군사관학교에 기증하였음.
- 조사 당시 태극기는 유리 액자 표구로 보존되었는데, 액자틀을 벗긴 상태에서 표구 앞면만 보았음.

○ 태극기는 1949년 10월 15일에 제정한 '국기제작법'에 따른 형태로 약간 거친 목화 면 재질에 홍·청과 흑색(4괘)의 3도 공관인쇄(등사기)로 제작하였음. 규격은 가로 약 89cm 세로 55.5cm로 표구 바닥 크기와 같음. 태극문양(홍·청)의 지름은 약 29cm로 너비 약 89cm의 3분의 1에 해당되고, 4괘 중 감괘를 표본으로 실측한 바 효 가로 14.5cm, 세로 2.4cm, 효 간격 1.2cm였음.



○ 1949년 10월 15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할 때 길이와 넓이는 3과 2의 비율로 하고, 크기는 일반 가정용의 경우 너비 1m, 또는 70cm의 두 종류로 규정하였는데, 이번 조사대상 태극기의 규격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은 표구 제작시 기면 4방 테두리 부분을 절단하였기 때문임.

○ 서명문에 대한 조사

- 6·25전쟁 중 첫 출격 기념 태극기에 비장의 각오를 묵서한 선·후배 4인은 모두 생존하여 휴전 이후 대한민국 공군전략증강에 많은 공적을 남기고 예편하였음.
- ‘祖國統一’의 묵서 문구는 ‘하늘에 목숨 바친다’는 공군사관학교 선·후배 모두의 물려 설수 없는 사명을 표현한 것 같음. 서명문 끝에 ‘羅’자가 작게 보이는데, 이 문구를 쓴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함.
- ‘祝初出擊’ ‘先輩 千永星 中尉’ 서명문은 제1기생으로 첫 출격 감격과 임전의 결연한 의지를 영광스럽게 표현한 듯함. 천영성 중위는 1929년생으로 1949년 6월 10일 공군사관학교 제1기생으로 입교. 1951년 7월 10일 소위 임관, 1952년 9월 1일 중위로 진급하고서 제1전투비행단 제10전대 제12전투비행대대 소속으로 12월 14일 첫 출격 임무를 띠고 진해비행장에서 전방 강릉비행장으로 출격한 이래 62회의 출격 임무를 완수하였음. 휴전 후 제1전투비행단장, 공군본부 작전참모 부장을 역임하였고 1979년 공군 소장 예편, 1999년에 첫 출격기념 태극기를 공군사관학교에 기증, 1919년 7월 29일 사망
- ‘臨戰無退’ 문구는 공군사관학교 제2기 김용수의 묵서로 1929년생이며, 제7항로보안단장, 제30방공관제단장, 교육사령관 역임 1981년 소장 예편
- ‘信念’ 문구는 공군사관학교 제2기 김동호의 묵서로 1931생이며, 제5전술공수비행단장, 한미연합사령부 정보참모부장, 공군본부작전참모부장 역임, 1981년 소장 예편
- ‘快男兒’ 문구는 공군사관학교 제2기 박재성의 묵서로 1929년생이며, 제1훈련비행단비행교관, 작전사령부비행안전관실장 역임, 1976년 대령 예편.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태극기 유물을 표구로 제작함으로써 태극기 뒷면을 풀칠하는 것으로 생각된 바 표구 해체 후 보존처리·항습 상자(오동나무)를 제작하여 보관해야 함.
- 표구 상하좌우 테두리에 태극기 끝 부분 약 1cm를 당겨 풀칠을 하였고, 그 중 상하 테두리에는 못질을 하였는데 녹물이 베어 손상되고 있음. 보존 처리요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군대의 특수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보다 철저할 것으로 사료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공군사관학교 상징 빨간마후라를 제작할 때 서명문 태극기를 디자인하여 활용하면 공군의 긍지를 상징하고 사기 앙양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복제 태극기 특별한 행사·장소에 게양(행사, 교육장, 면회소 등)
- 1952년 12월 5일 ‘장행회’를 스토리텔링 하여 연극 등 활용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2021년 4월 1일 현재 6·25전쟁 관련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태극기는 5점이 있고, 그중 묵서 태극기는 4점 있음.
 - 국가등록문화재 제383호 미 해병대원 버스비어 기증 태극기
 - 국가등록문화재 제390호 유관중부대원 태극기
 - 국가등록문화재 제391호 경주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 국가등록문화재 제392호 건국법정대학법학도 서명문 태극기
 - 국가등록문화재 제393호 이철희 ‘사변폭발’ 태극기

7) 등록가치의견

- 6·25전쟁사, 공군사관학교와 공군사료 등 등록가치 있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이 다소 길다고 하여 고유명칭 ‘공군사관학교 제1기’를 ‘공사1기’ 등으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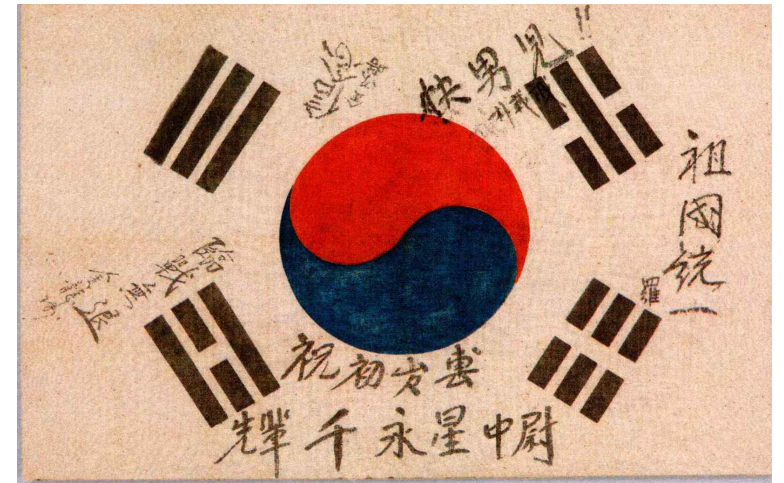
9) 참고문헌

- 6·25 전쟁 군사기록물(공군전투비행단) - 10비군사일지(국가등록문화재 제790호)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1952년 12월 5일 공군사관학교에서는 비행조종사로 첫 실전 투입을 앞둔 제1기생을 위한 장행회(壯行會)가 열림. 장행회에서 제2기생들은 응원문구를 작성한 태극기를 출격을 앞둔 제1기생에게 전달함.
- 조사 대상 태극기는 장행회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공사 제1기 천영성 중위(공군 소장 예편)가 제2기생들에게 받은 태극기임.
- 1999년 천영성 장군이 해당 태극기를 공군에 기증함.



[그림] 태극기 : 공사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기념

2) 주요 내용 및 특징

- 공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약사
 - 1949년 1월 14일 육군항공사관학교 창설.
 - 1949년 6월 10일 제1기 사관생도 97명 입교.
 - 1949년 10월 1일 공군사관학교로 개칭.
 - 1951년 8월 5일 제1기 졸업생 배출

- 공군에서는 제1기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전 투입을 위한 비행 훈련을 실시함. 해당 제1기생들은 제1전투비행단 제15교육전대 제2교육비행대 소속으로 비행훈련을 받음.
- 1952년 12월 1일 비행훈련을 마친 제1기생들은 제1전투비행단 제10전투비행전대에 배속됨.
- 1952년 12월 5일, 공군사관학교에서는 제1기 출신 조종사들의 실전 배치 및 첫 출격을 앞두고 장행회(壯行會)를 개최함.



1952년 12월 5일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한 장행회(壯行會)

- 장행회에는 공군참모총장 최용덕 장군이 임석상관으로 참석함.
- 공사 제2기생들은 제1기 선배들을 격려하는 문구를 태극기에 적어서 출격을 앞둔 김영환 등의 어깨에 매어주었음.
- 본 조사 대상 태극기는 공사 제1기로 첫 출격을 앞둔 천영성 중위가 공사 제2기로부터 받은 것임.
- 해당 태극기에는 천영성 중위의 첫 출격을 격려하는 문구 및 문구를 작성한 공사 제2기의 이름(김용수, 김동호, 박재성), 수여받는 제1기의 이름(천영성 중위), 성명 미상의 인물(‘나(羅)’라는 서명만 있음)이 작성한 문구(祖國統一)가 기록되어 있음.
- 장행회 사진 등을 보았을 때, 천영성 중위와 함께 참석한 공사 제1기 김영환, 이희근, 김낙규, 김영민(추정), 성명 미상 1인도 공사 제2기로부터 격려 문구가 담긴 태극기를 받았을 가능성이 큼. 하지만 현재까지는 천영성의 태극기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기증자(천영성 장군)가 액자로 제작해서 보관하였음. 현재 공군박물관에서도 기증자가 보관한 형태로 본 태극기를 소장하고 있음.
- 태극기를 목판에 붙이는 과정에서 태극기에 풀칠한 흔적이 있음. 태극기 가장 자리에 못을 박아서 목판에 고정하였음.

- 태극기 팔괘 및 태극, 그리고 서명이 적혀 있는 부분은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으나, 못이 박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녹이 번지고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공군에서는 6·25 전쟁의 악조건 속에서 공군사관학교 초기 생도 교육 및 조종사 양성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태극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
- 현재 공군은 해당 태극기를 공군사관학교 내 위치한 공군박물관의 수장고에 원형 그대로 보관하고 있음.
- 다만 공군박물관에는 태극기를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장기적인 관점의 보존관리는 어려운 실정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현재 공군에서는 본 태극기와 관련이 깊은 장행회 때 찍은 사진을 비롯해서, 관련 서류(제1기의 조종교육 수료, 장행회 거행 등)와 이배선의 『진투일지』 등을 소장하고 있음. 그 중 『10비 군사일지』와 공사 제1기 이배선의 『진투일지』 등은 <6·25 전쟁 군사 기록물(공군 전투비행단)>에 포함되어서 2020년 국가등록문화재 제790호로 등록됨.
- 본 조사 대상 태극기는 국가등록문화재 제790호와 더불어 공군이 공군사관학교를 통해서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고, 6·25 전쟁의 최전선에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을 조종사로 배치하기 위한 노고가 상징적으로 집약되어 있음.
- 공군 내지는 공군사관학교의 초기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가치가 있음.
- 다만 공군 및 공군사관학교 초기 자료들이 이미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만큼 공군과 공군사관학교에서는 공군 및 공군사관학교의 역사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일반인들에게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예를 들면 공군사관학교 제1기의 임관(졸업)연도가 1951년 혹은 1953년으로 소개되고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제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총 20점의 태극기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음. 그 중 6·25 전쟁 관련 태극기로는 ‘미 해병대원 버스비어 기증 태극기’, ‘유관중 부대원 태극기’,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건국법정대학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이철희 ‘사변폭발’ 태극기’를 꼽을 수 있음.
- 본 조사대상 태극기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기존의 태극기와 더불어 6·25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공군이 공군사관학교를 통해서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고 그들을 실전에 배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재로 가치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본 조사대상 태극기는 세 가지 측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첫째는 공군의 창설, 둘째는 공군사관학교 개교 및 생도 양성, 셋째는 6·25 전쟁의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힘으로 비행조종사를 양성하려는 공군의 의지. 이상의 측면을 보았을 때 본 조사대상인 “태극기 : 공사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기념”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데 가치가 있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현재 본 조사대상 태극기의 명칭은 “태극기 : 공사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기념”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을 경우, 다른 국가등록문화재의 경우를 참조해서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음. “공군사관학교 1기생 출격 기념 태극기” 등으로 수정 요망

9) 참고문헌

- 공군사관학교 편, 『공군사관학교 50년사』 공군사관학교, 1999.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공군사관학교는 1949년 1월 14일에 육군항공사관학교를 설치하며 개교함. 1949년 6월 10일 제1기 사관생도 97명이 입학함. 1949년 10월 1일 공군 창군과 함께 공군사관학교로 개칭함. 6.25 전쟁당시 1951년 2월 1일 제주도 모슬포 기지로 학교를 이동함. 1951년 5월 1일 진해기지로 이동함. 1951년 8월 5일 제1기 사관생도 졸업함.
- 1952년 12월 13~14일 공군사관학교 제1기 출신 조종사들의 첫 출격을 기념하기 위하여 1952년 12월 5일 제2기 출신 후배들이 장행회(壯行會) 개최함.
- 1952년 12월 5일 개최된 장행회는 선배들의 출격 환송 행사로, 후배들이 서명한 태극기를 목에 매어줌.
- 1952년 12월 5일 개최된 장행회에 사용된 서명 태극기를 장행회 주인공인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천영성(千永星) 장군이 1999년 공군사관학교박물관에 기증함.
- 태극기에는 당시 주인공인 제1기 졸업생 천영성 중위의 첫 출격 축하와 후배들의 격려의 글이 쓰여 있음.
- 1952년 장행회에 사용했던 태극기 가운데 유일함.

2) 주요 내용 및 특징

- 태극기는 가로 88.5cm, 세로 55.5cm 라고 보고되어 있으나, 현 상태에서 약 3cm 가량 치수를 더해야 함. 이는 현재 틀 위에 작은 못질을 하여 시점처럼 넘김 상태로 표구되어 있음. 대각선 길이는 103.8cm 임. 태극의 지름은 29cm, 패의 길이는 14.5cm 임.
- 태극기는 소색(素色) 광목(廣木) 위에 태극은 홍색과 청색, 패는 흑색임.
- 태극기 상단 하단 가장자리는 재봉틀로 일부 박혀 있음.
- 전체 상태는 양호함.
- 태극기 빈 자리에 후배들의 축하와 결의의 글귀가 이름과 함께 한자(漢字)로 묵서로 있음. 장행회(壯行會) 주인공인 천영성(千永星) 중위를 위한 태극기임을 알 수 있음. 서명은 ‘축 초출격 선배 천영성 중위’ ‘조국통일 라’ ‘패남아 박재성’, ‘신님 김동호’, ‘임전무퇴 김용수’ 서명이 있음. ‘조국통일 라’ 서명문의 ‘羅’는 성(姓)씨로 짐작되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기증자는 태극기를 액자로 제작하여 보관함.
- 현재 태극기는 표구로 인해 사방의 크기가 약 1.5~2cm 가량 줄어든 상태임.
- 현재 태극기는 유리가 없는 액자의 형태로 배면을 볼 수 없는 표구된 상태임. 목재 틀 위에 작은 쇠못으로 고정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쇠못에서 녹물이 생김.

- 등록 시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에 보존처리 의뢰를 권함. 녹물 제거는 어려울 것이지만, 태극기 크기의 원상회복은 가능할 것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함.
- 학예연구사 1인이 관리 중.
- 태극기는 액자 형태로 표구되어 중성상자에 보관되어 수장고에 보관 중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6.25 관련 공군사관학교와 공군의 역사를 국민에게 알리는 역사문화콘텐츠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
- 현재 COVID19로 인하여 쉬고 있지만,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 소장, 기타 국가등록문화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위한 문화재 키트 등을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 중.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태극기 관련 국가등록문화재는 제381호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게양 태극기를 포함한 20건임. 이 가운데 6.25 전쟁 관련 태극기는 ①제383호 미 해병대원 버스비어 기증 태극기 ②제390호 유관중 부대원 태극기 ③제391호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④제392호 건국법정대학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⑤제393호 이철희 사변폭발 태극기로 총 5점임. 6.25 전쟁 관련 태극기 5점 가운데 서명이 있는 태극기는 제383호 미 해병대원 버스비어 기증 태극기를 제외한 4점임. 서명이 있는 태극기는 참전을 한 군인이 결의를 다지기 위한 태극기라는 점.
- 기 등록 6.25 전쟁 관련 태극기와 비교하면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제1기 공군사관학교 졸업생의 초출격(初出擊) 장행회(壯行會) 서명 태극기로, 현재까지 6.25 전쟁 공군과 관련한 유일한 태극기임.
- 서명 태극기의 용도와 일시 그리고 사용자 등이 뚜렷하여 등록문화재로 가치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1949년 6월 10일 제1기 사관생도 97명의 입학으로, 항공사관학교 역사 시작함. 1949년 10월 1일 공군의 독립과 더불어, 항공사관학교에서 공군사관학교로 명칭 변경함. 6.25 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공군사관학교는 김포에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훈련을 함. 공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와 함께 함.
- 6.25 전쟁 당시 첫출격을 앞 둔 선배의 비행을 축하하며, 조국통일과 전쟁에 임하는 태세를 다짐하는 장행회의 기록을 태극기 서명으로 남김.
- 이 태극기는 공군사관학교의 정규과정을 통해 배출한 조종사의 첫 출격의 기록이자 기념물로 대한민국 공군의 6.25 전쟁 참전 기념물임.
- 1952년 장행회 당시 사진기록물이 있음. 당시 장행회에 사용되었던 태극기로 유일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은 공군사관학교의 간략 명 ‘공사’가 아니라, 정식명칭으로 등록을 하여야 함.
- 문화재의 명칭은 다른 서명문이 있는 국가등록문화재처럼,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기념 서명문 태극기’로 권함.

9) 참고문헌

-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 <https://rokaf.airforce.mil.kr/afa/1039/subview.do>

10. 「목포 법화원 보광사 석조미륵불」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보광사 소장 「목포 법화원 보광사 석조미륵불」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목포 법화원 보광사 석조미륵불」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8.9.3.)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3.16.)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목포시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목포 법화원 보광사 석조미륵불	1건 1점	○ 높이 163cm ○ 무릎 폭 113 등	1949년	보광사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280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8.9.3.) : 문화재 등록 신청(목포시→문화재청)
- ('21.3.16.)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해당 유물은 당대 대표적 화승인 금융 일섭(金蓉 日燮, 1900-1975)이 제작했다는 기록은 있음. 그러나 일섭의 일반적인 소조불상과 형식 및 양식적 차이가 많아 조성과정에서 일섭의 그 구체적인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며, 일섭이 제작한 다른 작품들과 우월성·대표성·예술성·완성도에 대한 신중한 비교 검토가 필요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1.3.16.)

- '목포 법화원 보광사 석조미륵불'은 목포 유달산 동쪽에 위치한 보광사에 주존불로 봉안된 여래좌상임. 유달산의 천연 바위(응화암)를 활용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지형과 재료를 활용한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제작자인 일섭이 근대기의 대표적인 화승이자 조각승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상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시멘트로 보강했고 지나치게 흰색 안료를 전체상에 두텁게 바르면서 진정성이 훼손되었음. 불상의 조형성에서도 표현이 미숙하여 일섭의 대표작으로 보기 어렵고 근대적 요소를 찾을 수 없음.

○ 전 문화재위원 ○○○('21.3.16.)

- '목포 법화원 보광사 석조미륵불'은 보광사의 법당에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으며 대좌와 함께 라필리 응회암으로 아래에서부터 연결된 원래의 자연암석에 조각되어 있는 불상임. 일섭이 제작하고 이와 관련된 기록이 명확하며, 일섭이 조성한 불상 가운데 사례가 드문 응회암의 석조불인 점에서 의미는 있음.
- 다만, 일반적인 일섭의 소조불상과는 얼굴 모습을 비롯하여 형식이나 양식적인 차이가 많아 불상 제작에 일섭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점, 조형적·예술적 측면에서 불상의 완성도가 결여되었다는 점 등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1.3.16.)

- '목포 법화원 보광사 석조미륵불'은 1928년 창건된 보광사의 전각 내에 주불로 봉안되어 있는 불상으로, 일섭 연보에 의해 석공 2인과 함께 1949년에 조성한 미륵불상임을 알 수 있어 중요함.
- 그러나 유사시기 제작된 다른 일섭스님의 작품들과 비해 조형적, 예술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고 석불 중에서도 일섭스님의 대표작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일섭 연보의 기록을 통해 제작시기와 존상명칭, 작자가 밝혀져 근대기 불상연구에 중요한 주요 정보는 제공하지만, 일섭 연보를 보충할 만한 추가 자료가 보충되지 않아 불상의 제작과 관련된 종합적인 이해가 불가능함. 따라서 목포 법화원 보광사 석조미륵불상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호하기에 예술적·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등록가치 미흡
- 출석 11명 / 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 1. 명 칭 : 목포 법화원 보광사 석조미륵불
- 2.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280
- 3. 소유자 : 보광사
- 4. 조사자 의견('21.3.16.)

<문화재위원 ○○○>

1) 개요

- 목포 유달산 동쪽에 위치한 보광사(1928년 창건)에 응회암으로 제작된 여래좌상이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음. 2012년에 이상이 봉안된 법당 안에 있는 '깃샘'과 함께 목포시문화유산 제8호로 지정되었음.
- 조성자는 金蓉 日燮(1900-1975)임. 일섭의 『年譜』에는 1949년 "4월부터 5월 중 전남 목포 죽동 보광사에 돌로 6尺 높이의 미륵좌상을 만들다. 주지는 만성스님이고 화주는 차보살이며 숙공은 2인이다."(116쪽)라고 기록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이 불상은 원래 자연암벽의 돌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연암벽을 활용한 불상은 흔히 마애불 형식으로 조성되지만, 이 불상은 암벽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환조로 조성되어 있음(법당 뒤편으로 축대가 조성되어 있어 암벽의 흔적을 찾기 어려움). 불상의 재료가 응회암으로 보이는데, 표면에는 흰색 물감이 도포되어 있음. 불상의 좌대가 비스듬히 기울어지면서 상도 역시 기울어져 있는데, 이는상이 조성된 후에 지반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현재는 기울어진 상태 그대로 시멘트로 고정해 놓았음.(도 1)



도1 정면

- 석조미륵불상은 편단우견의 대의를 입고 결과부좌의 자세로 앉아 있으며 수인은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내린 항마촉지인임. 전체적으로 덩어리감이 강조되었고 얼굴은 방형이며 목에는 삼도 표현이 생략되었고 육계의 표현도 다소 애매하게 처리되어 있음. 신체의 표현이나 대의의 묘사 등 세부 표현이 평면적으로 처리되어 조각적이라기보다는 회화적이며(도 2), 특히 상의 뒷부분에서 보면 귀의 묘사나 옷주름 처리가 생략되어 있음.(도 3)



도2 측면



도3 뒷부분

- 이 불상과 관련된 자료로는 현재는 없어진 '彌勒石佛造成功德碑', 그리고 1946년(佛紀 2973년)에 제작된 '彌勒佛像造成喜捨芳名錄 懸板'이 있어서 이 불상은 미륵불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음. 단, '彌勒佛像造成喜捨芳名錄 懸板' 제작연도와 일섭의 연보에 기록된 조성연도가 다른 것은 불상 조성을 위한 시주와 상 조성이 이루어진 때의 차이일 것으로 추정되며, 결국 이 불상은 일섭 연보의 기록대로 1949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불상이 전체적으로 옆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시멘트로 이를 고정해 놓은 상태임. 표면에는 흰색 물감을 두텁게 발라서 재질이 잘 드러나지 않음.

4)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근대 불상 중에서 등록문화재로는 김복진의 김제 금산사 미륵대불을 들 수 있음. 이 불상은 조성자가 근대조각의 선구자라는 점 외에 불상의 규모(1182cm), 근대적 재료(석고), 안정감 있고 자연스런 신체 표현의 조형적 특징, 보존의 완전성 등에서 목포 보광사 석조미륵불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

5) 등록가치의견

- 보광사 석조미륵불은 유달산의 천연 바위(응회암)를 활용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지형과 재료를 활용한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제작자인 일섭은 근대기의 대표적인 화승이자 조각승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상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시멘트로 보강했고 지나치게 흰색 안료를 전체상에 두텁게 바르면서 진정성이 훼손되었음. 불상의 조형성에서도 표현이 미숙하여 일섭의 대표작으로 보기 어렵고 근대적 요소를 찾을 수 없음.

<문화재위원 ○○○>

1) 개요

- 보광사는 유달산 동쪽 달성공원내에 위치하였으며 1928년 10월 30일 朴雲溪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 불상은 보광사의 법당에 주존불로 봉안되어 있으며 법당안에는 짓새미라는 샘이 있어 불상과 함께 2012년 5월 21일 목포시문화유산 8호로 지정되었음. 보광사 법당은 이전에는 용화전 현재는 대웅전이라는 편액이 걸려있음.
- 불상의 재질은 대좌와 함께 라필리 응회암으로 아래에서부터 연결된 원래의 자연 암석에 조각되었음. 불상은 금용 일섭(金蓉 日燮1900-1975)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이는 『금어 금용일섭의 年譜』에 기록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4월부터 5월 중 전남 목포 죽동 보광사에 돌로 6척 높이의 미륵좌상을 만든다. 주지는 만성스님이고 화주는 차보살이며 석공은 2인이다”(『年譜』 p.116)
- 일섭은 조선말기의 화승 보용 문성의 제자로서 불교회화와 소조불상에 뛰어난 전통양식을 계승한 대표적인 근대의 주요 조각가임. 일섭은 『연보』를 통해 자신의 작품과 불상조성에 관한 사실을 남겼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가 조성한 불상의 사례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어 중요함. 그러나 일섭은 소조가 주전공이며, 석불은 제작 사례가 적은 편으로 부안 외하리 보살입상(1946), 임실 도통암 마애여래좌상(1967)을 포함한 총 6구가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음.
- 불상과 관련된 자료는 현재는 없어진 ‘彌勒石佛造成功德碑’와 1946년에 쓰여진 ‘彌勒佛像造成喜捨芳名錄 懸板’(불기2973년, 36.8x188.8cm)이 있음. “彌勒佛像造成喜捨芳名錄 懸板”에는 ‘금어 금용일섭 석공 沈再龍’이라 적혀 있어 불상 작업에서 분업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초본은 승려장인이. 돌을 깎는 기술은 일반 장인이 분업하여 작업하는 경향은 1909년 안양암 마애관음보살좌상(화사 몽화 석수 윤동근)에서부터 시작되는 20세기적인 경향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보광사 법당의 석조여래좌상은 편단우건의 대의를 입고 오른손을 무릎 밑으로 내린 향마촉지인을 걸하였음. 이에 석가불로 인식하여 현재는 대웅전이라는 편액이 걸려있음.
- 불상은 결가부좌의 자세로 앉아 있으며 무릎의 높이가 높고 각지게 표현하였음. 상호는 넓직한 방형의 얼굴에 전체적으로 평면적이며, 좁은 이마와 정면을 쳐다보는 눈은 양 끝이 살짝 치켜올라가 있음. 코뿌리는 미간에서 시작되어 오펝하고 가름하며, 인중이 길고 턱에는 살이 많아 등글게 처리되었음 큰 얼굴에 비해 입은 작음편이며 목에는 하나의 주름을 표현하였는데 삼도를 의식하였는지는 알 수 없음. 육계는 구분이 불분명하며 반구형의 정상계주가 표현되었고, 양 귀는 턱 아래까지 길게 표현되어 있으나 귀 뒷면은 석질 그대로를 보여줘 둔탁하게 처리되었음.
- 신체는 부조에 가깝게 평판적이며, 목은 짧고 어깨는 평평하게 각이 저 있음. 수인은 왼손을 가부좌한 다리 위에 손바닥을 위로 하여 두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가리키는 향마촉지인을 취하고 있는데, 일섭의 전반기 불상 가운데 유일한 향마촉지인 불좌상임.

- 대의는 편단우건이며, 가슴에는 군의 자락이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임. 하반신의 군의는 드러난 오른발목에 옷자락이 한번 겹쳤고, 오른 다리에 몇 개의 긴 주름과 짧은 주름이 번갈아 나타남. 불상의 뒷면과 측면으로 보이는 귀 표현 등을 보면 옷주름이나 형태를 생략하여 정면상 위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로 인해 종교적 신앙대상으로서 또는 입체조각의 완전성 측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줌.
- 이 불상은 일섭이 제작한 1930-40년대의 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편단우건과 향마촉지인을 한 불상임(표1 참조). 보광사 불상은 도상적으로 석가불의 형식을 따랐지만 제작 당시의 기록과 상황을 고려하면 미륵불로 인식하고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대좌는 시멘트로 보수되어 있음. 현재는 긴 직사각형의 구조로서 원 대좌로 추정되는 부분은 156x33.5cm이며 양면과 복면이 있는 삼단 구조에 중단은 안상에 조문이 새겨진 장식이 있음.

표1) 일섭 조성불상 목록(1930-1940년대)

	연도	소재지	명칭	재질	크기(cm)
1	1935	제주 정광사	여래입상	흙	101
2	1938	김제 부용사	아미타여래좌상	흙	60
3	1940	제주 원당사	여래좌상	흙	79.5
4	1940	제주 원당사	보살입상	흙	80
5	1940	제주 원당사	보살입상	흙	79.5
6	1941	전주 정혜사 나한전	여래좌상	흙	63
7	1941	전주 정혜사 나한전	보살입상	흙	80.5
8	1941	전주 정혜사 나한전	보살입상	흙	80
9	1943	전주 정혜사	지장보살좌상 명부전 존상 31위	흙	94.5
10	1943	부안 용화사	지장보살좌상	흙	45
11	1944	영암 망월암	여래좌상	흙	62.5
12	1944	영암 망월암	보살입상	흙	59.5
13	1944	영암 망월암	보살입상	흙	57
14	1946	부안읍 외하리	미륵불입상	돌	400
15	1946	김제 문수암	지장보살좌상	나무	55
16	1947	목포 반야사	지장보살좌상 명부전 존상 31위	흙	114.4
17	1949	목포 보광사	미륵여래좌상	돌	163



김제 부용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1938년 부안 외하리 석조보살입상, 1946년 목포 보광사 석조여래좌상, 1949년 도1) 1930-40년대 일섭의 주요 불상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 불상과 대좌는 측면으로 기울어진 상태이며 이는 암벽이 침하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보임. 이로 인해 불상의 방향이나 대좌 등에 변형이 일어났고 언제인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멘트로 보강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한 흔적이 남아 있음.
- 불상의 외면은 호분과 비슷한 현대 안료를 이용하여 두껍게 칠해 놓은 상태로 불상의 원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4) 등록가치의견

- 보광사가 위치한 목포 유달산은 일제강점기인 1932년 등산로가 만들어지면서 관광객이 몰렸고 근대의 개항장으로서 일본의 영향을 받은 신사국 88소영장이 유행하였음. 따라서 근대적 성격이 강한 목포 유달산에 위치한 성격상 근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추정됨. 또한 이 시기 최고의 승장인 일섭이 제작하고 이와 관련된 기록이 명확하며, 일섭이 조성한 불상 가운데 사례가 드문 응회암의 석조불인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 불상은 1946년에 만든 방명록에 금어 일섭, 석공 沈再龍으로 적혀 있어 상을 만든 기술적인 장인은 심재룡, 초본 및 불상의 형태는 일섭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그런데 일섭이 쓴 연보에는 1949년에 조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정확하지는 않으나 1946년부터 시주자를 모집하여 불상의 완성은 1949년에 했을 것으로 추정됨.
- 이 불상은 높이 약 163cm의 자연암벽을 이용하여 만든 상으로 표면에 호분과 유사한 안료를 이용하여 칠한 대형불상임. 일섭은 근대기 최고의 장인으로 불상의 경우 소조불이 많은 편임. 이에 보광사 불상은 일반적인 일섭의 소조불상과는 얼굴 모습을 비롯하여 형식이나 양식적인 차이가 많은 편임. 따라서 보광사 불상 조성 과정에서 일섭의 역할과 특징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종합적으로 불상 제작에 일섭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점과 조형적, 예술적 측면에서 불상의 완성도가 결여되었으며 제작시기 역시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보광사는 1930년에 간행된 『목포부사』에 따르면 1928년 10월30일 박운계 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전함. 사찰은 유달산 동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사찰의 주법당은 대웅전이며, 전각 내에는 석조미륵여래좌상이 주불로 봉안되어 있음.
- 일섭스님의 작업 일지인 연보에 따르면 이 미륵불상은 1949년 4월부터 5월 중에 제작한 미륵불상으로, 화주는 차보살, 조각은 일섭스님과 석공 2인이 참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음. 이 자료외에도 미륵불 제작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기록인 <미륵석불조성공덕비>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소실되었고 이것을 채록된 자료도 남아 있지 않음.
- 불상 제작을 주도한 일섭스님은 1900년 전남 화순군 외남면 갈학리에서 태어났으며, 14세(대정 2년)에 출가하였음. 19세때 순천 동화사에서 은사 韓鳳麟의 주좌로 장흥에 사는 길부인의 생전 예수재용 인물, 화초, 달개를 그리는 일을 보조하였고, 23세 때 스승 金普應(1867~1954)을 만나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화승의 길로 들어섰음. 이후 입적할 때 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작업에 몰두하여 수많은 작품을 남겼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일섭(1900~1975)스님의 작품은 전통 불교 조각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추구한 불교 정신을 조각으로 구현하였음. 불상재료에 있어서 일섭스님은 전통적인 재료인 소조와 목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신 재료인 석고 시멘트 같은 새로운 재료의 도입에도 주저하지 않고 받아들였음. 불상조각 외에도 불화와 단청, 불상의 수리와 개금에서도 佛母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였음. 목포 법화원 보광사처럼 석불이나 마애불상도 제작하였으나, 변산 외리 미륵석조미륵여래입상, 임실 도통암 마애여래좌상 등 3점이 확인됨. 이 중 변산 외리 석조미륵입상(1949년) 정도만이 근대기 주목할 만한 석불상이고, 나머지 석불·마애불은 소조나 목조, 석고불상의 기량에 미치지 못함. 아마도 석불과 마애불을 조성할 때 일섭스님이 모든 공정을 주도했다기보다는 일섭은 불상의 밑그림이 되는 出草를 담당하고 불상 가공은 석공들이 맡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가령 보광사 미륵불상의 정면은 어느 정도 불상으로서의 상호를 갖추고 있으나, 측면과 뒷면은 불상의 윤곽만 대충 다듬다 만 것처럼 처리하여 미완성 같은 여운을 줌. 아마도 바위의 측면과 뒷면에는 草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불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석공이 초본대로 다듬다 보니 이와 같은 현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 것임.
- 현재 미륵불상의 표면은 흰색 도료가 발라져 있다. 대좌는 삼단형식의 사각 연화대좌로, 상하는 연꽃으로 중단은 5칸으로 구획하고 면석에는 구름모양의 안상을 새겨 넣었음. 대좌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임. 처음부터 일부러 이렇게 기울듯 하게 조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바위가 오른쪽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보임. 얼굴은 정면을 주시하고 있으며, 작고 오밀조밀한 귀공자풍의 이목구비는 다른 일섭 조각에서도 보이는 相好표현임. 대의는 편단우견을 걸쳤으며, 왼쪽 팔뚝에 짧게 꿰어 친 세 가닥의 주름이 특징적이며, 무릎 아래로는 사선으로 시원스럽게 주름을 펼쳐 내리되 긴 주름과 긴 주름 사이에는 짧은 주름을 집어넣어 어느 정도 사실성을 추구하였고, 노출된 오른발 아래로 흘러내린 옷자락은 나뭇잎 모양으로 처리하여 율동감을 부여하였음. 이와 같은 무릎 주름의 표현은 고려 후기 불상 이래 조선 후기 불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름 표현으로, 일섭스님은 전통조각의 흐름을 존중하는 조각적 태도와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佛身에 표현된 옷 주름은 대체로 상체는 윤곽선 위주의 요점적으로, 하체는 이에 비해 조금 더 세밀하게 처리하였음. 이와 같은 표현 양상도 조선 후기 불상 조각의 전통을 반영한 것임. 조형적으로 살펴보면 머리와 신체, 무릎의 구성이 다소 블록을 쌓듯 처리하여 신체간의 연결이 다소 부자연스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음. 이는 화승과 석공과의 협업에 따른 소통 부족이나 석공의 불상 조각에 대한 이해 부족일 수도 있음. 즉 불상의 밑그림은 불화에 능통한 일섭스님이 내고, 바위를 다듬고 새기는 일은 그의 지휘 아래 석공이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불상 조각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의 석공이 당시 최고 佛畫僧이 출조한 밑그림을 토대로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는 원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는 애매한 미완성 불상을 만들고 말았음.



목포 보광사 석조미륵여래좌상 전경



좌측면



우측면



대좌



부안 외하리 석조미륵여래입상, 1949년
(국립광주박물관 김영희 제공)



수덕사 석조관음보살입상, 1924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불상의 표면에는 흰색 도료가 칠해져 있으며, 전체 상태는 양호한 편임. 다만 불상이 오른쪽이 내려 앉아 기우뚱한 모습인지. 지반침하에 따른 것인지 정밀 조사가 필요함.
- 대좌의 하단에는 목조불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깃샘이 흐르고 있어 일상적인 습기로 피해가 우려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불상이 오른쪽으로 내려앉은 모습인데, 불상 및 암반의 침하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이 불상 보다 3년 앞서 일섭스님이 제작한 부안 외하리 석조미륵불입상에 비해 규모나 조각 수준면에서 떨어지며, 도상적으로 외하리 불상은 2중의 탑형 보개와 용화수인 등 미륵도상의 특징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반면 보광사 미륵불은 미륵 특유의 도상적 특징이 드러나지 않음. 더불어 1924년에 조성된 수덕사 석조관음보살입상이나 간송 전형필 선생이 시주자로 참여한 강화 보문사 마애관음보살좌상(1928년), 화계사 마애관음보살좌상(1936), 일섭스님이 주도한 부안 외하리 석조미륵여래좌상(1946년) 등 근대기 조성된 다른 석불·마애불에 비해 시대성과 예술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점을 찾기 어려움.

6) 등록가치의견

- 이 보광사 석조미륵여래좌상은 일섭스님의 연보에 의해 석공 2인과 함께 1949년에 조성한 미륵불상임을 알 수 있어 중요함. 그러나 유사시기 제작된 다른 일섭스님의 작품들과 비해 조형적, 예술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고 석불 중에서도 일섭스님의 대표작으로 보기 어려움.
- 이 미륵불상은 일섭 연보의 기록을 통해 제작시기와 존상명칭, 작자가 밝혀져 근대기 불상연구에 중요한 주요 정보는 제공하지만, 일섭 연보를 보충할 만한 추가 자료가 보충되지 않아 불상의 제작과 관련된 종합적인 이해가 불가능함. 즉 불상 제작의 보완적 자료인 “미륵석불조성공덕비”가 소실되어 불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목포 법화원 보광사 석조미륵불상은 등록 문화재로 등록 보호하기에 예술적·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7)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목포 법화원 보광사 석조미륵여래좌상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함.

11. 「대전 소제동 철도관사 16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대전광역시 소제동 소재 「대전 소제동 철도관사 16호」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1.3.22.)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4.28.)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관사마을 대표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대전 소제동 철도관사 16호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299-70
 - 소유자 : (주)관사마을
 - 수량 : 1동
 - 건립시기 : 1939년
 - 구조 및 규모 : 목구조 / 건축면적 68.5㎡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1.3.22.)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대전광역시 → 문화재청)
 - ('21.4.28.)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현재의 카페와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과정에서 일본식 목구조의 기둥을 제외하고 대부분 변형이 이루어져 원형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감안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검토가 필요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21.4.28.)

- 카페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관사가 지니고 있던 주거건축의 내용들이 대부분 변형되어 있음. 최근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수리를 하였음
- 오래 전부터 대전 소재동의 철도관사촌의 유구를 보존하여야 함을 여러 차례 권고하고 보존운동이 활발하게 일었던 적이 있으나 재개발 계획이 구체화 하면서 보존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임
- 도심재생의 수법이 이 지역에 도입되어 수익성을 염두에 둔 리모델링 기법이 만연하여 문화재로서 이 지역의 유구를 검토하고 보존·보호하는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 되었음. 본 조사대상물도 외관유지에는 충실한 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주택으로서 내부공간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여 문화재 등록을 할 만한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 ○○○○○○ ○○ ○○○('21.4.28.)

- 전형적인 중소규모의 관사에 해당하며 인접지역에 유사한 관사 주택이 다수 현존하므로 등록 신청한 해당 관사가 다른 관사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특정하기 어려움.
- 동일 구역 내에 현존하는 다른 관사 건축들보다 탁월한 문화재적 가치를 보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현존하는 관사에 대한 진수 조사 또는 충분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관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설부르다고 판단됨. 다른 관사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장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보존할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선정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방법을 취하기를 추천함.
- 2019년 기 수리된 부분은 현재의 상업용 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진행한 것이므로 이 수리를 통해 문화재로서의 가치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이 수리는 문화재에 사용하지 않는 재료와 시공이 일부 추가되었고, 기존 부재의 철거 및 폐기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2019년의 수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 보존에 있어서는 일부분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전용된 건축을 원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되므로 해당 관사는 문화재로 등록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1.4.28.)

- 대전 소재관사촌의 형성과정과 건축적 정황 등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의 자료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실제 파악이 가능하며, 또한 동 관사 주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음.
- 다만, 이번 등록 신청한 관사 주택 역시 현재 근린생활시설(전시공간 및 카페 등)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지붕가구와 일부 건축부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현상이 다수 변형된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동 관사 주택이 이 번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에서 존치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소재관사촌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는 현 상황 속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논하기에는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임.

바. 의결사항

○ 부결

- 원형변형되어 가치 미흡
- 출석 11명 / 부결 10명, 제척 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 1. 명 칭 : (현) 관사 16호 (구) -
- 2. 용 도 : (현) 근린생활시설 (원) 관사 주택
- 3. 소재지 : 대전 동구 수향길 19(소제동 299-70) 명륜2길 21(읍내동 360)
- 4. 소유자 : 관사마을주식회사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동천우안5길 46)

5. 시설물 개요

- 구조 : 목구조
- 제작년도 : 1939년(추정)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68.5㎡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21.4.28.)

<○○○○○○ ○○ ○○○>

1) 개요

- 목구조, 목재 심벽 위 모르타르 마감, 목조 지붕틀위 시멘트 기와 마감.
- 전형적인 일제강점기 철도관사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소제동 철도관사촌의 전반적인 특징인 북쪽 대문과 현관, 남쪽 부엌과 마당의 배치를 하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카페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관사가 지니고 있던 주거건축의 내용들이 대부분 변형되어 있다. 최근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수리를 하였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이 지역의 관사건물 중, 현존하고 있는 유구들을 도시재생 수법으로 상업 또는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몇 군데 있기는 하나, 문화재 보존의 관점에서 원형훼손과 가역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오래된 건물의 활용을 위한 설계와 시공수법으로서는 상당히 진전된 실험들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

- 특히 화장실과 다다미 방 재현, 벽장공간의 활용 등이 돋보이기는 하지만, 현관의 반대편에 있는 주방의 출입관계, 다른 방들 보다 낮은 주방바닥과 실내공간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는 유구의 처리 등, 문화재의 보존부위 선정과 원형유지를 위한 검토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은 채 새로운 기능을 담기 위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정 마감도 모두 철거하여 목구조 지붕틀을 전체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소유주 나름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상업공간으로서 성업 중이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국내의 관사단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 철거와 훼손 변형된 곳이나 퇴락한 곳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문화재로서 보존해야 할 부위를 잘 살리면서 보강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여지의 유구들이 아직 현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카페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관사가 지니고 있던 주거건축의 내용들이 대부분 변형되어 있다. 최근에 대대적인 리모델링 수리를 하였다.
- 오래 전부터 대전 소제동의 철도관사촌의 유구를 보존하여야 함을 여러 차례 권고하고 보존운동이 활발하게 일었던 적이 있으나 재개발 계획이 구체화 하면서 보존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이다. 게다가 도심재생의 수법이 이 지역에 도입되어 수익성을 염두에 둔 리모델링 기법이 만연하여 문화재로서 이 지역의 유구를 검토하고 보존/보호하는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 되었다. 본 조사대상물도 외관유지에는 충실한 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주택으로서 내부공간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여 문화재 등록을 할 만한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 ○○ ○○○>

1) 개요

- 일제강점기 대전역 주변에 형성된 3개의 관사촌 중 동관사촌에 위치한 철도관사주택. 남관사촌과 북관사촌은 1910년대 조성되었고, 동관사촌은 1927년 이후 1930년대에 걸쳐서 조성.
- 동관사촌은 남관사촌과 북관사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관사가 남아 있음.
- 동관사촌(소제동 철도관사촌)에는 37채가 남아 있는데, 1920년대 관사 16채, 1939년의 관사 21채로 구성. 해당 관사는 1939년 건립한 21채 중 하나.
- 동관사촌은 1927년 소제호를 메우고 인공하천인 대동천 조성하면서 소제호 매립 지역에 관사를 건설하면서 조성되기 시작. 1920년대에 건설된 관사는 목조 비늘판벽이 특징이고, 1939년에 건설된 40여채의 관사는 목조 시멘트물탈마감이 특징으로, 해당 관사는 1939년에 건설된 목조 시멘트물탈마감의 건축물.
- 함께 등록 신청한 관사 16호 및 관사 17호와 인접해 있고, 규모도 비슷.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동일한 형태의 관사 2동이 측벽을 공유하며 병렬로 늘어서 있는 2호 연립형 관사이며, 해당 관사는 그 중 한 동에 해당

- 현존하는 일제강점기 관사도면을 토대로 추정해 보면 7등급(갑) 또는 7등급(을)에 해당하는 건물로 추정. 이 지역의 관사는 8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단층 목조 시멘트물탈 마감 구조의 일본식 주택.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시멘트 기와를 얹음.
- 원형은 다다미실이었으나 해방 이후 철거되었을 것으로 추정
- 상부가구에 와쿠즈리(襦鈞)라고 하는 장치가 남아 있음. 와쿠즈리: 보에 부재를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 와쿠즈리를 설치하여 하부 구조물이나 장식물을 달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원형은 명확히 추정하기 어렵지만, 해방이후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
- 2019년에 시행된 수리를 통해 현재 상업시설로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 수리에서 원형 또는 이른 시기의 부재가 상당수 멸실된 것으로 추정
- 현재 상업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 벽이 모두 철거된 점은 역사적 보존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수리라고 판단됨. 상부 가구를 제외하고 구체(기단에서 지붕하단까지의 기둥 및 벽 등의 공간)에 해당하는 내부 벽 및 장식문 등의 구성요소는 모두 철거된 상태로 현재는 상부 목조 가구만 남아 있음. 이마(居間)와 츠기노마(次の間)를 연결하는 장식문이나 란마(欄間)와 같은 장식 부재가 남아 있지 않고, 도쿄노마(床の間)의 변형도 커서, 일본식 주택의 내부 공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멸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19년 상부 가구를 노출하는 형태로 수리가 이루어졌는데, 일본식 주택은 반자를 설치하여 상부 가구가 노출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상부 가구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대체로 상부 가구를 형성하는 부재는 기둥 등의 다른 구체를 형성하는 부재에 비해 양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연등천정의 형태를 취하며 상부 가구를 노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반자를 설치할 계획을 입안할 필요가 있음.
- 상부 가구에 설치된 와쿠즈리는 바깥에 노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고 반자 안 쪽으로 숨겨 놓는 장치이므로 현재와 같이 상부에 노출된 채로 공개하는 것은 장치의 원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소유자측의 지속적인 관리 및 보존 의지는 강하다고 판단되나 2019년의 수리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자체 및 관할 관청의 감시와 제어가 필요한 상황.
- 해당 관청 및 지자체에서 능동적인 모니터링과 케어가 가능한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성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재 전시공간으로의 활용은 향후 지속적인 보존 관리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활용 계획에 있어 체험과 전시라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존 관리 계획과의 부합성을 평가하기에 정보가 부족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어떤 프로그램을 운용할 것인가가 불분명하므로 계획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함.
- 반자를 설치할 것을 추천하지만, 반자를 설치할 경우 전시 공간으로의 활용도는 저하되므로 다른 활용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다. 기타사항

- 밀접한 지역에 동일한 형태의 관사가 인접해 있으므로 개별동에 대한 활용 계획이 아닌 전체 지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해당 관사와 동일한 유형의 등록 문화재로 구 영주역 5호관사(국가등록문화재 제720-1호)와 구 영주역 7호관사(국가등록문화재 제720-2호)를 들 수 있다. 건립연대와 규모가 해당 관사와 매우 유사한 형태에 속하여 일대일 비교가 가능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호연립 관사로 동일한 유형이고 2018년에 등록되었으므로 현존 상태를 비교해 보면 그 가치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구 영주역 5호관사(국가등록문화재 제720-1호) 및 구 영주역 7호관사(국가등록문화재 제720-2호)와 비교해 볼 때 해당 관사는 외관, 내부 공간, 구조 및 재료 등에 있어 보존 상태가 좋거나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전형적인 중소규모의 관사에 해당하며 인접지역에 유사한 관사 주택이 다수 현존하므로 등록 신청한 해당 관사가 다른 관사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특정하기 어려움.
- 동일 구역 내에 현존하는 다른 관사 건축들보다 탁월한 문화제적 가치를 보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존하는 관사에 대한 전수 조사 또는 충분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관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설부르다고 판단된다. 다른 관사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장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보존할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선정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방법을 취하기를 추천한다.
- 2019년 기 수리된 부분은 현재의 상업 시설 목적에 부합하도록 진행한 것이므로 이 수리를 통해 문화재로서의 가치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 수리는 문화재에 사용하지 않는 재료와 시공이 일부 추가되었고, 기존 부재의 철거 및 폐기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9년의 수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 보존에 있어서는 일부분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전용된 건축을 원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되므로 해당 관사는 문화재로 등록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최근에 수리가 시행된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 수리가 문화재 관리 감독 기관의 제어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수리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동 시설은 일제강점기 대전역 철도관사로 건립된 주택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299-70(수향길 19)에 위치하고 있음.
- 경부선 철길 개통과 함께 대전역(1904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철도 관사가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호남선 철길이 개설되면서부터는 늘어나는 관련 종사자들의 거주 등을 위해 일종의 주거단지가 조성되었음.
- 따라서 당시 역사(驛舍)를 주변으로 소위, ‘관사촌’이 순차적으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오늘날 대전역을 중심으로 남쪽의 남관사촌과 북쪽의 북관사촌, 동쪽의 동관사촌 등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임.
- 관사촌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동관사촌 인근의 ‘소제호(蘇堤湖)’를 매립(1927년)한 후 그 곳에 대규모의 관사촌(이하, ‘소제관사촌’)을 새롭게 조성하였는데, 이 시기를 대략 1930~40년대쯤으로 추정하고 있음.
- 또한, 오늘날 소제관사촌을 가로지르는 하천인 ‘대동천’이 이 과정에서 현재의 물길과 형태로 새롭게 축조되었다고 하며, 소제동이라는 법정 명칭은 역시 이곳에 소제호가 있었던 것에서 유래된 것임.
- 해방 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관사촌과 북관사촌, 동사관촌은 대부분 소실되어 오늘날 일부 흔적만이 남아 있는 것에 반해, 소제관사촌은 개별 관사주택(40여동 현존)과 함께 주거단지로서의 도시적 맥락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음.
-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철도 관사는 소위, 표준화 설계도면에 의해 지어지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3등급~8등급의 관사가 설치되었다고 하나 소제관사촌에서는 주로 6등급~8등급의 관사들이 확인되며, 이중에서도 7등급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들 관사 주택들은 1970년대 민간인에게 불하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생활의 요구에 따라 변형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건축물 자체의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임.
- 2000년 들어, 소제관사촌 주변 일대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선정되면서 다양한 개발계획이 반영되어 왔고, 최근에는 도로 개설 및 아파트재개발 등으로 인해 관사 주택들이 이미 멸실 되었거나, 철거 위기에 놓여진 상태임.
- 또한, 최근 이들 관사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전시공간, 카페 등)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관사 주택이 갖는 건축적 진정성 등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기도 하였음.
- 동 관사 주택을 포함하여 이번 등록 신청한 4동 모두 리모델링을 거쳐 전시 공간 및 카페 등의 시설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요구조체 등을 제외한 많은 부분에서 현상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서 건축적 가치를 논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또한, 동 관사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3동의 경우에는 관련 개발계획에 따라 철거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역사공원 부지 내로 이전, 복원할 계획임.
- 이와 달리, 동 관사 주택은 해당 필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역사공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변경되어 철거 및 멸실의 위험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2호 연립의 관사 주택으로서 북쪽에 대문과 현관 등의 주출입구를 두고 남쪽에 정원을 꾸몄을 것으로 보이는 마당이 있고, 그 한 쪽 편으로는 별도의 창고 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 전형적인 일제강점기 관사 주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주택 평면과 공간구성 등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7등급의 관사와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현관을 포함한 각 실들이 홀과 속복도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욕실 및 화장실이 이미 실내 공간에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구(架構)는 일본식 목구조를 기본으로 하였는데 지붕부는 소위, 화소옥(和小屋)으로 구성하였으며, 축부는 흙벽 위에 회칠로 마감한 칸막이벽을 이용해 내부공간을 구획하였음. 각 실의 바닥에는 다다미를 깔았고 복도에는 장마루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임.
- 다만, 지난 2019년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목구조체를 제외한 각 실의 벽체 및 창호, 바닥, 지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공사가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구조보강도 이루어져 구체적인 원형의 모습은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임.
- 외벽은 흙벽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발라 마무리하였는데, 소제관사촌에 현존하는 관사 주택의 경우, 외벽 마감재는 크게 목재비닐판과 시멘트 모르타르로 구분되며 전자가 시기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후자의 경우 단순히 시멘트 모르타르로만 마감한 것인지, 아니면 라스칠망과 방수포 등도 설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음.
- 지붕은 박공지붕 위에 시멘트 기와를 깔았으며, 박공면 상부에 환기를 위한 환기구구를 루머창 형태로 설치하였음. 기타 관사 주택의 경우에는 환기창 아래에 목판으로 제작한 관사번호판이 걸려있는데, 동 주택의 번호판은 소실된 것으로 보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최초 건립 당시의 건축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기록 사진 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원형보존 상태 및 변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관련 자료 및 관계자 증언 등에 따르면, 구조체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다만, 해방 이후 오랜 세월동안 살림집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있었고 또한, 최근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개·보수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현재 전시공간 및 카페 등의 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노후화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유자(관사마을주식회사)측에서는 철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근대기 대전에 도시와 생활사의 흔적으로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갖는 건물이라는 측면에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인해 소제관사촌 일대에 도로 개설 및 아파트 재개발 등으로 관사 주택들이 이미 멸실 되었거나, 철거 위기에 있는 상태이나, 동 관사 주택이 위치한 필지가 최근 역사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변경되어 철거 및 멸실의 위험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소유자(관사마을주식회사)측에서는 근현대 생활문화공간 체험과 문화예술 전시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민에게 문화향유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자 함.
-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지역 문화유산으로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담보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일제강점기 건립된 철도관사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영주근대역문화공간’ 내 ‘구 영주역 5호관사’ 및 ‘구 영주역 7호관사’가 있으며, 이밖에 일반 관공서 등의 관사로는 ‘대전 충청남도 구 관사와 부속창고’ 등 전국에 걸쳐 다수의 사례가 있음.
- 철도관사는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립 주택들이 소위, ‘관사촌’의 형태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며, 대전 소재동 이외에도 순천 및 삼량진(밀양)역 주변에서 이러한 도시 구조의 흔적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대전 소재관사촌의 형성과정과 건축적 정황 등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의 자료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실체 파악이 가능하며, 또한 동 관사 주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음.
- 다만, 이번 등록 신청한 관사 주택 역시 현재 근린생활시설(전시공간 및 카페 등)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지붕가구와 일부 건축 부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현상이 다수 변형된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동 관사 주택이 이 번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에서 존치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소재관사촌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지게 되는 현 상황 속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논하기에는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임.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지침 및 기 등록된 사례에 따라 「대전역 구 소재관사촌 관사 주택(16호)」이 적당할 것으로 보임.

12. 「대전 소재동 철도관사 17호 마당집」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대전광역시 소재동 소재 「대전 소재동 철도관사 17호 마당집」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1.3.22.)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4.28.)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소재호 대표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대전 소재동 철도관사 17호 마당집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동 299-67
 - 소유자 : (주)소재호
 - 수량 : 1동
 - 건립시기 : 1939년
 - 구조 및 규모 : 목구조 / 건축면적 85.49㎡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1.3.22.)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대전광역시 → 문화재청)
 - ('21.4.28.)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현재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과정에서 일본식 목구조의 기둥을 제외하고 대부분 변형이 이루어져 원형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감안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검토가 필요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21.4.28.)

- 원형을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식 목구조의 기둥과 주요 구조재만 남겨 놓고 내부벽과 방틀, 천정마감을 모두 철거하여 리모델링 후,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목조 지붕틀을 전체적으로 노출하여 전시장에 필요한 장치들을 설치해 두고 있음
- 오래 전부터 대전 소재동의 철도관사촌의 유구를 보존하여야 함을 여러 차례 권고하고 보존운동이 활발하게 일었던 적이 있으나 재개발 계획이 구체화 하면서 보존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임
- 도심재생의 수법이 이 지역에 도입되어 수익성을 염두에 둔 리모델링 기법이 만연하여 문화재로서 이 지역의 유구를 검토하고 보존·보호하는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 되었음. 본 조사대상물도 외관유지에는 충실한 면이 보이기 는 하지만 주택으로서 내부공간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여 문화재 등록을 할 만한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 ○○○○○○ ○○ ○○○('21.4.28.)

- 전형적인 중소규모의 관사에 해당하며 인접지역에 유사한 관사 주택이 다수 현존하므로 등록 신청한 해당 관사가 다른 관사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특정하기 어려움.
- 동일 구역 내에 현존하는 다른 관사 건축들보다 탁월한 문화재적 가치를 보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현존하는 관사에 대한 전수 조사 또는 충분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관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설부르다고 판단됨. 다른 관사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장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보존할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선정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방법을 취하기를 추천함.
- 2020년 기 수리된 부분은 현재의 전시 공간 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진행한 것이므로 이 수리를 통해 문화재로서의 가치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이 수리는 문화재에 사용하지 않는 재료와 시공이 일부 추가되었고, 기존 부재의 철거 및 폐기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2020년의 수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 보존에 있어서는 일부분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전용된 건축을 원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되므로 해당 관사는 문화재로 등록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1.4.28.)

- 동 관사 주택 역시 대전 소재관사촌의 형성과정과 건축적 정황 등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의 자료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실체 파악이 가능하며, 또한 동 관사 주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음.
- 다만, 근린생활시설로의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목구조체와 외벽, 기둥을 제외하고 대부분 변형이 이루어져 원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또한 향후 재개발로 인한 철거 및 멸실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 시점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논하기에는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원형변형되어 가치 미흡

○ 출석 11명 / 부결 10명, 제척 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관사17호 마당집 (구) 철도관사 17호

2. 용 도 : (현) 근린생활시설 (원) 주택

3. 소재지 : 대전 동구 수향길 9(소제동 299-67)

4. 소유자 : (주)소제호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271번길 2층)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일식목구조
- 준공일 : 1939년(추정)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85.49㎡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21.4.28.)

<○○○○○○ ○○ ○○○>

1) 개요

- 목구조, 목재 심벽 위 모르타르 마감, 목조 지붕틀위 시멘트 기와 마감.
- 전형적인 일제강점기 철도관사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2호 연립의 주택이었으나 한쪽의 주택은 철거하여 측면이 드러나 있다.
- 남쪽 길에 면하는 현관을 통해 실내 출입이 가능하며 동쪽 측면에 부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었던 흔적이 있다. 북쪽의 마당을 향하여 세 개의 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각 창의 전체 테두리는 원래의 목재가 남아 있으나 리모델링 수리를 하며 통창으로 개조하였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원형을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식 목구조의 기둥과 주요 구조재만 남겨 놓고 내부벽과 방틀, 천정마감을 모두 철거하여 리모델링 후,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목조 지붕틀을 전체적으로 노출하여 전시장에 필요한 장치들을 설치해 두고 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이 지역의 관사건물 중, 현존하고 있는 유구들을 도시재생 수법으로 상업 또는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몇 군데 있기는 하나, 문화재 보존의 관점에서는 원형훼손과 가역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등록신청 서류의 첨부자료에는 일제강점기의 관사건축의 유형과 특색을 보여 주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문화재 보호의 관점에서 진정성과 원형유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전시공간으로 사용 중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국내의 관사단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 철거와 훼손 변형된 곳이나 퇴락한 곳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문화재로서 보존해야 할 부위를 잘 살리면서 보강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여지의 유구들이 아직 현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원형을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식 목구조의 기둥과 주요 구조재만 남겨 놓고 내부벽과 방틀, 천정마감을 모두 철거하여 리모델링 후,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목조 지붕틀을 전체적으로 노출하여 전시장에 필요한 장치들을 설치해 두고 있다.
- 오래 전부터 대전 소재동의 철도관사촌의 유구를 보존하여야 함을 여러 차례 권고하고 보존운동이 활발하게 일었던 적이 있으나 재개발 계획이 구체화 하면서 보존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이다. 게다가 도심재생의 수법이 이 지역에 도입되어 수익성을 염두에 둔 리모델링 기법이 만연하여 문화재로서 이 지역의 유구를 검토하고 보존·보호하는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 되었다. 본 조사대상물도 외관유지에는 충실한 면이 보이기 는 하지만 주택으로서 내부공간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여 문화재 등록을 할 만한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 ○○ ○○○>

1) 개요

- 일제강점기 대전역 주변에 형성된 3개의 관사촌 중 동관사촌에 위치한 철도관사 주택. 남관사촌과 북관사촌은 1910년대 조성되었고, 동관사촌은 1927년 이후 1930년대에 걸쳐서 조성.
- 동관사촌은 남관사촌과 북관사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관사가 남아 있음.
- 동관사촌(소제동 철도관사촌)에는 37채가 남아 있는데, 1920년대 관사 16채, 1939년의 관사 21채로 구성. 해당 관사는 1939년 건립한 21채 중 하나.
- 동관사촌은 1927년 소제호를 메우고 인공하천인 대동천 조성하면서 소제호 매립 지역에 관사를 건설하면서 조성되기 시작. 1920년대에 건설된 관사는 목조 비늘판벽이 특징이고, 1939년에 건설된 40여채의 관사는 목조 시멘트몰탈마감이 특징으로, 해당 관사는 1939년에 건설된 목조 시멘트몰탈마감의 건축물.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동일한 형태의 관사 2동이 측벽을 공유하며 병렬로 늘어서 있는 2호 연립형 관사이며, 해당 관사는 그 중 한 동에 해당

- 현존하는 일제강점기 관사도면을 토대로 추정해 보면 7등급(갑) 또는 7등급(을)에 해당하는 건물로 추정. 이 지역의 관사는 8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단층 목조 시멘트몰탈 마감 구조의 일본식 주택.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시멘트 기와를 얹음.
- 원형은 다다미실이었으나 해방 이후 철거되었을 것으로 추정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원형은 명확히 추정하기 어렵지만, 해방이후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
- 2020년에 시행된 수리를 통해 현재 전시공간으로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 수리에서 원형 또는 이른 시기의 부재가 상당수 멸실된 것으로 추정
- 상부 가구를 제외하고 구체(기단에서 지붕하단까지의 기둥 및 벽 등의 공간)에 해당하는 내부 벽 및 장지문 등의 구성요소는 모두 철거된 상태로 현재는 상부 목조 가구만 남아 있음. 이마(居間)와 츠키노마(次の間)를 연결하는 장지문이나 란마(欄間)와 같은 장식 부재가 남아 있지 않고, 도코노마(床の間)의 변형도 커서, 일본식 주택의 내부 공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멸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20년 상부 가구를 노출하는 형태로 수리가 이루어졌는데, 일본식 주택은 반자를 설치하여 상부 가구가 노출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상부 가구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대체로 상부 가구를 형성하는 부재는 기둥 등의 다른 구체를 형성하는 부재에 비해 양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연등천정의 형태를 취하며 상부 가구를 노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반자를 설치할 계획을 입안할 필요가 있음.
- 2020년의 수리를 통해 내부 공간이 모두 철거되었음.
- 현재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 벽이 모두 철거된 점은 역사적 보존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수리라고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소유자측의 지속적인 관리 및 보존 의지는 강하다고 판단되나 2020년의 수리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자체 및 관할 관청의 감시와 제어가 필요한 상황.
- 해당 관청 및 지자체에서 능동적인 모니터링과 케어가 가능한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성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재 전시공간으로의 활용은 향후 지속적인 보존 관리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활용 계획에 있어 체험과 전시라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존 관리 계획과의 부합성을 평가하기에 정보가 부족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어떤 프로그램을 운용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계획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함.
- 반자를 설치할 것을 추천하지만, 반자를 설치할 경우 전시 공간으로의 활용도는 저하되므로 다른 활용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다. 기타사항

- 밀접한 지역에 동일한 형태의 관사가 인접해 있으므로 개별동에 대한 활용 계획이 아닌 전체 지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제와의 가치 비교·검토

- 해당 관사와 동일한 유형의 등록 문화재로 구 영주역 5호관사(국가등록문화재 제720-1호)와 구 영주역 7호관사(국가등록문화재 제720-2호)를 들 수 있음. 건립연대와 규모가 해당 관사와 매우 유사한 형태에 속하여 일대일 비교가 가능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2호연립 관사로 동일한 유형이고 2018년에 등록되었으므로 현존 상태를 비교해 보면 그 가치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음. 구 영주역 5호관사(국가등록문화재 제720-1호) 및 구 영주역 7호관사(국가등록문화재 제720-2호)와 비교해 볼 때 해당 관사는 외관, 내부 공간, 구조 및 재료 등에 있어 보존 상태가 좋거나 동등하다고 보기 어려움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전형적인 중소규모의 관사에 해당하며 인접지역에 유사한 관사 주택이 다수 현존하므로 등록 신청한 해당 관사가 다른 관사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특정하기 어려움.
- 동일 구역 내에 현존하는 다른 관사 건축들보다 탁월한 문화제적 가치를 보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존하는 관사에 대한 전수 조사 또는 충분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관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선부르다고 판단된다. 다른 관사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장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보존할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선정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방법을 취하기를 추천한다.
- 2020년 기 수리된 부분은 현재의 전시 공간 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진행한 것이므로 이 수리를 통해 문화제로서의 가치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 수리는 문화재에 사용하지 않는 재료와 시공이 일부 추가되었고, 기존 부재의 철거 및 폐기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2020년의 수리가 문화제로서의 가치 보존에 있어서는 일부분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전용된 건축을 원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되므로 해당 관사는 문화재로 등록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최근에 수리가 시행된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 수리가 문화재 관리 감독 기관의 제어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수리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동 시설은 일제강점기 대전역 철도관사로 건립된 주택으로 오늘날 대전역 동편인 대전시 동구 소재동 299-67(수향길 9)에 위치하고 있음.
- 경부선 철길 개통과 함께 대전역(1904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철도 관사가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호남선 철길이 개설되면서부터는 늘어나는 관련 종사자들의 거주 등을 위해 일종의 주거단지가 조성되었음.
- 따라서 당시 역사(驛舍)를 주변으로 소위, ‘관사촌’이 순차적으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오늘날 대전역을 중심으로 남쪽의 남관사촌과 북쪽의 북관사촌, 동쪽의 동관사촌 등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임.
- 관사촌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동관사촌 인근의 ‘소제호(蘇堤湖)’를 매립(1927년)한 후 그 곳에 대규모의 관사촌(이하, ‘소제관사촌’)을 새롭게 조성하였는데, 이 시기를 대략 1930~40년대쯤으로 추정하고 있음.
- 또한, 오늘날 소제관사촌을 가로지르는 하천인 ‘대동천’이 이 과정에서 현재의 물길과 형태로 새롭게 축조되었다고 하며, 소제동이라는 법정 명칭은 역시 이곳에 소제호가 있었던 것에서 유래된 것임.
- 해방 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관사촌과 북관사촌, 동사관촌은 대부분 소실되어 오늘날 일부 흔적만이 남아 있는 것에 반해, 소제관사촌은 개별 관사주택(40여동 현존)과 함께 주거단지로서의 도시적 맥락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음.
-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철도 관사는 소위, 표준화 설계도면에 의해 지어지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3등급~8등급의 관사가 설치되었다고 하나 소제관사촌에서는 주로 6등급~8등급의 관사들이 확인되며, 이중에서도 7등급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들 관사 주택들은 1970년대 민간인에게 불하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생활의 요구에 따라 변형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건축물 자체의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임.
- 2000년 들어, 소제관사촌 주변 일대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로 선정되면서 다양한 개발계획이 반영되어 왔고, 최근에는 도로 개설 및 아파트재개발 등으로 인해 관사 주택들이 이미 멸실 되었거나, 철거 위기에 놓여 진 상태임.
- 또한, 최근 이들 관사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전시공간, 카페 등)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관사 주택이 갖는 건축적 진정성 등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기도 하였음.
- 동 관사 주택을 포함하여 이번 등록 신청한 4동의 시설 역시 리모델링을 거쳐 전시 공간 및 카페 등의 시설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요구조체 등을 제외한 많은 부분에서 현상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서 건축적 가치를 논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현재의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계획에 의하면, 동 관사 주택이 위치한 일대가 공동주택지로 개발될 예정이므로 향후, 철거 및 멸실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동 관사 주택을 포함하여 이번 등록 신청한 4동 모두 2호 연립의 관사 주택으로서 일제강점기 철도관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다만, 외벽 마감에서 ‘관사51호(두충나무집)’와 ‘관사14호(풍류가)’가 비늘판벽으로 마감된 것에 반해, 동 관사 주택과 함께 ‘관사16호’는 흙벽 바탕에 회칠을 하고 다시 그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칠을 하였음.
- 주택 평면과 공간구성은 현관을 포함한 각 실들이 홀과 속복도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욕실 및 화장실이 이미 실내 공간에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구(架構)는 일본식 목구조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축부는 흙벽 위에 회칠로 마감한 칸막이벽을 이용해 내부공간을 구획하였음. 각 실의 바닥에는 다다미를 깔았고 복도에는 장마루를 설치하였음.
- 2020년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목구조체와 외벽, 기둥을 제외하고 대부분 변형되어 원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임. 또한, 2017년 주변 도로 확장으로 인해 2호 연립 중 1개의 주택이 철거되었고 이 과정에서 가구(架構)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음.
- 외벽은 목재 비늘판벽이 아닌 진벽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발라 마무리하였는데, 단순히 시멘트 모르타르로만 마감한 것인지, 아니면 라스칠망과 방수포 등도 설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음. 지붕은 박공지붕 위에 시멘트 기와를 깔았으며, 박공면 상부에 환기를 위한 환기구를 루버창 형태로 설치하였고 관사번호판은 소실되었으나, 흔적은 남아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최초 건립 당시의 건축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기록 사진 등)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원형보존 상태 및 변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구조체의 변화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오랜 세월동안 살림집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있었고 또한, 최근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개·보수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형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기록 등도 남아 있지 않음. 현재 전시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노후화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유자((주)소제호)측에서는 철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근대기 대전에 도시와 생활사의 흔적으로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갖는 건물이라는 측면에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동 관사 주택이 위치한 필지가 공동주택 개발지에 해당되므로 향후, 철거 및 멸실 위기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소유자((주)소제호)측에서는 관사의 보존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와 건축적 가치를 유지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멸실을 막고 지역정체성을 유지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지역 문화유산으로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훼손, 멸실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또한, 공공성이 담보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제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일제강점기 건립된 철도관사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영주근대역문화공간’ 내 ‘구 영주역 5호관사’ 및 ‘구 영주역 7호관사’가 있으며, 이밖에 일반 관공서 등의 관사로는 ‘대전 충청남도 구 관사와 부속창고’ 등 전국에 걸쳐 다수의 사례가 있음.
- 철도관사는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립 주택들이 소위, ‘관사촌’의 형태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며, 대전 소재동 이외에도 순천 및 삼량진(밀양)역 주변에서 이러한 도시 구조의 흔적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동 관사 주택 역시 대전 소재관사촌의 형성과정과 건축적 정황 등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의 자료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실체 파악이 가능하며, 또한 동 관사 주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음.
- 다만, 근린생활시설로의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목구조체와 외벽, 기둥을 제외하고 대부분 변형이 이루어져 원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또한 향후 재개발로 인한 철거 및 멸실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 시점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논하기에는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임.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지침 및 기 등록된 사례에 따라 「대전역 구 소재관사촌 관사주택(17호)」이 적당할 것으로 보임.

안건번호 근대 2021-04-13

13. 「대전 소재동 철도관사 51호 두층나무집」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대전광역시 소재동 소재 「대전 소재동 철도관사 51호 두층나무집」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1.3.22.)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4.28.)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대전 소재동 철도관사 51호 두층나무집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100-24(솔랑5길 17)
 - 소유자 : ○○○
 - 수량 : 1동
 - 건립시기 : 1920년대 말(추정)
 - 구조 및 규모 : 목구조 / 건축면적 47.83㎡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1.3.22.)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대전광역시 → 문화재청)
 - ('21.4.28.)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현재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통하여 현상이 대부분 변형이 이루어져 원형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감안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검토가 필요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21.4.28.)

- 현재 사진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있어 내부의 벽을 비롯한 건축적 요소와 방들은 모두 철거 변형되어 있으며 일본식 목구조의 기둥과 외벽만 남아 있음.
- 오래 전부터 대전 소재동의 철도관사촌의 유구를 보존하여야 함을 여러 차례 권고하고 보존운동이 활발하게 일었던 적이 있으나 재개발 계획이 구체화 하면서 보존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임
- 도심재생의 수법이 이 지역에 도입되어 수익성을 염두에 둔 리모델링 기법이 만연하여 문화재로서 이 지역의 유구를 검토하고 보존/보호하는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 되었음. 본 조사대상물도 외관유지에는 충실한 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주택으로서 내부공간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여 문화재 등록을 할 만한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 ○○○○○○ ○○ ○○○('21.4.28.)

- 전형적인 중소규모의 관사에 해당하며 인접지역에 유사한 관사 주택이 다수 현존하므로 등록 신청한 해당 관사가 다른 관사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특정하기 어려움.
- 동일 구역 내에 현존하는 다른 관사 건축들보다 탁월한 문화재적 가치를 보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현존하는 관사에 대한 진수 조사 또는 충분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관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선부르다고 판단됨. 다른 관사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장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보존할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선정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방법을 취하기를 추천함.
- 2020년 기 수리된 부분은 현재의 전시 공간 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진행한 것이므로 이 수리를 통해 문화재로서의 가치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이 수리는 문화재에 사용하지 않는 재료와 시공이 일부 추가되었고, 기존 부재의 철거 및 폐기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2020년의 수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 보존에 있어서는 일부분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전용된 건축을 원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되므로 해당 관사는 문화재로 등록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1.4.28.)

- 동 관사 주택 역시 대전 소재관사촌의 형성과정과 건축적 정황 등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의 자료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실체 파악이 가능하며, 또한 동 관사 주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음.
- 다만, 근린생활시설로의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목구조체와 외벽, 기둥을 제외하고 대부분 변형이 이루어져 원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또한 향후 재개발로 인한 철거 및 멸실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 시점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논하기에는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임.

바. 의결사항

○ 부결

- 원형변형되어 가치 미흡

○ 출석 11명 / 부결 10명, 제척 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 1. 명 칭 : (현) 관사51호 두층나무집 (구) 철도관사 51호
- 2. 용 도 : (현) 근린생활시설 (원) 주택
- 3. 소재지 : 대전 동구 솔랑5길 17(삼성동 100-24)
- 4. 소유자 : (주)○○○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65-38)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일식목구조, 시멘트기와
- 준공일 : 1920년대(추정)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47.83㎡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21.4.28.)

<○○○○○○ ○○ ○○○>

1) 개요

- 소재동 관사촌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축조된 주택으로 추정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일분식 목구조, 비늘판 붙임 외벽마감, 시멘트 기와지붕
- 서쪽의 대문에서 마당 쪽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 사진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있어 내부의 벽을 비롯한 건축적 요소와 방들은 모두 철거 변형되어 있으며 일본식 목구조의 기둥과 외벽만 남아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이 지역의 관사건물 중, 현존하고 있는 유구들을 도시재생 수법으로 상업 또는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몇 군데 있기는 하나, 문화재 보존의 관점에서 원형훼손과 가역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문화재적 보호의 관점에서 원래 주택기능 때의 공간분석과 해석, 활용계획 수립에서 진정성 확보를 위한 보존 부위 결정 등의 과정에서 놓치면서 훼손한 부분이 과도한 상황이다.
-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사진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제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국내의 관사단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 철거와 훼손 변형된 곳이나 퇴락한 곳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문화재로서 보존해야 할 부위를 잘 살리면서 보강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여지의 유구들이 아직 현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현재 사진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있어 내부의 벽을 비롯한 건축적 요소와 방들은 모두 철거 변형되어 있으며 일본식 목구조의 기둥과 외벽만 남아 있음.
- 오래 전부터 대전 소재동의 철도관사촌의 유구를 보존하여야 함을 여러 차례 권고하고 보존운동이 활발하게 일었던 적이 있으나 재개발 계획이 구체화 하면서 보존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이다. 게다가 도심재생의 수법이 이 지역에 도입되어 수익성을 염두에 둔 리모델링 기법이 만연하여 문화재로서 이 지역의 유구를 검토하고 보존/보호하는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 되었다. 본 조사대상물도 외관유지에는 충실한 면이 보이지만 주택으로서 내부공간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여 문화재 등록을 할 만한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 ○○ ○○○>

1) 개요

- 일제강점기 대전역 주변에 형성된 3개의 관사촌 중 동관사촌에 위치한 철도관사주택. 남관사촌과 북관사촌은 1910년대 조성되었고, 동관사촌은 1927년 이후 1930년대에 걸쳐서 조성.
- 동관사촌은 남관사촌과 북관사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관사가 남아 있음.
- 동관사촌(소재동 철도관사촌)에는 37채가 남아 있는데, 1920년대 관사 16채, 1939년의 관사 21채로 구성. 해당 관사는 1939년 건립한 21채 중 하나.
- 동관사촌은 1927년 소재호를 메우고 인공하천인 대동천 조성하면서 소재호 매립 지역에 관사를 건설하면서 조성되기 시작. 1920년대에 건설된 관사는 목조 비늘판벽이 특징이고, 1939년에 건설된 40여채의 관사는 목조 시멘트물탈마감이 특징으로, 해당 관사는 1920년대 말에 건설된 목조 비늘판벽 마감의 건축물.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동일한 형태의 관사 2동이 측벽을 공유하며 병렬로 늘어서 있는 2호 연립형 관사이며, 해당 관사는 그 중 한 동에 해당
- 단층 목조 비늘판벽 마감 구조의 일분식 주택.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시멘트 기와를 얹음.
- 원형은 다다미실이었으나 해방 이후 철거되고 온돌로 변형되었을 것으로 추정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원형은 명확히 추정하기 어렵지만, 해방이후 온돌로 전용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변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 단, 정확한 보수 및 증축과 관련된 기록이 없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

- 2020년에 시행된 수리를 통해 현재 모습으로의 변형이 이루어졌고, 이 수리에서 원형 또는 이른 시기의 부재가 상당수 멸실된 것으로 추정
- 상부 가구를 제외하고 구체(기단에서 지붕하단까지의 기둥 및 벽 등의 공간)에 해당하는 내부 벽 및 장지문 등의 구성요소는 모두 철거된 상태로 현재는 상부 목조 가구만 남아 있음. 이마(居間)와 츠키노마(次の間)를 연결하는 장지문이나 란마(欄間)와 같은 장식 부재가 남아 있지 않고, 도코노마(床の間)의 변형도 커서, 일본식 주택의 내부 공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멸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20년 상부 가구를 노출하는 형태로 수리가 이루어졌는데, 일본식 주택은 반자를 설치하여 상부 가구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상부 가구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대체로 상부 가구를 형성하는 부재는 기둥 등의 다른 구체를 형성하는 부재에 비해 양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연등천정의 형태를 취하며 상부 가구를 노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반자를 설치할 계획을 입안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내부 벽이 모두 철거된 수리는 역사적 보존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수리라고 판단됨. 해당 관사는 현재 사진관으로 사용되고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소유자측의 지속적인 관리 및 보존 의지는 강하다고 판단되나 2020년의 수리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자체 및 관할 관청의 감시와 제어가 필요한 상황.
- 해당 관청 및 지자체에서 능동적인 모니터링과 케어가 가능한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성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재 사진관으로의 활용은 향후 지속적인 보존 관리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활용 계획에 있어 체험과 전시라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존 관리 계획과의 부합성을 평가하기에 정보가 부족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어떤 프로그램을 운용할 것인가가 불분명하므로 계획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함.
- 반자를 설치할 것을 추천하지만, 반자를 설치할 경우 전시 공간으로의 활용도는 저하되므로 다른 활용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다. 기타사항

- 밀집한 지역에 동일한 형태의 관사가 인접해 있으므로 개별동에 대한 활용 계획이 아닌 전체 지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해당 관사와 동일한 유형의 등록 문화재로 구 영주역 5호관사(국가등록문화재 제720-1호)와 구 영주역 7호관사(국가등록문화재 제720-2호)를 들 수 있다. 건립연대와 규모가 해당 관사와 매우 유사한 형태에 속하여 일대일 비교가 가능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호연립 관사로 동일한 유형이고 2018년에 등록되었으므로 현존 상태를 비교해 보면 그 가치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구 영주역 5호관사(국가등록문화재 제720-1호) 및 구 영주역 7호관사(국가등록문화재 제720-2호)와 비교해 볼 때 해당 관사는 외관, 내부 공간, 구조 및 재료 등에 있어 보존 상태가 좋거나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전형적인 중소규모의 관사에 해당하며 인접지역에 유사한 관사 주택이 다수 현존하므로 등록 신청한 해당 관사가 다른 관사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특정하기 어려움.
- 동일 구역 내에 현존하는 다른 관사 건축들보다 탁월한 문화재적 가치를 보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존하는 관사에 대한 전수 조사 또는 충분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관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선부르다고 판단된다. 다른 관사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장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보존할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선정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방법을 취하기를 추천한다.
- 2020년 기 수리된 부분은 현재의 상업용 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진행한 것이므로 이 수리를 통해 문화재로서의 가치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 수리는 문화재에 사용하지 않는 재료와 시공이 일부 추가되었고, 기존 부재의 철거 및 폐기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2020년의 수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 보존에 있어서는 일부분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전용된 건축을 원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되므로 해당 관사는 문화재로 등록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최근에 수리가 시행된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 수리가 문화재 관리 감독 기관의 제어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수리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동 시설은 일제강점기 대전역 철도관사로 건립된 주택으로 오늘날 대전역 동편인 대전시 동구 삼성동 100○24(술량5길)에 위치하고 있음.
- 경부선 철길 개통과 함께 대전역(1904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철도 관사가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호남선 철길이 개설되면서부터는 늘어나는 관련 종사자들의 거주 등을 위해 일종의 주거단지가 조성되었음.
- 따라서 당시 역사(驛舍)를 주변으로 소위, ‘관사촌’이 순차적으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오늘날 대전역을 중심으로 남쪽의 남관사촌과 북쪽의 북관사촌, 동쪽의 동관사촌 등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임.
- 관사촌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동관사촌 인근의 ‘소제호(蘇堤湖)’를 매립(1927년)한 후 그 곳에 대규모의 관사촌(이하, ‘소제관사촌’)을 새롭게 조성하였는데, 이 시기를 대략 1930~40년대쯤으로 추정하고 있음.

- 또한, 오늘날 소제관사촌을 가로지르는 하천인 ‘대동천’이 이 과정에서 현재의 물길과 형태로 새롭게 축조되었다고 하며, 소제동이라는 법정 명칭은 역시 이곳에 소제호가 있었던 것에서 유래된 것임.
- 해방 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관사촌과 북관사촌, 동사관촌은 대부분 소실되어 오늘날 일부 흔적만이 남아 있는 것에 반해, 소제관사촌은 개별 관사주택(40여동 현존)과 함께 주거단지로서의 도시적 맥락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음.
-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철도 관사는 소위, 표준화 설계도면에 의해 지어지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3등급~8등급의 관사가 설치되었다고 하나 소제관사촌에서는 주로 6등급~8등급의 관사들이 확인되며, 이중에서도 7등급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들 관사 주택들은 1970년대 민간인에게 불하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생활의 요구에 따라 변형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건축물 자체의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임.
- 2000년 들어, 소제관사촌 주변 일대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선정되면서 다양한 개발계획이 반영되어 왔고, 최근에는 도로 개설 및 아파트재개발 등으로 인해 관사 주택들이 이미 멸실되었거나, 철거 위기에 놓여진 상태임.
- 또한, 최근 이들 관사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전시공간, 카페 등)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관사 주택이 갖는 건축적 진정성 등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기도 하였음.
- 동 관사 주택을 포함하여 이번 등록 신청한 4동의 시설 역시 리모델링을 거쳐 전시 공간 및 카페 등의 시설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요구조체 등을 제외한 많은 부분에서 현상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서 건축적 가치를 논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현재의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계획에 의하면, 동 관사 주택이 위치한 일대가 공동주택지로 개발될 예정이므로 향후, 철거 및 멸실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동 관사 주택을 포함하여 이번 등록 신청한 4동 모두 2호 연립의 관사 주택으로서 일제강점기 철도관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다만, 외벽 마감에서 동 주택과 함께 ‘관사14호(풍뉴가)’는 비늘판벽으로 마감된 것에 반해, 나머지 ‘관사16호’, ‘관사17호(마당집)’는 흙벽 바탕에 회칠을 하고 다시 그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칠을 하였음.
- 관련 자료에 따르면 동 관사 주택은 1927년 소제호가 매립되기 이전, 다시 말해 소제관사촌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건립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사례로 알려져 있음.
- 주택 평면과 공간구성은 현관을 포함한 각 실들이 홀과 숙복도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욕실 및 화장실이 이미 실내 공간에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구(架構)는 일본식 목구조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축부는 흙벽 위에 회칠로 마감한 칸막이벽을 이용해 내부공간을 구획하였음. 각 실의 바닥에는 다다미를 깔았고 복도에는 장마루를 설치하였음.

- 2020년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목구조체를 제외한 내부 구조가 대부분 변형되어 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임.
- 외벽은 진벽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르고 그 위에 다시 목재 비늘판벽을 설치하였음. 지붕은 박공지붕 위에 시멘트 기와를 깔았으며, 박공면 상부에 환기를 위한 환기구를 루버창 형태로 설치하였고 관사번호판은 소실되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최초 건립 당시의 건축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기록 사진 등)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원형보존 상태 및 변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구조체의 변화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오랜 세월동안 살림집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있었고 또한, 최근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개·보수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형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기록 등도 남아 있지 않음. 현재 전시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노후화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유자측에서는 근현대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역사적 의미와 건축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체험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향유, 창작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자 함.
- 동 관사 주택이 위치한 필지가 공동주택 개발지에 해당되므로 향후, 철거 및 멸실 위기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소유자측에서는 원형보존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와 건축적 가치를 유지함으로써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고 지역정체성을 유지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지역 문화유산으로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훼손, 멸실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와 함께, 공공성이 담보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제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일제강점기 건립된 철도관사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영주근대역문화공간’ 내 ‘구 영주역 5호관사’ 및 ‘구 영주역 7호관사’가 있으며, 이밖에 일반 관공서 등의 관사로는 ‘대전 충청남도 구 관사와 부속창고’ 등 전국에 걸쳐 다수의 사례가 있음.
- 철도관사는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립 주택들이 소위, ‘관사촌’의 형태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며, 대전 소제동 이외에도 순천 및 삼량진(밀양)역 주변에서 이러한 도시 구조의 흔적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동 관사 주택 역시 대전 소제관사촌의 형성과정과 건축적 정황 등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의 자료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실제 파악이 가능하며, 또한 동 관사 주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음.

- 다만, 근린생활시설로의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변형이 이루어져 원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임. 또한 향후 재개발로 인한 철거 및 멸실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 시점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논하기에는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임.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문화재 명칭 부여 지침 및 기 등록된 사례에 따라 「대전역 구 소재관사촌 관사 주택(51호)」이 적당할 것으로 보임.

안건번호 근대 2021-04-14

14. 「대전 소재동 철도관사 14호 풍뉴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대전광역시 소재동 소재 「대전 소재동 철도관사 14호 풍뉴가」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1.3.22.)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1.4.28.)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소제호 대표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대전 소재동 철도관사 14호 풍뉴가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동 299-73(수향길 31)
 - 소유자 : (주)소제호
 - 수량 : 1동
 - 건립시기 : 1939년(추정)
 - 구조 및 규모 : 목구조, 시멘트기와/ 건축면적 68.5㎡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1.3.22.)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대전광역시 → 문화재청)
 - ('21.4.28.)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현재의 카페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과정에서 일본식 목구조의 기둥을 제외하고 대부분 변형이 이루어져 원형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감안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검토가 필요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21.4.28.)

- 원형을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일분식 목구조의 기둥과 주요 구조재들만 남겨 놓고 내부벽과 방들, 천정마감을 모두 철거하여 리모델링 후, 카페로 사용하고 있으며 목조 지붕틀을 전체적으로 노출하여 매장에 필요한 장치들을 설치해 두고 있음. 외벽의 창들은, 목재틀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대적 대형 슬라이드 창으로 바꾸었음.
- 오래 전부터 대전 소재동의 철도관사촌의 유구를 보존하여야 함을 여러 차례 권고하고 보존운동이 활발하게 일었던 적이 있으나 재개발 계획이 구체화 하면서 보존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임.
- 도심재생의 수법이 이 지역에 도입되어 수익성을 염두에 둔 리모델링 기법이 만연하여 문화재로서 이 지역의 유구를 검토하고 보존·보호하는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 되었음. 본 조사대상물도 외관유지에는 충실한 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주택으로서 내부공간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여 문화재 등록을 할 만한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됨.

○ ○○○○○○ ○○ ○○○('21.4.28.)

- 전형적인 중소규모의 관사에 해당하며 인접지역에 유사한 관사 주택이 다수 현존하므로 등록 신청한 해당 관사가 다른 관사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특정하기 어려움.
- 동일 구역 내에 현존하는 다른 관사 건축들보다 탁월한 문화재적 가치를 보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현존하는 관사에 대한 전수 조사 또는 충분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관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선부르다고 판단됨. 다른 관사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장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보존할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선정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방법을 취하기를 추천함.
- 2019년 기 수리된 부분은 현재의 상업 시설 목적에 부합하도록 진행한 것이므로 이 수리를 통해 문화재로서의 가치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이 수리는 문화재에 사용하지 않는 재료와 시공이 일부 추가되었고, 기존 부재의 철거 및 폐기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2019년의 수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 보존에 있어서는 일부분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전용된 건축을 원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되므로 해당 관사는 문화재로 등록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1.4.28.)

- 동 관사 주택 역시 대전 소재관사촌의 형성과정과 건축적 정황 등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의 자료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실체 파악이 가능하며, 또한 동 관사 주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음.
- 다만, 근린생활시설로의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변형이 이루어져 원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임. 또한 향후 재개발로 인한 철거 및 멸실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 시점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논하기에는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임.

바. 의결사항

○ 부결

- 원형변형되어 가치 미흡

○ 출석 11명 / 부결 10명, 제척 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 1. 명 칭 : (현) 풍뉴가 (구) 철도관사 14호
- 2. 용 도 : (현) 일반음식점 (원) 주택
- 3. 소재지 : 대전 동구 수향길 31(소제동 299-73)
- 4. 소유자 : (주) 소제호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271번길 2층)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구조, 시멘트 기와
- 준공일 : 1939년(추정)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68.5㎡
- 층수(높이) : 1층

6. 조사자 의견('21.4.28.)

<○○○○○○ ○○ ○○○>

1) 개요

- 목구조, 목재 심벽 위 모르타르 마감, 목조 지붕틀위 시멘트 기와 마감.
- 전형적인 일제강점기 철도관사 건축이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일본식 목구조,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
- 현재는 북측 진입으로 주택영역에 들어 갈 수 있으며 주동과 직각방향으로 부속동이 남아 있음.
- 대지 내에 건물 외의 터에는 대나무 숲이 정갈하게 꾸며져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원형을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식 목구조의 기둥과 주요 구조체들만 남겨 놓고 내부벽과 방들, 천정마감을 모두 철거하여 리모델링 후, 카페로 사용하고 있으며 목조 지붕틀을 전체적으로 노출하여 매장에 필요한 장치들을 설치해 두고 있다. 외벽의 창들은, 목재틀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대적 대형 슬라이드 창으로 바꾸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이 지역의 관사건물 중, 현존하고 있는 유구들을 도시재생 수법으로 상업 또는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몇 군데 있기는 하나, 문화재 보존의 관점에서는 원형훼손과 가역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이 지역의 관사건물 중, 현존하고 있는 유구들을 도시재생 수법으로 상업 또는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몇 군데 있기는 하나, 문화재 보존의 관점에서는 원형훼손과 가역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카페로 사용 중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국내의 관사단지가 여러 곳이 있는데 철거와 훼손 변형된 곳이나 퇴락한 곳이 많 이 있기도 하지만 문화재로서 보존해야 할 부위를 잘 살리면서 보강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여지의 유구들이 아직 현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원형을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식 목구조의 기둥과 주요 구조체들만 남겨 놓고 내부벽과 방들, 천정마감을 모두 철거하여 리모델링 후, 카페로 사용하고 있으며 목조 지붕틀을 전체적으로 노출하여 매장에 필요한 장치들을 설치해 두고 있다. 외벽의 창들은, 목재틀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대적 대형 슬라이드 창으로 바꾸었다.
- 오래 전부터 대전 소제동의 철도관사촌의 유구를 보존하여야 함을 여러 차례 권고하고 보존운동이 활발하게 일었던 적이 있으나 재개발 계획이 구체화 하면서 보존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이다. 게다가 도심재생의 수법이 이 지역에 도입되어 수익성을 염두에 둔 리모델링 기법이 만연하여 문화재로서 이 지역의 유구를 검토하고 보존/보호하는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 되었다. 본 조사대상물도 외관유지에는 충실한 면이 보이기는 하지만 주택으로서 내부공간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여 문화재 등록을 할 만한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 ○○ ○○○>

1) 개요

- 일제강점기 대전역 주변에 형성된 3개의 관사촌 중 동관사촌에 위치한 철도관사 주택. 남관사촌과 북관사촌은 1910년대 조성되었고, 동관사촌은 1927년 이후 1930년대에 걸쳐서 조성.
- 동관사촌은 남관사촌과 북관사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관사가 남아 있음.
- 동관사촌(소제동 철도관사촌)에는 37채가 남아 있는데, 1920년대 관사 16채, 1939년의 관사 21채로 구성. 해당 관사는 1939년 건립한 21채 중 하나.
- 동관사촌은 1927년 소제호를 메우고 인공하천인 대동천 조성하면서 소제호 매립 지역에 관사를 건설하면서 조성되기 시작. 1920년대에 건설된 관사는 목조 비늘판벽이 특징이고, 1939년에 건설된 40여채의 관사는 목조 시멘트물탈마감이 특징으로, 해당 관사는 1939년에 건설된 목조 시멘트물탈마감의 건축물.
- 함께 등록 신청한 관사 16호 및 관사 17호와 인접해 있고, 규모도 비슷.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동일한 형태의 관사 2동이 측벽을 공유하며 병렬로 늘어서 있는 2호 연립형 관사이며, 해당 관사는 그 중 한 동에 해당
- 현존하는 일제강점기 관사도면을 토대로 추정해 보면 7등급(갑) 또는 7등급(을)에 해당하는 건물로 추정. 이 지역의 관사는 8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단층 목조 시멘트몰탈 마감 구조의 일본식 주택.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시멘트 기와를 얹음.
- 원형은 다다미실이었으나 해방 이후 철거되었을 것으로 추정
- 상부가구에 와쿠즈리(襦鈎)라고 하는 장치가 남아 있음. 와쿠즈리: 보에 부재를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 와쿠즈리를 설치하여 하부 구조물이나 장식물을 달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원형은 명확히 추정하기 어렵지만, 해방이후 다양한 변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
- 2019년에 시행된 수리를 통해 현재 상업시설로의 변형이 이루어졌고, 이 수리에서 원형 또는 이른 시기의 부재가 상당수 멸실된 것으로 추정
- 현재 상업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 벽이 모두 철거된 점은 역사적 보존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수리라고 판단됨. 상부 가구를 제외하고 구체(기단에서 지붕하단까지의 기둥 및 벽 등의 공간)에 해당하는 내부 벽 및 장치문 등의 구성요소는 모두 철거된 상태로 현재는 상부 목조 가구만 남아 있음. 이마(居間)와 츠키노마(次の間)를 연결하는 장치문이나 란마(欄間)와 같은 장식 부재가 남아 있지 않고, 도코노마(床の間)의 변형도 커서, 일본식 주택의 내부 공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멸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19년 상부 가구를 노출하는 형태로 수리가 이루어졌는데, 일본식 주택은 반자를 설치하여 상부 가구가 노출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상부 가구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대체로 상부 가구를 형성하는 부재는 기둥 등의 다른 구체를 형성하는 부재에 비해 양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연등천정의 형태를 취하며 상부 가구를 노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반자를 설치할 계획을 입안할 필요가 있음.
- 상부 가구에 설치된 와쿠즈리는 바깥에 노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고 반자 안 쪽으로 숨겨 놓는 장치이므로 현재와 같이 상부에 노출된 채로 공개하는 것은 장치의 원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소유자측의 지속적인 관리 및 보존 의지는 강하다고 판단되나 2019년의 수리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자체 및 관할 관청의 감시와 제어가 필요한 상황.
- 해당 관청 및 지자체에서 능동적인 모니터링과 케어가 가능한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성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재 상업공간으로의 활용은 향후 지속적인 보존 관리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활용 계획에 있어 체험과 전시라고 있으나 프로그램이 구체적이지 않아 보존 관리 계획과의 부합성을 평가하기에 정보가 부족함.
-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어떤 프로그램을 운용할 것인가가 불분명하므로 계획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함.
 - 반자를 설치할 것을 추천하지만, 반자를 설치할 경우 전시 공간으로의 활용도는 저하되므로 다른 활용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다. 기타사항
 - 밀접한 지역에 동일한 형태의 관사가 인접해 있으므로 개별동에 대한 활용 계획이 아닌 전체 지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해당 관사와 동일한 유형의 등록 문화재로 구 영주역 5호관사(국가등록문화재 제720-1호)와 구 영주역 7호관사(국가등록문화재 제720-2호)를 들 수 있다. 건립연대와 규모가 해당 관사와 매우 유사한 형태에 속하여 일대일 비교가 가능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호연립 관사로 동일한 유형이고 2018년에 등록되었으므로 현존 상태를 비교해 보면 그 가치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구 영주역 5호관사(국가등록문화재 제720-1호) 및 구 영주역 7호관사(국가등록문화재 제720-2호)와 비교해 볼 때 해당 관사는 외관, 내부 공간, 구조 및 재료 등에 있어 보존 상태가 좋거나 동등하다고 보기 어렵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전형적인 중소규모의 관사에 해당하며 인접지역에 유사한 관사 주택이 다수 현존하므로 등록 신청한 해당 관사가 다른 관사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특정하기 어려움.
- 동일 구역 내에 현존하는 다른 관사 건축들보다 탁월한 문화재적 가치를 보지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존하는 관사에 대한 전수 조사 또는 충분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관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설부르다고 판단된다. 다른 관사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가장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보존할 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선정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방법을 취하기를 추천한다.
- 2019년 기 수리된 부분은 현재의 상업 시설 목적에 부합하도록 진행한 것이므로 이 수리를 통해 문화재로서의 가치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 수리는 문화재에 사용하지 않는 재료와 시공이 일부 추가되었고, 기존 부재의 철거 및 폐기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9년의 수리가 문화재로서의 가치 보존에 있어서는 일부분의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전용된 건축을 원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되므로 해당 관사는 문화재로 등록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최근에 수리가 시행된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 수리가 문화재 관리 감독 기관의 제어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수리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동 시설은 일제강점기 대전역 철도관사로 건립된 주택으로 오늘날 대전역 동편인 대전시 동구 소제동 299○73(수향길31)에 위치하고 있음.
- 경부선 철길 개통과 함께 대전역(1904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철도 관사가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호남선 철길이 개설되면서부터는 늘어나는 관련 종사자들의 거주 등을 위해 일종의 주거단지가 조성되었음.
- 따라서 당시 역사(驛舍)를 주변으로 소위, ‘관사촌’이 순차적으로 들어서게 되었으며 오늘날 대전역을 중심으로 남쪽의 남관사촌과 북쪽의 북관사촌, 동쪽의 동관사촌 등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임.
- 관사촌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동관사촌 인근의 ‘소제호(蘇堤湖)’를 매립(1927년)한 후 그 곳에 대규모의 관사촌(이하, ‘소제관사촌’)을 새롭게 조성하였는데, 이 시기를 대략 1930~40년대쯤으로 추정하고 있음.
- 또한, 오늘날 소제관사촌을 가로지르는 하천인 ‘대동천’이 이 과정에서 현재의 물길과 형태로 새롭게 축조되었다고 하며, 소제동이라는 법정 명칭은 역시 이곳에 소제호가 있었던 것에서 유래된 것임.
- 해방 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남관사촌과 북관사촌, 동관사촌은 대부분 소실되어 오늘날 일부 흔적만이 남아 있는 것에 반해, 소제관사촌은 개별 관사주택(40여동 현존)과 함께 주거단지로서의 도시적 맥락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음.
-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철도 관사는 소위, 표준화 설계도면에 의해 지어지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3등급~8등급의 관사가 설치되었다고 하나 소제관사촌에서는 주로 6등급~8등급의 관사들이 확인되며, 이 중에서도 7등급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들 관사 주택들은 1970년대 민간인에게 불하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생활의 요구에 따라 변형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건축물 자체의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임.
- 2000년 들어, 소제관사촌 주변 일대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에 선정되면서 다양한 개발계획이 반영되어 왔고, 최근에는 도로 개설 및 아파트개발 등으로 인해 관사 주택들이 이미 멸실 되었거나, 철거 위기에 놓여진 상태임.
- 또한, 최근 이들 관사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전시공간, 카페 등)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관사 주택이 갖는 건축적 진정성 등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기도 하였음.
- 동 관사 주택을 포함하여 이번 등록 신청한 4동의 시설 역시 리모델링을 거쳐 전시 공간 및 카페 등의 시설로 운영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요구조체 등을 제외한 많은 부분에서 현상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서 건축적 가치를 논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동 관사 주택이 위치한 필지는 당초 도로가 개설되는 곳이었으나, 현재는 도로 개설 전까지 도로폐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나, 여전히 철거 및 멸실 위기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동 관사 주택을 포함하여 이번 등록 신청한 4동 모두 2호 연립의 관사 주택으로서 일제강점기 철도관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다만, 외벽 마감에서 동관사와 ‘관사51호(두충나무집)’에서는 비늘판벽으로 마감된 것에 반해, 나머지 ‘관사16호’, ‘관사17호(마당집)’은 모두 흙벽 바탕에 회칠을 하고 다시 그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칠을 하였음.
- 주택 평면과 공간구성은 현관을 포함한 각 실들이 홀과 속복도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욕실 및 화장실이 이미 실내 공간에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가구(架構)는 일본식 목구조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축부는 흙벽 위에 회칠로 마감한 칸막이벽을 이용해 내부공간을 구획하였음. 각 실의 바닥에는 다다미를 깔았고 복도에는 장마루를 설치하였음.
- 지붕은 박공지붕 위에 시멘트 기와를 깔았으며, 박공면 상부에 환기를 위한 환기구를 루버창 형태로 설치하였고 외벽은 흙벽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르고 그 위에 다시 목재 비늘판벽을 설치하였음.
- 2019년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목구조체를 제외한 내부 구조가 대부분 변형되어 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최초 건립 당시의 건축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기록 사진 등) 등이 남아 있지 않아 원형보존 상태 및 변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구조체의 변화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오랜 세월동안 살림집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있었고 또한, 최근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개·보수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형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기록 등도 남아 있지 않음. 현재 카페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노후화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소유자측에서는 근현대 생활문화공간 체험과 주변 철도관사와 연계하여 관사촌으로 집약된 정보와 건축적 요소로 활용하고자 함.
- 동 관사 주택이 위치한 필지가 향후, 철거 및 멸실 위기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소유자측에서는 과거 생활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관사의 보존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와 건축사적 가치를 존치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대전지역 문화유산의 멸실을 지양하고 지역정체성을 유지하여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지역 문화유산으로 충분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훼손, 멸실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와 함께, 공공성이 담보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제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일제강점기 건립된 철도관사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영주근대역문화공간’ 내 ‘구 영주역 5호관사’ 및 ‘구 영주역 7호관사’가 있으며, 이밖에 일반 관공서 등의 관사로는 ‘대전 충청남도 구 관사와 부속창고’ 등 전국에 걸쳐 다수의 사례가 있음.
- 철도관사는 역사(驛舍)를 중심으로 다수의 연립 주택들이 소위, ‘관사촌’의 형태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며, 대전 소재동 이외에도 순천 및 삼량진(밀양)역 주변에서 이러한 도시 구조의 흔적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동 관사 주택 역시 대전 소재관사촌의 형성과정과 건축적 정황 등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의 자료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 실체 파악이 가능하며, 또한 동 관사 주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음.
- 다만, 근린생활시설로의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변형이 이루어져 원형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임. 또한 향후 재개발로 인한 철거 및 멸실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 시점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논하기에는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임.

8) 기 타(등록시 문화제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문화제 명칭 부여 지침 및 기 등록된 사례에 따라 「대전역 구 소재관사촌 관사 주택(14호)」이 적당할 것으로 보임.

안건번호 근대 2021-04-15

15. 국가지정문화재 등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주변 태양광시설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사적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인천광역시 중구	강화경찰 서장	<p><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주변 태양광시설 설치 (건축물 지붕)></p> <p>(1) 허가 받는 자 : 강화경찰서장</p> <p>(2) 허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17 ○ 세부내용 :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시설 설치 - 설치용량 : 28.44kW - 설치면적 : 177.45㎡(2개소) ※ 본관동 107.04㎡, 식당동 70.4㎡ - 설치규격 · 본관동 : 15.034m×7.12m×1.476m(높이) · 식당동 : 15.27m×4.611m×1.476m(높이) <p>(3)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1.12.31.</p> <p>(4)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현지조사 등 의견서('21.4.12.현지조사 후 보완자료 제출에 대한 최종의견임)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는 강화경찰서 본관동 및 식당동 건물은 성공회 성당보다 지형 상 낮게 위치하고 수목, 담장, 다른 건축물 등에 의해 차폐되어 성당 측에서는 본관동 옥탑 일부와 그 상부의 통신용 철타만 시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태임 - 두 건물 모두가 태양광 집열판을 1줄 단위로 분절하여 옥상 바닥에 낮게 설치하고 본관동은 건물 외곽 파라펫 벽체 이하로 식당동은 파라펫 벽체 높이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여 태양광 설비가 성공회 성당 측에서는 시각적으로 거의 노출되지 않으므로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허가	'21.5.2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국가등록 문화재 여수 사도·추도 마을 옛 담장	전라남도 여수시	○○○	<p><여수 사도·추도 마을 옛 담장 일부 이전> (1) 허가 받는 자 : ○○○ (2) 허가 내용 ○ 대상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낭도리 96번지 ○ 세부내용 : 담장 일부 이전 (3)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1.12.31. (4) 조건부 내용 ○ 담장 이전 시 인접대지경계선 담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 및 시공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5) 참고사항 ○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등('21.4.19.현지조사 후 보완자료 제출에 대한 최종 의견임) <문화재전문위원 ○○○> - 기존 계획에 비하여 담장을 대지 경계 안쪽 으로 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담장의 이축 위치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남서쪽 부분 담장에서 대지 경계선 안쪽으로 경사면에 석축을 신설하고 그 안쪽으로 담장을 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경사면 처리와 담장의 이축이 적절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 - 남서쪽 부분 담장 중 우물이 위치한 부분은 기존 석축을 존치하면서 우물과의 사이에 담장을 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기존 시설의 존치 및 담장의 이축이 적절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p>	조건부 허가	'21.5.14.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1명 / 원안접수 11명